

#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 생활과 윤리

**I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01	실천 윤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8
02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19

**II 생명과 윤리**

03	삶과 죽음의 윤리	34
04	생명 윤리	45
05	사랑과 성 윤리	55

**III 사회와 윤리**

06	직업과 청렴의 윤리	66
07	사회 정의와 윤리	76
08	국가와 시민의 윤리	89

## IV 과학과 윤리

09	과학 기술과 윤리	102
10	정보 사회와 윤리	112
11	자연과 윤리	122

## V 문화와 윤리

12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138
13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 윤리	149

## VI 평화와 공존의 윤리

14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162
15	지구촌 평화의 윤리	173

핵심 내용 정리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보조단 개념 설명

핵심 내용과 관련된 보조 설명이나 자료를 제시하여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념 체크

개념 체크 문항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6** 직업과 청렴의 윤리

**직업 생활과 행복한 삶**

1. 직업의 의미

(1) 직업의 의미: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 경제적 재료를 취득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

동향	사회적 지위나 역할, 책임을 나타내는 "직책"과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뜻하는 '업'이 없지 않을
사상	• 장티의 아르베이트(Erbeit)가 경제적 재산을 얻기 위해 하는 일 •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주교 알트 브루크의 훈언이 발달한 신학적 • 보카시엔(Vocatio) 신의 부름 신학(종교개혁)은 종교적 의미가 담긴 용어

(2) 직업의 가치

① 생계유지: 개인 및 가족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게 함  
② 자아실현: 개인이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함  
③ 사회적 참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분담, 수행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됨

2. 통사양의 직업관

(1) 통사양의 직업관

관차	직업: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것(종교)을 강조함
명사	• 대안: 일과 소인의 일을 구별하여 사회적 불공정 직업 간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함 • 직업: 직업의 사회적 기능(생산/분배)의 범용성과 도덕적 책임(신직업)의 기원이 강조되고 있음
순사	• 신직업: 직업과 직업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위한 '예행일' 제도를 강조함 • 신직업: 신직업이 직업을 윤리적으로 수행하면 천국이 태어난다고 봄

(2) 통사양의 직업관

몰라몬	• 가장 타고난 소질과 함께 과학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봄 • 직업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 역할을 살릴 수 있다고 봄
중세 교회의 직업관	• 노동은 영혼에 대한 보상(신사)의 의무로 규정되고 있음 • 직업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노동으로 이해되고 있음
칼뱅	• 직업은 신의 부름으로 소명(종교개혁)되고 있음 • 인간의 구원 여부는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고 보며, 근면 성실하고 정당한 생활을 통한 직업이 영혼을 구함
마버	• 직업의 예정성과 직업 소명성이 직업 윤리에 영향을 준다고 봄 • 종교의 교유(종교개혁) 생활 태도가 직업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봄
마버크로스	• 인간적 노동은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봄 • 직업주의 사회적 함의(노동 윤리)는 인간 소명을 발달시킨다고 비판함

**개념 플러스** **상업(商人) 정신**

영리한 정신(영리)은 근대의 기술을 개발하기 연이어 발생한 자본주의적 질서에 찬성하고 노력하는 태도  
나 재물, 재산의 차이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행태에 의해. 장인 정신은 전문적인 기술과 도덕적 용성을 지닌 장인이 될 것을 강조하는 개념의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는 사회적 측면도 포함된다.

(2) 사상의 직업관

몰라몬	• 가장 타고난 소질과 함께 과학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봄 • 직업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 역할을 살릴 수 있다고 봄
중세 교회의 직업관	• 노동은 영혼에 대한 보상(신사)의 의무로 규정되고 있음 • 직업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노동으로 이해되고 있음
칼뱅	• 직업은 신의 부름으로 소명(종교개혁)되고 있음 • 인간의 구원 여부는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고 보며, 근면 성실하고 정당한 생활을 통한 직업이 영혼을 구함
마버	• 직업의 예정성과 직업 소명성이 직업 윤리에 영향을 준다고 봄 • 종교의 교유(종교개혁) 생활 태도가 직업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봄
마버크로스	• 인간적 노동은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봄 • 직업주의 사회적 함의(노동 윤리)는 인간 소명을 발달시킨다고 비판함

개념 플러스

주요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플러스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심화 자료에 대한 분석·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플러스

칼리건의 배려 윤리

남성의 여성을 배우 다르게 대우하고 친밀 관계를 경험하기 전에 결혼에 동의할 필요성은 여성 서로 다른 삶의 목표를 강조하게 된다. 남성은 자비를 규정하고 그 책임을 부여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여성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친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중략) - 도덕적 책임은 요구를 저울질하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는 도덕적 책임의 문제로 규정된다. - 칼리건 "다문화 철학"

칼리건은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의 특징을 보려고 배려 윤리를 제시하였다. 칼리건은 도덕 판단에서 남성과 여성이 중시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책임과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사랑, 공감, 동정심, 상호 의존성, 유대 등 여성이 도덕적 특징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를 주장하였다.

(3) 성의 자기 결정권

의미	• 인간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성행위 부당한 일찍, 타인의 권리를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성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
올라버지 못한 자기 결정권 행사	• 인간이 갖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 성행위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 성행위 침해는 도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
해결 방안	서로의 인격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를 가져야 함

(4) 성 상품화

- ① 의미: 사회적 관계를 상품처럼 사고하거나, 다른 상품들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
- ② 사례: 섹스채,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성을 도구화하는 것 등
- ③ 찬반 입장

찬성 입장	반대 입장
•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함 •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 논리에 부합함 • 소비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해롭지 않음 •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노동과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음	• 성 상품화는 인간적 성이 아닌 인격적 가치의 위기를 초래함으로 올바른 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 • 인간이 갖는 자의 인격적 가치의 위기를 초래함 • 인격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해롭지 않음 •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노동과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음

자료 플러스

성 상품화와 성의 자기 결정권의 관계에 대한 입장 비교

(가) 자신을 상품화 시키는 행위를 저당으로 구별할 필요성은 행위자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비롯한 이윤 추구 행위는 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

(가)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른 성 상품화가 허용 가능하다고 보는 데 반해, (나)는 성 상품화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상품화에 반대하고 있다.

- 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
- 자의의 존엄을 존중받지 않는 행위자 행사
-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의

개념 체크

- 칼리건의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책임이 동일하지 않다고 봄
- 칼리건의 인격론
- 칼리건의 배려 윤리
- 칼리건의 배려 윤리

개념 체크

- 칼리건의 배려 윤리
- 칼리건의 배려 윤리
- 칼리건의 배려 윤리
- 칼리건의 배려 윤리

개념 체크

- 칼리건의 배려 윤리
- 칼리건의 배려 윤리

## 수능 기본 문제

기본 개념 및 원리, 간단한 분석 수준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교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능 기본 문제
www.ebsi.co.kr | EBSI 제공 4회

**01** 크롬은 어느 어떤 합금을 발한 것일까. 이 합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온의 산화상태를 적절히 설명하시오.

① 크롬은 어느 어떤 합금을 발한 것일까. 이 합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온의 산화상태를 적절히 설명하시오.

② 크롬은 어느 어떤 합금을 발한 것일까. 이 합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온의 산화상태를 적절히 설명하시오.

③ 크롬은 어느 어떤 합금을 발한 것일까. 이 합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온의 산화상태를 적절히 설명하시오.

**03**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적절히 설명하시오.

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다.

②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다.

**04** 다음을 주어진 사상의 입장에서 적절히 설명하시오.

① 다음을 주어진 사상의 입장에서 적절히 설명하시오.

**문항코드**  
문항코드로 문제를 검색하면 해설 영상이 바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능 실전 문제

보다 세밀한 해석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을 수록하여 응용력과 탐구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www.ebsi.co.kr | EBSI 제공 11회

**1**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적절히 설명하시오.

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다.



**2**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적절히 설명하시오.

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있다.

## 정답과 해설

정답과 오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 문제 및 응용 문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답과 해설
www.ebsi.co.kr | EBSI 제공 11회

**01** 실전 문제의 출제 문항에 대한 답구

① 실전 문제의 출제 문항에 대한 답구

② 실전 문제의 출제 문항에 대한 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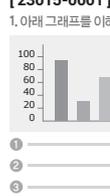
**학생 EBS 교재 문제 검색**

EBS 단추에서 문항코드나 사칭으로 문제를 검색하면 푸팅이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23015-0001]

23015-0001

1. 아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EBS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칭 검색은 EBSI 고교강의 앱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교사지원센터 교재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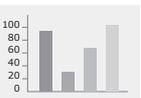
교재 문항 한글 문서(HWP)와 교재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재 자료실**

한글다운로드

교재이미지 활용

강의활용자료

※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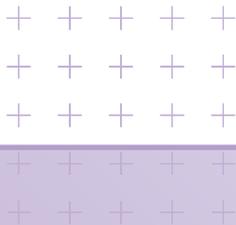


## EBS 교재 연계 사례

### 학습 요소

- 윤리학의 구분
-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 유교, 불교, 도가,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도덕 과학적 접근

❶ 이 단원에서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을 비롯한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등 다양한 윤리학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동서양의 윤리 이론을 토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윤리적 관점에서 일상의 윤리 문제를 성찰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윤리적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항 1번

1 (가), (나) 윤리학의 주된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는다.  
 (나) 윤리학은 도덕 원칙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는다.

- ① (가):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② (가): 도덕적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 ③ (나):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 ④ (나):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⑤ (가), (나):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답 ④

## 01 실천 윤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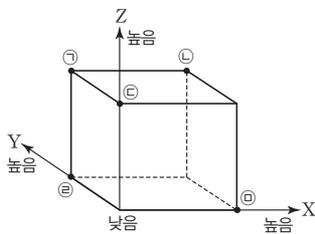
## 02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17쪽 5번

5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도덕 이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을: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도덕적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명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데 있다.



X: 윤리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  
Y: 도덕 판단에서 당위성보다 논리성을 강조하는 정도  
Z: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구조의 분석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답 ①

###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번 문항은 EBS 수능특강 17쪽 5번 문항의 제시문과 선지의 내용을 연계하였다. 모의평가 문항에서 (가), (나)의 내용은 수능특강 문항의 제시문 갑, 을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또한 모의평가 문항의 정답지인 ④번 선지는 수능특강 문항의 'X: 윤리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의 진술을 활용하였다.

예시된 문항은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항으로 유사 문항이 매년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 1번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 수능특강에서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의 분류와 핵심 탐구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유형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수능특강과 교과서를 통해 각 윤리학의 주된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비교하며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 1. 현대인의 삶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

#### (1)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윤리

##### ① 인간의 특성과 윤리

-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일회적이며, 인간은 열려 있는 존재임 →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고자 노력함
-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바탕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 → 윤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 ② 윤리의 의미와 특징

의미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적 태도를 강조함</li> <li>• 윤리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성격을 지님</li> <li>• 윤리는 집단에서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규범성을 띠고 있음</li> </ul>

#### (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

##### ① 새로운 윤리 문제의 등장

-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
-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 문제에 직면함
- 전통 윤리 규범의 한계: '인간 존중' 등과 같은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는 새로운 윤리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움

##### ② 현대 사회에 등장한 윤리 문제의 특징

- 윤리 문제의 파급 효과가 광범위함: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위협할 수 있음
-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윤리 문제의 원인이 되는 대상(개인, 기업, 국가)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③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

영역 구분	핵심 문제
생명 윤리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뇌사, 생명 복제, 동물 실험과 동물의 권리 등 삶과 죽음 및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
성과 가족 윤리	사랑과 성의 관계, 성차별과 양성평등, 성의 자기 결정권, 성 상품화 문제, 결혼의 윤리적 의미, 부부 윤리, 가족 해체 현상 등에 관한 문제
사회 윤리	직업 윤리 문제, 공정한 분배 및 처벌과 관련된 문제, 시민 참여와 시민 불복종 문제 등에 관한 문제
과학 기술과 정보 윤리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 문제, 정보 기술과 매체의 발달과 관련된 문제 등에 관한 문제
환경 윤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 기후 변화 문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에 관한 문제
문화 윤리	예술 및 대중문화와 관련된 문제, 의식주 및 소비와 관련된 문제, 다문화 관련 문제, 종교 문제 등에 관한 문제
평화 윤리	사회 갈등 문제, 통일 문제, 국제 사회의 분쟁과 국가 간 빈부 격차 문제 등에 관한 문제

#### ◎ 규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 ◎ 당위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당위적인 성격을 지님

#### 개념 체크

- ( )은/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이다.
- 인공 임신 중절, 자살은 ( ) 영역에 해당하는 윤리 문제이다.

#### 정답

- 윤리
- 생명 윤리

## 2. 실천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

### (1) 윤리학의 의미와 특징

- ① 윤리학의 의미: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
- ② 윤리학의 특징: 윤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목적으로 삼고,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나 기준을 탐구함
- ③ 윤리학의 분류

<b>규범 윤리학</b>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함 →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
<b>메타 윤리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함</li> <li>•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모색함</li> </ul>
<b>기술 윤리학</b>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히 기술(記述)하고, 기술된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함

### ④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b>이론 윤리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 가능한 도덕 원리를 탐구함</li> <li>•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지님</li> <li>예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등</li> </ul>
<b>실천 윤리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 윤리를 현대 사회의 여러 윤리 문제에 적용함</li> <li>•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하여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지님</li> <li>예 생명 윤리, 정보 윤리, 환경 윤리 등</li> </ul>

### (2) 실천 윤리학의 등장 배경과 특징

<b>등장 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론 윤리학의 한계</li> <li>• 세계화, 정보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윤리 문제 등장</li> </ul>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함</li> <li>•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다룸</li> <li>• 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함</li> <li>• 현실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 법학, 과학, 종교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학제적 접근을 중시함</li> </ul>

#### 자료 플러스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관계

도덕 철학은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으로 구분된다.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만약 철학자가 도덕규범의 체계를 세우고 이러한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도덕규범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또 자신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바꾸어 말해 그는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따라서 이러한 지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 판단에서 ‘안다’, ‘참인’, ‘타당한’, ‘정당화될 수 있는’과 같은 단어가 규범 윤리학에서도 사용되지만, 분명하고 주의 깊게 분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분석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

도덕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탐구하는 규범 윤리학과 도덕적 언어의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입증에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을 삼는 메타 윤리학으로 구분된다.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 규범 윤리학은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메타 윤리학적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 ❖ 의무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보편 타당한 법칙이 존재하며, 이 법칙을 따르면 옳고 따르지 않으면 그르다고 판단하는 윤리 이론

#### ❖ 공리주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는 윤리 이론

#### ❖ 덕 윤리

도덕 법칙이나 원리보다 행위자의 내면적 도덕성이나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윤리 이론

#### 개념 체크

- ①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하는 것은 ( )의 주된 과제이다.
- ②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론 윤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이/가 등장하였다.

#### 정답

- ① 메타 윤리학
- ② 실천 윤리학

◎ 역지사지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라는 뜻

◎ 도덕 원리

어떤 판단과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 결정하는 기준이자 원칙

◎ 역할 교환 검사

딜레마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취해 보는 것

◎ 보편화 결과 검사

자신이 채택한 입장을 유사한 상황에 있는 모든 행위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는 것

◎ 성찰(省察)

자신의 마음 또는 한 일을 깊이 되돌아봄

개념 체크

1 도덕적 지식을 통해 도덕적 의미를 구성하는 지적 활동으로 도덕 현상을 이해하고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구하는 것을 ( )이라고 한다.

2 ( ) 사고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1 도덕적 탐구
- 2 비판적

3. 도덕적 탐구의 방법

(1) 도덕적 탐구의 의미와 특징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적 지식을 통해 도덕적 의미를 구성하는 지적 활동</li> <li>• 도덕 현상을 이해하고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 당위적 차원에 주목함 → 탐구 대상의 옳고 그름 혹은 선악을 밝혀 행위를 정당화하고 도덕적 실천을 하는 데 중점을 둠</li> <li>•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기도 함 →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이성적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공감, 배려 등 정서적 측면도 중시함</li> <li>• 일반적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적 추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li> </ul>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사회의 복잡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li> <li>•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가치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됨</li> <li>• 타인을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됨</li> </ul>

(2) 도덕적 탐구의 방법

① 도덕적 탐구에서 필요한 요소: 도덕적 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 배려적 사고력

- 도덕적 추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도덕 원리’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도덕 판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

도덕 원리 (대전제)	도덕 원리가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 역할 교환 검사, 보편화 결과 검사
사실 판단 (소전제)	개념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함
도덕 판단 (결론)	도덕 판단을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가 가능한지,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함

- 비판적 사고: 사실 판단의 진위,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이나 관습,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위 및 권위자의 명령, 개인의 도덕적 감정과 양심 등에 대해 근거와 적절성을 따져 보는 것
- 배려적 사고: 공감 능력에 근거하여 타인의 욕구나 필요에 관심을 두고 그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그 필요를 충족해 주고자 하는 것

② 도덕적 탐구의 과정

1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 확인	윤리적 쟁점 및 윤리적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관련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관계인지, 왜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함
2 자료 수집 및 분석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에 여러 사항이 관련되어 있을 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3 입장 채택 및 정당화 근거 제시	정당화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할 교환 검사와 보편화 결과 검사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공감과 배려 같은 도덕적 정서도 고려해야 함
4 최선의 대안 도출	토론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함
5 반성적 성찰 및 입장 정리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 참여 태도, 탐구 활동을 통해 배운 점, 자신의 생각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함

4. 윤리적 성찰과 실천

(1) 윤리적 성찰의 의미와 중요성

① 윤리적 성찰의 의미

-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가짐, 행동 또는 그 속에 담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하여 윤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살피는 태도

- 도덕 원리와 모범적인 도덕 행동, 인격 특성을 판단의 근거(準據)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이 도덕적으로 좋고 나쁜지 또는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
- 자신의 도덕적 경험에 대하여 반성적 사고를 하고, 도덕적 삶의 실천 방향을 결정하는 것

② 윤리적 성찰의 중요성

- 도덕적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며,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함
- 인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윤리적 성찰을 통해 윤리적 실천력을 높이고 자신의 도덕적 변화 혹은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참다운 인격을 완성할 수 있음
-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 →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음

(2) 윤리적 성찰의 방법

- ① 윤리적 성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자신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검토함(예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은 정당한가?’ 등)
- ② 동서양의 윤리적 성찰의 방법

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자(曾子)의 일일삼성(一日三省)</li> <li>• 거경(居敬): 무엇이 인간의 참된 삶인지를 성찰하고,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흐트러짐이 없이 하며, 몸가짐을 삼가고 덕성을 함양함</li> <li>• 신독(慎獨):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신중히 함</li> </ul>
불교	참선: 마음을 가다듬어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수행법
소크라테스	산파술: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감정의 적절한 상태를 유지함

❖ 참선

무엇이 인간의 참된 삶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맑은 본성을 찾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앉아서 하는 수행법

자료 플러스 증자의 일일삼성(一日三省)

증자는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하루에 세 번 반성한다. 첫째, 남을 돕는 데 정성스럽게 하였는가? 둘째, 친구와 교제하는 데 신의를 다하였는가? 셋째,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잘 익혔는가?” - 공자, “논어” -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매일 하루 세 번씩 반성[一日三省(일일삼성)]하였다. 증자의 일일삼성의 가르침은 하루의 삶을 성찰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자료 플러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소크라테스는 어느 날 오후, 당시 아테네에서 존경받던 장군 라케스를 만났다. 라케스는 용기 있는 자가 군인이 되어야 하고, 전쟁터에서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라케스, 참된 용기란 무엇인지 말해 주겠소?”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용기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깨뜨렸다. 소크라테스는 우선 용기가 있으면서도 전쟁터에서 후퇴한 경우나 후퇴하지 않았어도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그런 경우를 발견했다. 그는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은 스파르타군은 매우 용맹스러웠지만 계속 후퇴하면서 기회를 보다가 적의 대열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공격하여 승리했던 사실을 떠올린 것이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도 후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라케스가 지금까지 막연히 믿어 왔던 잘못된 상식을 고쳐 주었다. - 플라톤, “라케스” -

산파는 산모를 도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산파술을 진리 탐구에 적용하여 상대방이 참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개념 체크

- ① ( )은/는 유교에서 제시하는 성찰의 방법으로,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 ②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 )은/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정답

- ① 신독
- ② 산파술

## 개념 체크

- 1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와 태도를 성찰하는 방법으로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동기로' 느끼거나 행하는 ( )을/를 강조하였다.
- 2 ( )은/는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기, 반론하기, 재반론하기, 정리하기'의 과정을 거친다.

정답

- 1 중용  
2 토론

##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절제 있는 사람은 중간의 방식으로 관계한다. 그는 건강에 기여하는 모든 것이나 좋은 상태를 위해 진정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적절하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욕구하며, 이런 것들에 진정 방해가 되지 않는 다른 즐거운 것들, 혹은 고귀함을 벗어나지 않거나 자신의 힘을 넘지 않는 즐거운 것들을 욕구한다.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갖는 가치 이상으로 그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절제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되)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와 태도를 성찰하는 방법으로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동기로' 느끼거나 행하는 중용을 강조하였다.

## (3) 토론을 통한 성찰

- ① 토론의 역할: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주관적인 의견이 보편적인 합의 형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줌
- ② 일반적인 토론의 순서

① 주장하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고 자신의 주장을 발표함
② 반론하기	상대방 주장의 오류나 부당성을 밝힘
③ 재반론하기	상대방의 반론이 옳지 않음을 밝히거나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더 많은 근거를 제시함
④ 정리하기	상대방의 반론을 참고하여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발표함

## (4) 윤리적 실천을 위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 ①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함
- ②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통해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 → 배움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사람됨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자료 플러스 밀의 토론의 필요성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까지처럼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적 또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 보여 주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의 근원, 즉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밀, "자유론" -

밀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이며, 인간은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자료 플러스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삶을 강조한 이이

버릇은 사람의 뜻을 견고하지 못하게 하고, 행실은 독실하지 못하게 하여, 오늘 한 것을 내일 고치기 어렵고 아침에 행한 것을 후회하고도 저녁이면 벌써 다시 그렇게 한다. 반드시 크게 용맹스러운 뜻을 펼쳐, 마치 한 칼로 밀동을 시원스레 잘라 버리듯, 마음을 깨끗이 씻어 털끝만한 남은 줄기마저 없게 하고, 때때로 깊이 반성하는 공부를 더해 이 마음으로 하여금 옛날 물든 더러움을 한 점이라도 없게 한 뒤라야 학문에 나아가는 공부를 말할 수 있다.

- 이이, "격몽요결" -

이이는 습관, 과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인격 완성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23015-0001]

0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는 매일 현실적인 윤리적 문제들과 마주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염의 경우에 종종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은 “망가뜨린 자가 고친다.”입니다. 이는 “오염자가 비용을 지불한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칙을 하나의 사례에 적용해 보자면, 만약 화학 공장이 강물을 오염시켰으면 공장의 주인에게 강물을 정화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각 나라들이 배출한 이산화 탄소로 인한 기후 변화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이산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윤리학자는 이와 같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여 해결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보기

- ㄱ. 윤리학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행위 지침을 연구해야 한다.
- ㄴ. 윤리학은 각 나라와 협력하여 이산화 탄소 배출 감축의 필요성을 모색해야 한다.
- ㄷ. 윤리학은 이산화 탄소 배출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 ㄹ. 윤리학은 기후 변화 문제가 학문 탐구의 주제로 성립 가능한지를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002]

02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좋은’, ‘옳은’, ‘의무’ 등 윤리적 언어의 의미와 상호 관계를 밝히는 것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윤리학은

㉠

- ① 인간이 지향해야 할 당위 범칙 정립에 주력해야 한다.
- ② 도덕적인 관행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에 주력해야 한다.
- ③ 가치 있는 삶의 방향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④ 이론 탐구를 통한 구체적 도덕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 ⑤ 도덕적인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적 구조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

[23015-0003]

03 다음 윤리학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의 특수한 예가 될 수 있는 개개의 실천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되는 척도의 유래와 기능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보편적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기

- ㄱ. 도덕적 개념의 과학적 분석에 주력해야 한다.
- ㄴ.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ㄷ. 사실로서의 도덕보다는 당위로서의 도덕을 탐구해야 한다.
- ㄹ.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있는 도덕 이론을 공고히 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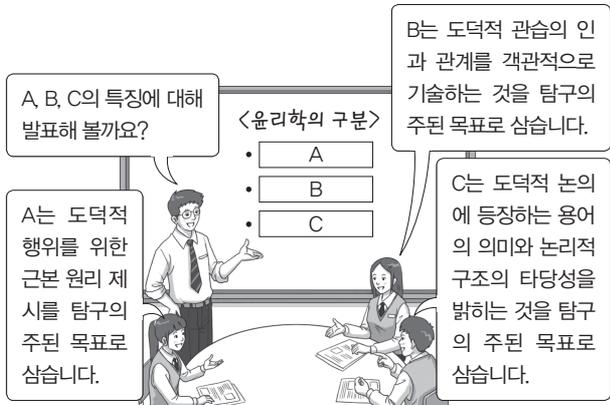
04 다음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개인과 사회가 어떤 도덕 판단을 통해 행위 하게 되는지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도덕 판단의 인과 관계를 정확히 탐구해야 한다. 따라서 윤리학은 한 문화권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행위 하는 방식에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 하는가?
- ② 윤리학은 도덕규범의 정립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 ③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 ④ 윤리학은 도덕 추론 과정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검증에 주력해야 하는가?
- ⑤ 윤리학은 도덕적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23015-0005]

05 그림에서 학생들이 모두 옳은 대답을 했다고 가정할 때,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도덕적 가치 판단보다 경험적 사실의 서술을 중시한다.
- ② B는 도덕적 관습에 대한 가치 중립적 탐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③ C는 도덕 법칙의 정립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 ④ A는 C와 달리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다.
- ⑤ B는 C와 달리 도덕적 규범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23015-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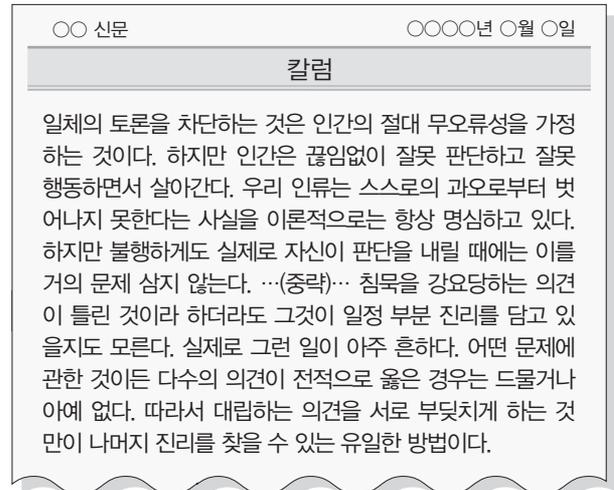
06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이다.
- ② ㉠에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 ③ ㉡은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이다.
- ④ ㉡에서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 ⑤ ㉢은 '자발적 안락사는 옳지 않다.'이다.

[23015-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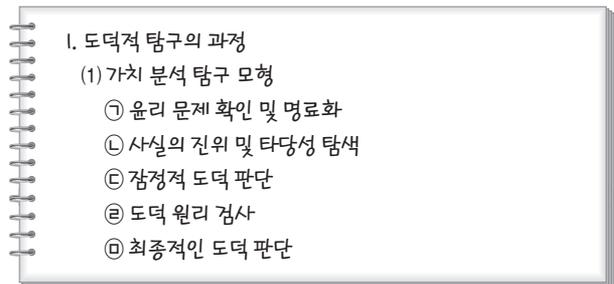
07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체의 토론을 차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 ② 인간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 ③ 의견이 대립할 경우에는 항상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 ④ 인간은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 ⑤ 토론 과정에서 자기와 다른 생각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23015-0008]

08 다음은 어느 학생의 필기 노트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윤리적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 갈등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한다.
- ② ㉡: 도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사실적인 지식을 수집한다.
- ③ ㉢: 윤리적 쟁점에 대해 확정적인 도덕 판단을 내린다.
- ④ ㉣: 자신이 내린 도덕 판단의 바탕이 되는 도덕 원리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한다.
- ⑤ ㉣: 최종적인 가치를 선택하고 그에 근거한 도덕 판단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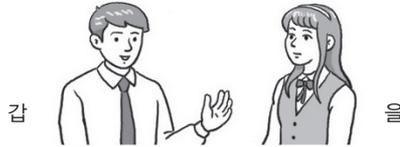


[23015-0011]

3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 이론을 전개하는 데 사용되는 도덕적 용어의 개념을 분석하고, 도덕 명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다양한 도덕 현상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하여 도덕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 ① 윤리학은 도덕규범의 정립보다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중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윤리학은 도덕규범의 현실적 적용과 구체적 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윤리학은 도덕적 풍습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서술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윤리학은 도덕 논증의 타당성 검토보다 도덕적 삶의 행위 지침 마련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⑤ 윤리학은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서술보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에 주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23015-0012]

4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윤리학은 도덕적 개념을 이해하고 도덕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이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옳은 행동에 관한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p> <p>을: 윤리학은 옳은 행동에 관한 보편적 원리를 다양한 생활 및 행동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실천적 학문이 되어야 하며, 도덕규범의 당위적 요구와 개개의 도덕 행위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 A</p> <p>↓ 예</p> <p>◇ B</p> <p>↓ 예</p> <p>갑의 입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C</p> <p>↓ 예</p> <p>을의 입장</p> </div> </div>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아니오</p>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lt;범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출발 조건</li> <li>◇ : 판단 내용</li> <li>→ : 판단 방향</li> <li>▭ : 갑, 을의 입장</li> </ul> </div>

보기

ㄱ. A: 삶의 지침이 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하는가?

ㄴ. A: 도덕규범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설명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ㄷ. B: 도덕 판단 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가?

ㄹ. C: 현실의 삶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3015-0013]

5 (가)의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인력사나 존엄사의 인정 여부, 기후 변화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과 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윤리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p> <p>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도덕적 준칙을 고수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아니다. 윤리학은 도덕적인 개념 혹은 도덕적인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적인 구조의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p>
(나)	

보기

- ㄱ. A: 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다루어야 함을 간과한다.
- ㄴ. A: 윤리학은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 도덕 이론의 정립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ㄷ. B: 윤리학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제적 접근이 중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ㄹ. B: 윤리학은 ‘좋은’, ‘해야 하는’ 등의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을 두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3015-0014]

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들에게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고, 본성은 모든 착함의 근원이므로 수양의 시작은 흠어지고 해이해져 놓아 버린 마음, 즉 방심(放心)의 상태를 거두어 덕성을 기르는 일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려무나. 이에 네가 마음 수양을 할 때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거라. 첫째, 마음을 한군데에 집중하여 잡념이 들지 않게 하고[主一無適], 둘째,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며[整齊嚴肅], 셋째, 항상 깨어 있어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常惺惺] 노력해 보거라.

보기

- ㄱ. 경(敬)의 자세로 마음 수양을 해야 한다.
- ㄴ. 자신의 삶을 성찰함으로써 절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 ㄷ.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 ㄹ. 시비선악의 분별을 벗어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3015-0015]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행위에는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그런데 덕은 감정과 행위와 관련하고, 이것들 안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옹근게 성공한다. 그러므로 덕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그러나 심술이나 파렴치, 절도나 살인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보기

- ㄱ. 중용의 자세로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
- ㄴ. 덕 있는 사람은 좋아해도 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한다.
- ㄷ. 모든 행위와 감정에서 중용의 상태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 ㄹ. 덕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에 존재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3015-0016]

8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한 학생은?

〈도덕적 탐구 과정〉

㉠

→

㉡

→

㉢

→

㉣

→

㉤

딜레마 확인

자료 수집 및 분석

입장 채택 및 정당화 근거 제시

최선의 대안 도출

반성적 성찰

〈문제 상황〉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뇌의 기능 정지를 바로 죽음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뇌사 판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뇌사를 죽음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할까?

다음은 도덕적 탐구 과정의 단계입니다. <문제 상황>으로 도덕적 탐구를 할 때, 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 단계에서는 탐구 활동을 통해 뇌사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타당한지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갑

을

병

정

무

㉠ 단계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했을 때 윤리적 쟁점 혹은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단계에서는 쟁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뇌사의 인정에 따른 긍정적 사례, 부정적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 단계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지의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단계에서는 뇌사의 인정 여부를 윤리학적 접근이 아닌 의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1. 유교 윤리적 접근

#### (1) 유교 윤리의 특징

- ①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현실에서 발생하는 삶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김
- ②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 완성과 도덕적 이상 사회의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음

도덕적 인격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자는 인(仁)을 내면적 도덕성으로 봄</li> <li>• 맹자는 사단(四端)이라는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고 봄</li> </ul>								
	<table border="1"> <tr> <td>측은지심(惻隱之心)</td> <td>인(仁)의 단(端)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td> </tr> <tr> <td>수오지심(羞惡之心)</td> <td>의(義)의 단으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td> </tr> <tr> <td>사양지심(辭讓之心)</td> <td>예(禮)의 단으로, 겸손하여 양보하는 마음</td> </tr> <tr> <td>시비지심(是非之心)</td> <td>지(智)의 단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td> </tr> </table>	측은지심(惻隱之心)	인(仁)의 단(端)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오지심(羞惡之心)	의(義)의 단으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	예(禮)의 단으로, 겸손하여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	지(智)의 단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측은지심(惻隱之心)	인(仁)의 단(端)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오지심(羞惡之心)	의(義)의 단으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	예(禮)의 단으로, 겸손하여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	지(智)의 단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은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은 존재이지만, 지나친 욕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음 → 극복 방법으로 경(敬)과 성(誠)을 강조함</li> <li>•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양하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봄 → 성인(聖人), 군자(君子)</li> <li>•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고 난 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을 실현하는 사람임</li> </ul>									
도덕적 이상 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서(忠恕)와 같은 덕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함</li> <li>• 형벌이나 무력보다는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를 강조함 → 덕치(德治)를 중시함</li> <li>• 백성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맹자의 향산(恒産)과 향심(恒心)</li> <li>•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大同社會)를 이상 사회로 제시함</li> <li>•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중시함 → 오륜(五倫)</li> </ul>								

#### 개념 플러스 공자의 인(仁)과 예(禮)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을 의미함</li> <li>• 존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을 전제로 하며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사랑</li> </ul>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의미함</li> <li>• 인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 →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克己復禮] 인이 이루어짐</li> </ul>

#### (2) 유교 윤리의 시사점

- ① 인간성 상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② 자기 수양의 자세를 통해 도덕적 해이(解地) 현상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③ 구성원 간의 관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의 소중함을 일깨움 **예** 정명(正名):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하여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함
- ④ 이기주의적 태도와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예** 견리사의(見利思義):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유교의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총과 서

- 충(忠):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는 것
- 서(恕):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 맹자의 '향산'과 '향심'

맹자는 “일반 백성은 향산이 없으면 향심을 지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 오륜

- 부자유친(父子有親):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함
-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함
-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함
-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함
- 붕우유신(朋友有信):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함

#### 개념 체크

- 1 맹자는 ( )이라는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 2 유교에서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고 난 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 )을/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 3 유교에서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 )을/를 강조한다.

#### 정답

- 1 사단
- 2 수기안인
- 3 정명

### ❖ 불성

부처의 마음이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근거

### ❖ 삼학

- 계(戒): 몸과 입, 뜻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
- 정(定):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
- 혜(慧): 분별심을 없애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 ❖ 열반

진리를 깨달아 모든 번뇌의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

## 개념 체크

- 1 불교에서 강조하는 ( )은/는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 )을/를 지니고 있으므로 평등하다고 본다.
- 3 대승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 )을/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 정답

- 1 연기
- 2 불성
- 3 보살

## 자료 플러스 유교의 대동 사회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려 내어 직위를 맡게 하고, 믿음을 도모하고 화목함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으며, 각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고, 장년에게는 일자리가 있으며, 어린 아이는 잘 양육되고, 외롭고 홀로된 자나 병든 자들은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남자에게는 남자의 직분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직분이 있다. 재화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지만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감추어 둘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 일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생기지 않고 훔치거나 해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문을 잠그지 않는다. 이를 일러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 “예기” —

공자가 추구한 대동 사회는 유능한 사람이 중용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며, 사람들이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평화로운 도덕 공동체이다.

## 2. 불교 윤리적 접근

### (1) 불교 윤리의 특징

#### ① 연기적 세계관, 평등적 세계관, 주체적 인간관

연기적 세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緣起)란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원인(因)과 조건(緣)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li> <li>•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함</li> <li>• 모든 것이 상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자기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자비(慈悲)의 마음이 저절로 생길 뿐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음</li> </ul>
평등적 세계관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을 지니며 연기의 법칙에 따라 연결되어 있으므로 평등함
주체적 인간관	인간은 누구나 주체적으로 계·정·혜의 삼학(三學) 등과 같은 수행 방법을 통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

#### ② 이상적 경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함

#### ③ 이상적 인간상: 대승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菩薩)을 제시함

### (2) 불교 윤리의 시사점

- ①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신 수양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참선과 같은 수행 방법 제시
- ② 생명 경시 풍조나 생태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모든 중생에 불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며,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살생과 환경 파괴를 경계할 수 있음
- ③ 보편적인 인류애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할 수 있음: 자비를 실천하는 보편적인 인류애 발휘

## 자료 플러스 불교의 연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이다. — “잡아함경 2” —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이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 3. 도가 윤리적 접근

#### (1) 도가 윤리의 특징

- ① 사회 혼란의 원인: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
- ②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 강조
- ③ 노자
  -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강조함: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道)에 따라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따를 것을 강조함 → 상선약수(上善若水) 제시
  -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소국 과민(小國寡民)을 이상 사회로 제시함: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이상 사회

#### 개념 플러스 노자의 도(道)

노자는 도(道)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생성 변화의 법칙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도덕경”에서 “말하여진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며, 이름 지어 불린 이름은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란 형체가 없고 인간의 감각 경험을 넘어선 것,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것,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 ④ 장자

제물(齊物)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바라봄
소유유(逍遙遊)	어떠한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없앴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절대 자유의 경지

- 제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법: 좌망(坐忘), 심재(心齋)
- 이상적 인간상: 모든 차별이 소멸된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오른 인간으로 지인(至人), 진인(真人), 신인(神人), 천인(天人)이라고 부름

#### 자료 플러스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장자의 수양 방법

- 너의 뜻을 하나로 통일하여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들어라. 기라는 것은 텅 비움으로써 바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인다. 도(道)는 오로지 텅 비우는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心齋)라고 한다.
-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이성적 분별 작용[知]을 버린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를 좌망(坐忘)이라고 한다.

- “장자” -

장자는 인위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心齋(심재)], 조용히 앉아서 시비 분별을 잊어야 한다[坐忘(좌망)]고 보았다.

#### (2) 도가 윤리의 시사점

- ① 내면의 자유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지나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②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 상선약수

‘옳음이 되는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로,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도에 가장 가까운 것임. 물이 가지고 있는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이 무위자연을 나타낸다고 봄

#### ◎ 소국 과민

문명의 발달이 없고 갑옷이나 무기가 쓰일 일이 없는 작은 나라에 적은 수의 백성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이상적인 사회

#### ◎ 좌망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 ◎ 심재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것

#### 개념 체크

- 1 노자는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 )의 삶을 강조하였다.
- 2 노자는 물이 지닌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강조하는 ( )을/를 제시하였다.
- 3 장자는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바라보는 ( )을/를 강조하였다.

#### 정답

- 1 무위자연
- 2 상선약수
- 3 제물

④ 의무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따라야 할 보편타당한 법칙이 존재하며, 우리의 행위가 이 법칙을 따르면 옳고 따르지 않으면 그르다고 판단함. 의무론의 대표적인 윤리 사상으로는 자연법 윤리와 칸트 윤리가 있음

⑤ 칸트의 '의무'와 '선의지'

- 의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그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
- 선의지: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로 무제한적으로 선행하며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

⑥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 정언 명령: '너는 무조건 ~을 해야 한다.'는 형식의 명령
- 가언 명령: '만약 네가 A를 원한다면, 너는 B를 해야 한다.'는 형식의 명령

⑦ 준칙(準則, maxim)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 '격률(格率)'이라고도 함

⑧ 실천 이성

순수 이성을 통해 인식한 도덕 원리를 실천적·자율적 의지로 바꾸어 실천하게 하는 능력

개념 체크

- 1 ( )은/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법으로,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 2 칸트는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 )을/를 중시하였다.
- 3 칸트는 도덕 법칙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 )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정답

- ① 자연법
- ② 동기
- ③ 정언 명령

4. 의무론적 접근

(1) 자연법 윤리

자연법	• 의미: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법.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 • 내용: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는 옳지만 그것을 어기는 행위는 그르다고 봄.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생명의 불가침성 및 존엄성, 인간 양심의 자유, 만민 평등 등의 자연법적 권리를 도출함
스토아학파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음
아퀴나스	'선은 추구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법의 제1원리로 제시하고,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으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을 제시함

자료 플러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자연의 만물은 영원법에 종속되어 있다. 인간은 영원법에 특별한 방식으로 따른다. 즉 인간은 신이 심어 놓은 본성의 법칙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영원법의 섭리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신의 섭리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동시에 신의 섭리에 따라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영원법에 대한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 아퀴나스, "신학대전" -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궁극적 근거가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신적 지혜의 이념, 즉 영원법이며,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자연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연법의 공통적인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으며, 자연법의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도덕 규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2) 칸트 윤리

- ①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면서 오로지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봄
- ②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음 → 도덕 법칙은 정언(定言)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음
- ③ 대표적인 도덕 법칙

보편주의	"네 의지의 준칙(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인격주의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 하고,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지 마라."

자료 플러스 칸트의 도덕 법칙이 지닌 특징과 의의

내가 그것을 거듭 또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 칸트, "실천 이성 비판" -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고유한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가 말하는 도덕 법칙이란 실천 이성이 우리 자신에게 부과한 자율적인 명령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정언 명령이다.

(3) 의무론적 윤리의 시사점

자연법 윤리	인간의 자연적 생명권과 신체의 불가침성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의 이론적 근거 제공
칸트 윤리	보편적인 윤리를 확립하고, 인간 존엄성의 정신을 강조하여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5. 공리주의적 접근

### (1)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

- ① 인간관: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임
- ② 윤리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며, 행복이 삶의 목적임
- ③ 도덕의 원리: ‘공리의 원리’ 또는 ‘최대 행복의 원리’가 옳은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2) 벤담

- ①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善)이라고 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함
- ② 쾌락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봄

### (3) 밀

- ①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봄
- ②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봄

#### 자료 플러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밀의 질적 공리주의**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에 달려 있다. 한편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다른 한편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이들의 지배에 달려 있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종속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종속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데 그칠 뿐이다.
-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관련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행복을 촉진하느냐 저해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각각의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한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 쾌락의 질적 차이가 무슨 뜻이냐, 또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쾌락을 다른 쾌락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나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다.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도덕적 의무 같은 것과 관계없이 그중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밀, “공리주의” -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즉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 행위를 선으로 보았다. 그는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고 쾌락을 계산하기 위한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밀은 벤담과 달리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쾌락과 낮은 수준의 쾌락을 구분하였다. 밀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쾌락은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다량의 쾌락보다 훨씬 우월하다.

### (4)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 ① 행위 공리주의: 유용성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에 적용하여 개별적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이나 행복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함
- ② 규칙 공리주의: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지 판단한 후, 그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봄

### (5) 공리주의의 시사점

- ① 도덕의 목적이 행복 증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함
- ②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는 방안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음

#### ❖ 벤담의 쾌락 계산 기준

- 강도: 얼마나 강한가?
- 지속성: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 확실성: 얼마나 확실한가?
- 근접성: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 다산성: 얼마나 다른 쾌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 순수성: 얼마나 고통이나 부작용이 없이 순수한가?
- 범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 개념 체크

- ① 공리주의 입장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 )의 원리이다.
- ② 벤담은 ( )을/를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善)이라고 보았다.
- ③ ( )은/는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 판단한 후, 그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보는 입장이다.

#### 정답

- ① 공리 또는 최대 행복
- ② 쾌락 또는 행복
- ③ 규칙 공리주의

◎ 매킨타이어

영국 출신 윤리학자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전통을 계승하였음. 대표적 저서로 “덕의 상실”이 있음

◎ 도킨스의 ‘자연 선택’

“모든 생물종은 자연 자원이 지탱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자손을 생산한다. 또한 모든 생물종은 약간씩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많은 자손 중 어떤 자손이 살아남을 것인지를 자연이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을 수십 세대, 수백 세대 반복하게 되면 생물종은 서서히 변화, 진화하게 된다.”

개념 체크

- 1 현대 덕 윤리는 행위자의 ( )을/를 먼저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2 매킨타이어는 ( )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며, 도덕 판단에서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사고를 중시하였다.

정답

- 1 성품
- 2 공동체

## 6. 덕 윤리적 접근

### (1) 등장 배경: 근대 윤리의 한계 비판

- ①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행위자 내면의 도덕적 성품과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비판함
- ②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동체가 중시하는 용기나 진실성 등의 덕목이 경시됨

### (2) 현대 덕 윤리의 특징

- ① 행위자 중심: 행위자의 성품을 먼저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윤리적으로 옳고 선한 결정을 하려면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한다고 봄 → 유덕한 성품을 갖추려면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하여 내면화해야 함
- ② 자연적 감정과 동기 중시: 인간의 욕구나 감정, 인간관계에 주목함
- ③ 특정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행위 할 법한 것을 행하라고 요구함
- ④ 매킨타이어: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더 중시하며, 도덕적 판단에서 구체적이며 맥락적인 사고를 중시할 것을 주장함

### 자료 플러스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된 선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 핵심적인 덕성이 없다면 우리가 실천에 내재된 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봉쇄된다.
-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또는 저 조합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친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빛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내 삶에 주어진 바이고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 매킨타이어, “덕의 상실” -

매킨타이어는 덕이 사회적 실천 또는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인간의 성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해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삶의 구체적 모습이 도덕적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3) 현대 덕 윤리의 시사점: 윤리학의 논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개인의 실천 가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 7. 도덕 과학적 접근

- (1) 도덕 과학적 접근의 의미: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 문제를 과학에 근거하여 탐구하는 방식

- (2) 신경 윤리학: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이성과 정서의 역할, 자유 의지나 공감 능력의 여부 등을 과학적 측정 방법을 통해 입증함 예 뇌의 전면을 영상으로 보여 주는 장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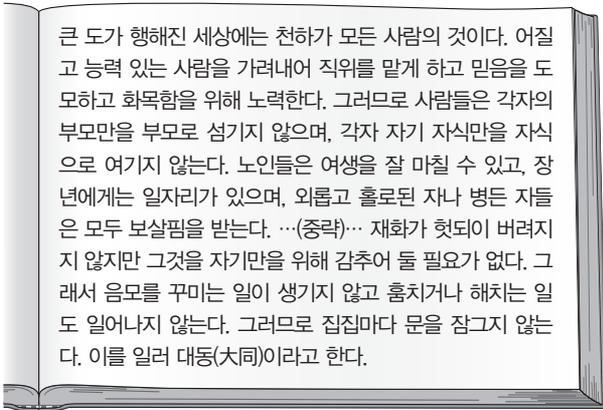
### (3) 진화 윤리학

- ① 이타적 행동 및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함
- ②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로 봄 → 인간은 이타적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행동함

- (4) 도덕 과학적 접근의 시사점: 어떤 과정을 거쳐 도덕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지, 어떤 요인이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둬.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과정, 도덕성의 형성 요인 등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도움을 줌

[23015-0017]

01 그림은 어느 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상 사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능한 사람이 중용되는 사회이다.
- ②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이다.
- ③ 사회 구성원 모두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이다.
- ④ 부국강병을 통치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 사회이다.
- ⑤ 덕에 따라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23015-0018]

0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람이 사단(四端)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지(四肢)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단이 있는데도 스스로 인의(仁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요, 자기 왕이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왕을 해치는 사람이다.

보기

- ㄱ.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 ㄴ. 측은지심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마음이다.
- ㄷ.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이 군주가 되어야 한다.
- ㄹ. 타고난 본성을 교정해야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5-0019]

03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이다.

- ① 죽음, 병듦, 늙음은 삶과 달리 그 자체로 고통이다.
- ② 제(戒)·정(定)·혜(慧)의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 ③ 탐(貪)·진(瞋)·치(癡)를 버려야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
- ④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에게 원인(因)과 조건(緣)이 되면서 생멸한다.
- ⑤ 연기(緣起)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

[23015-0020]

0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상대적으로 일어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은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된 것이고, 높고 낮음은 서로 상대적 높이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무위(無爲)로 일에 머무르면서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 ①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사는 것이 이상적인가?
- ② 만물을 이롭게 해 주고 다투지 않는 덕(不爭)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③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는 덕(謙虛)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④ 어린아이와 같이 자연 그대로의 순진한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 ⑤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 문명의 발달을 추구해야 하는가?

[23015-0021]

**0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이다. 인과라는 직조물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은 매 순간 구체적인 사건과 얽혀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모든 일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라. 그러면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건의 연속성 속에는 단지 그 결과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당한 질서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사물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 보기 】

- ㄱ. 인간은 누구나 신의 섭리를 파악할 수 있다.
- ㄴ. 인간이 따라야만 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 ㄷ.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 ㄹ.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각을 통해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022]

**0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용기, 결단성, 초지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도의 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히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을: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를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유일한 요소는 행위에 의해 생겨나는 행복과 불행의 양에 대한 측정 결과이다.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증가시키는 경향이 클 경우, 그 행동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일치한다.

- ① 갑은 준칙에 따르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도덕적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가 있다고 본다.
- ⑤ 을은 갑과 달리 공리의 원리가 옳은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23015-0023]

**0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행위의 규칙이 옳은 행위의 결정 기준이다. 어떤 행위가 최대의 공리를 가지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위의 규칙이 최대의 공리를 가지는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을: 개별 행위의 결과가 옳은 행위의 결정 기준이다. 어떤 행위 규칙의 가치는 어렵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개인의 행위는 그 행위가 산출하는 유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보기 】

- ㄱ. A: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를 중시해야 하는가?
- ㄴ. A: 유용성이 검증된 도덕 규칙에 일치하는 행위는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ㄷ. B: 개별 행위가 낳는 쾌락의 양을 계산하는 것은 불필요한가?
- ㄹ. C: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5-0024]

**0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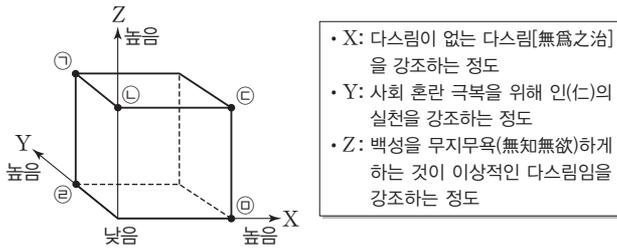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된 선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 핵심적인 덕성이 없다면 우리가 실천에 내재된 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봉쇄된다.

- ① 도덕 평가에서 동기와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가?
- ② 공동체의 전통과 덕목에 부합하도록 행위 해야 하는가?
- ③ 도덕적 행위자는 상황과 맥락보다 도덕 법칙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④ 유덕한 성품을 갖추려면 선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가?
- ⑤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사회적 관행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할 수 있는가?

[23015-0025]

1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아야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고,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의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을: 명분(名分)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게 전달되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게 전달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흥성하지 않고, 예악이 흥성하지 않으면 형벌이 사리에 맞지 않고, 형벌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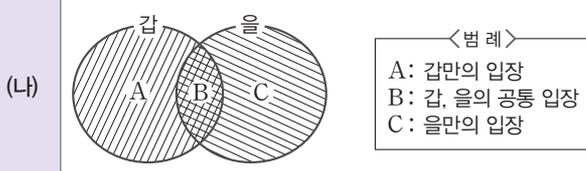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5-0026]

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라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린이의 부모와 친하고자 해서도 아니며, 마을 사람이나 벼들에게 인자하다는 명예를 구해서도 아니고, 울음소리가 싫어서도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남의 어려움을 보면 차마 그냥 지나치기 못하는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을: 물오리는 비록 다리가 짧지만 그것을 길게 이어 주면 괴로워하고, 학의 다리는 길지만 그것을 짧게 잘라 주면 슬퍼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본래부터 긴 것을 잘라서는 안 되며, 본래부터 짧은 것을 이어 주어서도 안 된다.



보기  
 ㄱ. A: 인의(仁義)의 실현을 정치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ㄴ. A: 덕(德)을 발휘할 때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ㄷ. B: 타고난 본성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때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ㄹ. C: 선악(善惡), 장단(長短)과 같은 구별이 차별을 낳아 타고난 본성을 해치게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3015-0029]

###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아서 허영이나 사익과 같은 어떤 다른 동인 없이도 자기 주위에 기쁨을 확대하는 데서 내적 만족을 발견하고 타인의 만족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행위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참된 윤리적 가치를 갖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p> <p>을: 한쪽에서는 쾌락의 가치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가치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만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그러한 개별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고통 쪽에 기운다면, 전반적으로 행위의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p>
(나)	<p>얼마 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앞차와 추돌한 후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전복된 차량을 들어 차 안에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할 경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복된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을 구조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 보기 |

- ㉠. ㉠: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 행동했을 것입니다.  
 ㉡. ㉠: 타인을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고 항상 목적으로 여겨 행동했을 것입니다.  
 ㉢. ㉡: 구조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행동했을 것입니다.  
 ㉣. ㉡: 자연적 경향성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동했을 것입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3015-0030]

###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적 욕구의 세 차원에 따라서 자연법의 세 차원이 있다. 첫째,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다. 둘째, 압수 결합의 욕구, 자식 교육의 욕구와 같은 종족 보존의 욕구가 있다. 셋째, 신과 관련된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선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의 대상이요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연법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① 자연법에 어긋나게 제정된 실정법은 무효가 된다.  
 ②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자연법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③ 자연법을 발견하여 윤리적 실천을 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④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명령은 자연법의 기본 원리이다.  
 ⑤ 자기 보존의 욕구는 신, 인간, 세상을 알고자 하는 욕구와 달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는 자연적 성향이다.

[7~8] 다음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쾌락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고통은 그 자체로 악한 것입니다.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강도와 지속성 등 여섯 가지 기준 외에 쾌락과 고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참작해야 합니다. 공리의 원리는 쾌락의 양만을 계산하여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습니다.

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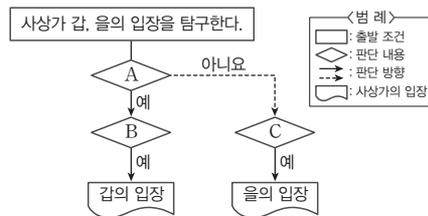
쾌락도 쾌락 나름입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에 대해 평가할 때는 쾌락의 양만을 따져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을



[23015-0031]

7 갑,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가?
- ㄴ. B: 고통을 산출한 행위가 도덕적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불가능한가?
- ㄷ. C: 어떤 행동이든 최대 다수의 행복을 증진할수록 옳은 것이 되는가?
- ㄹ. C: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 쾌락의 양적 차이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한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3015-0032]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갑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사회에 더 큰 행복을 산출하는 규칙들의 집합에 속하는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일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 행위는 옳다. 즉 최대 공리를 갖는 행위의 규칙을 세우고, 어떤 행위가 그 규칙에 일치한다면 도덕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 ① 절대적인 정언 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옳은 행위임을 간과한다.
- ② 행위의 옳고 그름은 최대 공리의 산출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간과한다.
- ③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의 규칙에 적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가 옳은 행위임을 간과한다.
- ⑤ 유용성을 고려하지 말고 보편적 도덕 규칙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함을 간과한다.

[23015-0033]

##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은 누구나 이 친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빛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내 삶에 주어진 바이고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을: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고유한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이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 법칙이다.

- ① 갑은 올바른 행위를 습관화해야 유덕한 성품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공동체의 전통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원이 된다고 본다.
- ③ 을은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도덕적 의무보다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행위의 도덕성을 행위자의 덕이 아닌 선의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23015-0034]

## 10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lt;보기&gt;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철로 수리공인 피어니스 게이지는 철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폭발 사고로 뇌의 전두엽 부위가 손상되었다. 그는 회복한 후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이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음을 알아챘다. 책임감 있게 일을 했던 그는 거짓말을 하거나 걸핏하면 화를 냈고,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두개골 손상에 기반하여 그의 뇌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그 손상은 전전두피질의 내측과 안와 부위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또 게이지와 비슷하게 뇌의 전전두 부위가 손상된 다른 환자들을 관찰해 보면 이러한 환자들은 타인의 마음을 거의 이해하지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도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전전두피질의 정상 작동은 정상적인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보기 |

- ㄱ.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과학적 측정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ㄴ. 뇌를 촬영한 영상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 ㄷ.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육체와 분리된 정신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 ㄹ.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과 정상인의 뇌 기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II

## 생명과 윤리



### EBS 교재 연계 사례

#### 학습 요소

- 삶과 죽음에 대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입장
-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 생명 윤리의 특성
- 생명 윤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 사랑과 성의 관계
- 성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① 이 단원에서는 삶과 죽음과 관련된 동서양 사상가들의 입장과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뇌사 등의 윤리적 쟁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 실험 등과 같은 생명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쟁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의미와 성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가족의 의미와 바람직한 가족 윤리의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2번

###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성인(聖人)의 은혜가 만세에 베풀어져도 사람에게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다. 친함이 있으면 어진 자가 아니며, 명성을 추구하여 참된 자기를 잃으면 선비가 아니다.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 법(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 ① 갑: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 ② 갑: 사욕(私欲)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 ③ 을: 바른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하여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 ④ 을: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하늘이 부여한 순전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답 ①

03 삶과 죽음의 윤리

04 생명 윤리

05 사랑과 성 윤리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49쪽 01번

01 (가), (나)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성인(聖人)은 이로움과 혜택을 만대에 두루 베풀지만,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물에 통달하려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고, 편애하는 사람은 인자(仁者)가 아니고,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현자(賢者)가 아니다.

(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는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보기

- ㄱ. (가): 모든 생명을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존중해야 한다.
- ㄴ. (가):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 ㄷ. (나): 신의 피조물인 생명을 존엄하게 대우해야 한다.
- ㄹ. (나): 모든 생명은 연기에 따라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답 ④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 2번 문항과 EBS 수능특강 49쪽 01번 문항은 공통적으로 도가와 불교의 입장을 묻고 있는데, 문항 형식과 제시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두 문항은 모두 도가 사상의 입장을 성인(聖人)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묻고 있고, 불교의 입장도 석가모니의 연기설을 제시하면서 묻고 있다. 또한 수능 문항은 ④번 선지에서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여 연기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으며, 수능특강 문항도 <보기> ㄹ에서 '모든 생명은 연기에 따라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여 역시 연기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능특강 제시문과 선지는 수능 문항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교재를 공부할 때 각 문항의 제시문과 정답 선지뿐만 아니라 오답 선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 모체

태아를 임신한 어머니의 몸을 뜻함

### ☉ 장자

노자를 계승한 도가의 대표 사상가로, 모든 차별이나 시비 분별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 것을 강조함

### 개념 체크

- 1 유교에서는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 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긴다.
- 2 불교에서는 죽음이( )의 과정으로 현세의 업보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본다.
- 3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을( )이/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으로 본다.

### 정답

- 1 애도
- 2 윤회
- 3 기

### ☉ 출생 · 죽음의 의미와 삶의 가치

#### 1. 출생의 생물학적 · 윤리적 의미

- (1) 생물학적 의미: 수정된 생식 세포가 배아, 태아의 과정을 거쳐 모체에서 독립하는 것
- (2) 윤리적 의미
  - ① 유교: 도덕적 주체로 사는 삶의 출발점 → 삶은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
  - ② 자연법 윤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려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는 과정
  - ③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 사는 삶의 시작: 다양한 인간관계의 시작

#### 2. 죽음의 윤리적 의미

- (1) 죽음의 특성: 평등성, 불가피성, 일회성, 비가역성
- (2) 죽음의 윤리적 의미: 삶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됨
- (3) 죽음에 대한 동양 사상의 입장

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애도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김</li> <li>• 공자: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 죽음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에 더 관심을 가짐</li> </ul>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음은 생(生), 노(老), 병(病)과 더불어 고통임</li> <li>• 석가모니: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 죽음은 윤회의 과정으로 현세의 업보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봄</li> </ul>
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과 죽음은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li> <li>• 장자: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변화하여 기(氣)가 생기고, 기가 변화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변화하여 죽음이 된다." → 삶과 죽음을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으로 보며 죽음에 초연할 것을 강조함</li> </ul>

### 기초 플러스 도가와 불교의 죽음관 비교

[2018학년도 수능]

갑: 지인(至人)은 무위(無爲)하다. 도(道)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 근본에서 보자면 삶이란 기(氣)가 모인 것이다.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를 일컬어 인연법(因緣法)이라고 한다. 삶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갑은 장자, 을은 석가모니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불교에서는 연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자료 플러스 죽음에 대한 장자의 관점

사람이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정해 준 때를 마음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 들 수 없게 된다. - "장자" -

장자는 죽음을 자연의 순환 과정 중 하나로 보았으며, 그러한 자연의 본성에 순응하고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4) 죽음에 대한 서양 사상가들의 입장

플라톤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야 하며 오직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죽었을 때라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육체를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처럼 생각하였고,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영원불멸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봄
에피쿠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li> <li>•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봄</li> </ul>
하이데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할 수 있음</li> <li>•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봄</li> </ul>

#### 자료 플러스 죽음에 대한 서양 사상가들의 관점

- 철인(哲人)은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하데스(사후 세계)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그들의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걸세. 그렇다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서 어떻게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 플라톤, “파이돈” —
- 가장 두려운 악이라고 여겨지는 죽음은 실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에피쿠로스, “쾌락” —

플라톤과 에피쿠로스는 모두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④ 출생 ·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 1.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

- (1) 인공 임신 중절의 의미: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에서 분리하여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로, 낙태라고도 함
- (2)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019년 헌법 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림.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폐지됨

#### 자료 플러스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싱어의 입장

낙태 반대론자들의 오류는 태아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種)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생명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호모 사피엔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과학적 사실은 동일한 생명권을 부여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또한 자의식이나 이성을 근거로 태아를 동물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태아의 지적 능력은 소나 돼지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병원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가 종종 벌어지는 것과 달리 도살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장면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자의식을 갖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왜 자의식을 갖춘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또 아직 자의식을 갖추지 못한 존재의 삶을 마감하도록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 싱어, “더 나은 세상” —

인공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가 인격체로서 존엄한 생명이며, 태아가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태아가 임신한 여성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싱어는 이러한 인공 임신 중절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였다.

#### ❖ 플라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인 데 반해, 현실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불완전한 세계라고 봄

#### ❖ 현존재(現存在)

단순한 물(物)과 달리 자신의 존재나 자신 이외의 것에 관심을 보이는 존재.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면 진정한 실존으로서 자신을 깨달음

#### 개념 체크

- 1 플라톤은 ( )을/를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처럼 생각하였다.
- 2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죽음을 (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3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에서 분리하여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 )(이)라고 한다.

#### 정답

- 1 육체
- 2 경험
- 3 인공 임신 중절(낙태)

(3)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

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우선 문제: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에 반대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에 찬성함

찬성 입장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권 논거: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임</li> <li>• 자율권 논거: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li> <li>• 정당방위 논거: 여성은 자기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낙태를 할 권리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엄성 논거: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 역시 인간임</li> <li>•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잘못이 없는 인간인 태아를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li> <li>• 잠재성 논거: 태아는 일정한 발생 과정을 거쳐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li> </ul>

②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는 시기의 문제: 수정 이후 어느 시점부터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짐

2. 자살의 윤리적 문제

(1)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훼손

- ① 유교: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不敢毀傷]은 효(孝)의 시작임
- ② 불교: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에 따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함
- ③ 자연법: 자살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인 자기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임

(2) 인격 훼손과 자아실현의 가능성 차단

- ① 자살은 인격을 훼손하고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없앴
- ② 칸트: 자살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인격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함
- ③ 쇼펜하우어: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함

(3)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 주고,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킴

개념 체크

- ① 유교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不敢毀傷]을 ( )의 시작으로 본다.
- ② 불교에서는 ( )의 계율에 따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칸트에 따르면 자살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인격을 ( )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정답

- ① 효
- ② 불살생(不殺生)
- ③ 수단

자료 플러스 자살에 대한 칸트의 입장

-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일의 의무는 그의 동물적 자연 본성에서의 자기 보존이다.
- 자기 살해는 범죄(살인)이다. 무릇 이 범죄는 배우자, 자녀, 동료 시민 또는 신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그 자신의 인격에서 윤리성의 주체를 파기한 것(자살)은, 윤리성이 목적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성 자체를 그 실존의 면에서 말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그의 임의의 목적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격에서 인간의 존엄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 칸트, "윤리형이상학" -

칸트는 인간에게 자기 보존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자기 보존의 의무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본성을 따라야 한다는 자연법적 관점과,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정언 명령의 관점 모두에서 발생하는 의무이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생명을 전체적으로 죽이는 자살과 부분적으로 해를 입히는 상해는 자기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 3.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1) 안락사의 의미: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혹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 (2) 안락사의 유형

- ①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른 구분: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 ②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약물의 직접 주사 등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경우
소극적 안락사	죽음의 진행 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 ③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찬성 입장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은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li> <li>• 인간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가짐</li> <li>•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줌</li> <li>• 연명 치료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 전체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함</li> <li>•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li> <li>• 삶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음</li> <li>• 의료인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므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됨</li> </ul>

#### 자료 플러스 안락사와 존엄사

안락사는 의사가 의도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약물 투여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이미 죽음의 위기에 달한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조치를 중단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한 의미이다.

- 차미영, “웰다잉을 위한 죽음의 이해” -

의료 기기와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출 플러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입장 비교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갑: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는 인위적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연명 치료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두는 것이 있다. 전자는 비도덕적인 살인이기에 금지되지만, 후자는 자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을: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불필요한 고통을 없앤다는 명분으로도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모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물의 주사 등과 같은 인위적 개입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을은 인간의 생명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므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모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그리스어에서 '좋은'을 의미하는 'eu'와 '죽음'을 의미하는 'thanatos'의 합성어로, 좋고 편안한 죽음을 의미함

#### ㉡ 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 ㉢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는 직접적인 동의를 할 수 없으나 가족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한 경우

#### 개념 체크

- 1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약물의 직접 주사 등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 ) 안락사라고 한다.
- 2 환자는 직접적인 동의를 할 수 없으나 가족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안락사를 하는 것을 ( ) 안락사라고 한다.
- 3 ( )은/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조치를 중단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이다.

#### 정답

- 1 적극적
- 2 비자발적
- 3 존엄사

### ❖ 죽음에 대한 판정 기준

- 심폐사: 심장과 폐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죽음에 이르는 것
- 뇌사: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심장보다 뇌의 기능이 먼저 멈추어 인공적인 기계 장치를 통해 일정 기간 심장 박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상태

### 개념 체크

- 1 ( )은/는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심장보다 뇌의 기능이 먼저 멈추어 인공적인 기계 장치를 통해 일정 기간 심장 박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2 전통적으로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정지된 ( )을/를 죽음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 3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뇌사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판정의 ( )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 정답

- 1 뇌사
- 2 심폐사
- 3 오류 가능성

## 4. 뇌사의 윤리적 쟁점

### (1) 뇌사의 의미

- ① 뇌간을 포함한 뇌의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
- ② 뇌사에 이른 환자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함
- ③ 뇌사에 이른 환자는 가까운 시일 안에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함

### (2) 뇌사의 윤리적 쟁점

- ①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음 →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함
- ②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는 데 대한 찬반 논거

찬성 입장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뇌는 인간의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뇌 기능이 정지하면 이미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것임</li> <li>•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줌</li> <li>• 뇌사자의 장기를 장기 이식에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뇌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연명 의료 기기를 이용하면 호흡과 심장 박동이 유지되므로 아직 죽음에 이른 것은 아님</li> <li>•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태도임</li> <li>•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함</li> </ul>

### 자료 플러스 뇌사에 관한 국내법의 입장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뇌사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뇌사 판정 의료 기관이 뇌사 판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뇌사 판정 위원회에서 전문 의사인 위원 두 명을 포함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뇌사 판정 신청은 뇌사 판정 대상자의 가족이 할 수 있으며, 뇌사 판정 대상자가 미리 장기 등의 기증에 동의하고 뇌사 판정 대상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도 할 수 있다.

- 권복규 외, "생명 윤리와 법" -

프랑스, 호주, 그리스 등은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뇌사자가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조건부 뇌사 인정 국가이다. 이에 대해 장기 기증을 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으나,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이나 장기 기증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개념 플러스 뇌 부위별 기능 정지에 따른 구분

- 대뇌사(식물인간): 생각하거나 의식적인 활동을 할 때 기능하는 대뇌의 기능이 정지한 상태로, 의식은 전혀 없지만 뇌간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호흡할 수 있음
  - 뇌간사: 생명 유지에 필요한 내장을 조절하는 뇌간만 기능이 정지한 상태로, 자극을 느끼거나 지적인 작업을 하는 능력은 남아 있지만, 차츰 다른 뇌의 기능도 정지됨
  - 전뇌사: 대뇌, 소뇌, 뇌간을 포함하는 모든 뇌가 기능을 정지한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전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하는 데 이르렀다고 판정된 신체', 즉 전뇌사의 경우임
- 차미영, "웰다잉을 위한 죽음의 이해" -

[23015-0035]

**0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가 태어나기 이전을 살펴보니 본래 삶이 없었던 것이었고,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형체조차도 없었던 것이었으며,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기운[氣]조차도 없었던 것이었네. 흐리멍덩한 사이에 섞여 있었으니 그것이 변화하여 기운이 있게 되고, 기운이 변화하여 형체가 있게 되고, 형체가 변화하여 삶이 있게 된 것이네. 지금은 그가 또 변화하여 죽어간 것일세.

보기

- ㄱ.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
- ㄴ. 삶은 기(氣)가 모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것이다.
- ㄷ. 생사(生死)는 자연적인 과정이므로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
- ㄹ. 삶과 죽음에 대한 분별을 통해 삶의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15-0036]

**0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인가에 대해 순수하게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육체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사물 그 자체를 영혼 자체에 의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육체에 매여 있는 한, 영혼은 본연의 능력을 순수하게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① 육체는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일종의 감옥이다.
- ② 죽음과 함께 영혼과 육체는 참된 세계로 들어간다.
- ③ 죽음은 인간이 피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다.
- ④ 죽음 이후 인간의 감각과 인식 능력은 모두 소멸된다.
- ⑤ 영혼은 육체와 결합할 때 순수한 인식에 이를 수 있다.

[23015-0037]

**0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가사성(可死性)도 즐겁게 된다. 이것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의 삶을 보태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지는 것이다.
- ② 인간의 현세의 삶은 사후 세계의 삶에 영향을 준다.
- ③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커다란 고통이다.
- ④ 죽음의 고통을 수용하면 불멸의 갈망을 실현할 수 있다.
- ⑤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23015-0038]

**04**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 즉 생로병사(生老病死) 중 하나이다. 그렇다고 죽음이 삶의 끝은 아니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죽음을 통해 다른 생으로 연결되므로 생사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삶이 이후의 삶을 결정하므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 ① 삶은 기쁨이지만 죽음은 고통스러운 자체이다.
- ② 인간은 자신의 업(業)과 무관하게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
- ③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수행을 통해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 ⑤ 죽음을 통해서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23015-0039]

**0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아직 이성을 지닌다면,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를 거스르는 것인지에 대해 물어야 한다. 즉 자기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중략) ... 현세적인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한다면, 그는 자신의 인격을 생이 끝날 때까지 견딜만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자신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 ① 자살은 인격에서 인간의 존엄을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 ②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제일의 의무는 자기 보존이다.
- ③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자살과 자기 상해는 자기 보존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 ⑤ 자살이 잘못된 주된 근거는 타인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23015-0040]

**0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태아는 인간과 같은 인격체가 아니므로 인간과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태아는 잠재적 인간에 불과하므로 임신부와 달리 태아가 지니는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다.  
 을: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 역시 생명이 있는 인간이므로 임신부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인공 임신 중절은 금지되어야 한다.

- ① 갑은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의 가치를 동일하다고 본다.
- ② 을은 인공 임신 중절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라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임신부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태아와 인간의 도덕적 지위가 다르다고 본다.

[23015-0041]

**07** 다음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뇌는 인간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신체 조절 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이다. 뇌가 질병이나 사고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의식을 잃고 깊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현재의 의료 기술로는 인간의 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은 없다. 따라서 뇌 기능의 완전한 정지는 인격적 인 삶을 불가능하게 하며, 삶의 의미 또한 상실하게 하므로 사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보기

- ㄱ. 인간의 인격은 심장이 아니라 뇌에 의존하는가?
- ㄴ. 심장이 작동하는 사람도 죽은 사람으로 판정할 수 있는가?
- ㄷ. 호흡이 유지되는 사람은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는가?
- ㄹ. 인간의 모든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때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5-0042]

**08**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 환자를 위하여 고통을 진정시키는 진정제 사용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그 고통과 비참함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일지라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불치병의 환자라도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없다
- ② 인위적인 생명 단축은 하나의 살인과 마찬가지로
- ③ 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 생명을 단축할 수 없다
- ④ 불치병의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⑤ 불치병의 환자가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3015-0043]

## 1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무의미한 생명 연명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는 치료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뇌사에서 심장 정지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의학적인 치료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였음에도 아무런 성과나 혜택도 없이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경우, 치료 중단의 시점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 ① 뇌사 인정은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인가?
- ② 심폐사뿐만 아니라 뇌사도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 ③ 심폐 기능의 불가역적인 상실만을 죽음으로 판정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의 죽음 문제를 유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가?
- ⑤ 뇌사자에게 최선의 의료 행위는 연명 치료를 지속하는 것인가?

[23015-0044]

## 2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인공 임신 중절은 여성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힌다. 하지만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겪어야 하는 신체적, 심리적 부담에 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의 부담은 매우 크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 인간인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선택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을: 인공 임신 중절을 하는 주된 이유는 살아 있는 사람, 즉 부모의 삶에 어떤 불편함을 끼치기 때문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또는 자신의 현재 삶에 방해가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살아 있는 사람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므로 태아의 생명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 ① 갑은 태아와 성인의 생명권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 ② 을은 태아가 생명권 측면에서 인격을 갖춘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 존재라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임신부는 인공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태아는 성숙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여성의 선택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23015-0045]

**3**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의사의 중요한 임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복의 희망이 없는 병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릴 때,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이고 자율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환자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고 막대한 의료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다.

을: 의사의 가장 기본적이며 고귀한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이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도와서 죽게 한다면 그 결과로 의사 자신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무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로 변화될 것이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게 되면 수많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 ① 갑: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갑: 회생 불가능한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④ 을: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⑤ 갑과 을: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다.

[23015-0046]

**4** 갑, 을 사상가들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선으로 향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는 본성에서 나온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원리에 따라야 한다.

을: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문제 상황>

사업에 실패한 A는 경제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갑: 자신과 사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행위 하세요.
- ② 갑: 인간이 갖는 자기 보존의 자연적 성향을 고려하여 행위 하세요.
- ③ 을: 자신의 행복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위 하세요.
- ④ 을: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을 예상해서 행위 하세요.
- ⑤ 갑과 을: 유덕한 성품을 갖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식대로 행위 하세요.

[23015-0047]

##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존재는 죽음과 함께 더 이상 '세계-내-존재'가 아니게 된다.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세계 안에서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존재가 죽음과 함께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사물이나 동물의 시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과 함께 현존재는 '고인(故人)'이 되며 그러한 존재로서 장례, 매장 등의 예식을 통해서 추모해야 할 존재가 된다. 고인의 유족들은 그를 경건하게 추모하면서 그와 함께 존재한다. 이와 같이 현존재는 죽어서도 다른 현존재와 공동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 ①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인가?
- ② 현존재적인 끝남은 생명체의 종말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 ③ 생명의 유한성에서 벗어나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
- ④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간이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가?
- 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만 참된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가?

[23015-0048]

## 6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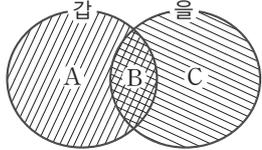
갑: 죽음은 삶의 시작(始)이고, 삶은 죽음의 무리(徒)이다. 사람의 삶이란 기(氣)가 모인 것이다. 기가 모여 태어나게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 만약 죽음과 삶을 같은 무리로 본다면 우리에게 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성인(聖人)은 살아 있을 때는 자연스레 행동하고 죽으면 만물의 변화를 따르므로 자연의 덕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을: 일체의 생명체는 모두 죽어 수명은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업(業)에 따라 각각 선악의 과보를 받는다. 복을 닦으면 천상으로 올라가고 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도를 닦으면 태어남과 죽음을 끊고 열반에 든다. …(중략)…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 ①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죽음에 초연해야 하는가?
- ② 죽음은 고통이 없는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과정인가?
- ③ 삶과 죽음의 순환을 끊는 것이 인간의 이상적 경지인가?
- ④ 내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생의 도덕적 수행이 필요한가?
- 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인가?

[23015-0049]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자는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원한다.</p> <p>을: 영혼 자체만이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다.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서 육신과 관계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영혼이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갖지 않고 오직 참된 진리만을 갈망할 때 사유(思惟)는 최상의 것이 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

ㄱ. A: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은 모두 소멸한다.  
 ㄴ. A: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므로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  
 ㄷ. B: 현명한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ㄹ. C: 영혼은 죽음을 통해 영원불멸하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3015-0050]

8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p>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p> 	2	<p>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p> 
3	<p>그렇다면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p> 	4	<p>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p> 

- ① 현세에서의 행위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함을 알아야 한다.  
 ② 죽음은 회피할 수 없으므로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  
 ③ 기가 모인 삶과 기가 흩어진 죽음은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이다.  
 ④ 죽음보다 현실에서 도덕적 삶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⑤ 현세에서 명분을 바로잡는 일보다 내세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중시해야 한다.

### ☉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 1.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윤리적 관점

##### (1) 생명 과학

- ① 의미: 생명 현상의 본질과 그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
- ② 성과와 한계: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 (2) 생명 윤리와 생명의 존엄성

- ① 의미: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대한 윤리적 고려 →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명 과학 기술의 윤리적 정당성과 한계를 성찰함
- ② 필요성: 생명 과학의 한계 극복 → 생명 과학은 주로 생명의 과학적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지 못함
- ③ 동서양의 생명관: 생명 윤리의 이론적 바탕이 됨

동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가: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함</li> <li>•불교: 모든 생명은 연기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인간은 함부로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함</li> </ul>
서양	그리스도교: 신의 피조물인 생명은 존엄하면서도 일정한 위계를 가짐 → 아퀴나스와 슈바이처의 생명 사상으로 계승됨

##### (3) 생명 과학과 생명 윤리의 올바른 관계

- ① 공통적으로 생명의 존엄성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생명의 존엄성을 근거로 다양한 생명 윤리 문제를 성찰해야 함
- ② 상호 보완적 관계: 생명 윤리는 생명 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생명 과학은 생명 윤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최소화해야 함

#### 2. 생명 복제와 관련된 생명 윤리 문제

- (1) 생명 복제의 의미: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기술
- (2) 생명 복제의 구분: 동물 복제와 인간 복제로 나뉨
- (3) 동물 복제에 대한 입장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 복제를 통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유지할 수 있음</li> <li>•희귀 동물을 보존하고, 멸종 동물을 복원할 수 있음</li> </ul>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 복제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종의 다양성을 해침</li> <li>•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유용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li> </ul>

##### (4) 인간 복제에 대한 입장

- ① 구분: 인간 복제는 질병 치료를 주목적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배아 복제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개체 복제로 나뉨
- ② 배아 복제의 윤리적 쟁점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 과정에서 이용되는 배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님</li> <li>•생식 초기에 관한 연구, 인체 조직과 장기 복구, 질병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음</li> </ul>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 배아는 인간의 지위를 지닌 생명이므로 보호되어야 함</li> <li>•배아 복제를 위한 난자 확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훼손할 수 있음</li> </ul>

##### ☉ 생명 의료 윤리 원칙

생명 의료 윤리학자인 비침과 칠드레스는 생명 의료 윤리의 원칙으로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환자 또는 피험자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악행 금지의 원칙', 환자 또는 피험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선행의 원칙', 의료 자원과 연구의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함

##### ☉ 줄기세포

아직 미분화된 상태의 세포로,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

##### ☉ 배아 복제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을 활용하여 세포 복제 후 배아 단계까지만 발생을 진행시키는 것

### 개념 체크

- 1 생명 현상의 본질을 연구하는 생명 과학의 윤리적 정당성과 그 한계를 다루기 위해 ( )이/가 등장하였다.
- 2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 )을/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살생을 금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 3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기술을 ( )이라고 한다.

##### 정답

- 1 생명 윤리
- 2 연기
- 3 생명 복제

❖ 복제 양 '돌리'

세계 최초 포유동물 복제로 태어난 양으로, 영국의 이언 윌머트 박사가 다 자란 양의 체세포를 복제해서 탄생시킴

❖ 배아

수정 후 약 2주에서 8주 사이의 개체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시작한 후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기 전까지의 발생 초기 단계

개념 체크

- 1 인간 복제는 질병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여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배아 복제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 )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배아를 인간 종(種)의 한 구성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는 논거는 ( ) 논거이다.
- 3 ( )은/는 수정란이나 발생 초기의 배아에 유전 물질을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정답

- 1 개체 복제
- 2 종(種)의 구성원
- 3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

③ 개체 복제의 윤리적 쟁점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임 부부가 유전적 연관이 있는 자녀를 가질 수 있음</li> <li>• 복제 인간도 서로 다른 선택과 경험, 환경에서 독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유성 문제는 우려 사항이 아님</li> </ul>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존엄성 훼손: 복제를 위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복제 인간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음</li> <li>•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에 위배: 한 사람의 체세포로부터 인간이 복제된다면 인간의 상호 의존성이 파괴될 수 있음</li> <li>• 인간의 고유성 위협: 복제된 인간은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 형질이 같으므로 자신의 고유성을 갖기 어려움</li> <li>• 가족 관계에 혼란 초래: 체세포와 난자를 제공한 사람과 복제 인간이 부모 자녀 관계인지 형제자매 관계인지 불분명함</li> </ul>

개념 플러스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는 논거

- 종(種)의 구성원 논거: 배아를 인간 종의 한 구성원으로 볼 수 있음
- 동일성 논거: 배아와 배아가 성장해서 존재할 생명체는 같다고 볼 수 있음
- 잠재성 논거: 배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
- 연속성 논거: 인간의 발달 과정은 끊임없이 연속적임

3.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생명 윤리 문제

(1) **유전자 치료의 의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체세포 또는 생식 세포 안에 정상 유전자를 넣어 유전자의 기능을 바로잡거나 이상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치료법

(2) **구분:** 치료 대상에 따라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로 나뉨

(3) 체세포 유전자 치료

- ① 의미: 유전자 운반체인 바이러스를 이용해 유전 물질을 환자의 체세포에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 ② 특징: 치료를 위해 주입된 유전자는 주로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므로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단, 생명 의료 윤리 원칙에 의한 과학적·의학적·윤리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4)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

- ① 의미: 수정란이나 발생 초기의 배아에 유전 물질을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 ② 특징: 생식 세포에 영향을 주어 변형된 유전적 정보가 후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윤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③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찬반 논거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의 유전을 막아 다음 세대의 병을 예방할 수 있음</li> <li>• 유전병을 퇴치하는 등 의학적으로 유용함</li> <li>• 유전 질환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임</li> <li>•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통해 경제적 효용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음</li> </ul>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함</li> <li>• 의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임상적으로 위험함</li> <li>•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음</li> <li>• 고가의 치료비로 그 혜택이 일부 사람에게 치중되어 분배 정의에 어긋날 수 있음</li> </ul>

## 📌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 1. 동물 실험의 윤리적 쟁점

- (1) **동물 실험의 의미:** 의학 및 생명 과학 연구 과정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실험
- (2) **동물 실험의 실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화장품과 세제 등 공산품의 안전성 검사, 실험 방법 교육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종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음
- (3) **찬반 논거**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과 동물의 지위는 차이가 있고, 인간은 동물을 이용할 수 있음</li> <li>•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여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음</li> <li>• 동물 실험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중요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li> <li>• 확실하고 믿을 만한 동물 실험의 대안이 없음</li> </ul>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과 동물은 존재 지위에 별 차이가 없음</li> <li>•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바로 적용하기 어려움</li> <li>• 동물 실험 이외의 다른 가능한 연구의 기회를 막아 의학적 발전이 늦춰짐</li> <li>• 인간 세포와 조직을 이용한 실험, 컴퓨터 모의실험 등 대안적 방법이 존재함</li> </ul>

#### 자료 플러스 동물 실험에 비판적인 관점의 사상적 근거

-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가 되는 것이다. - 싱어, "동물 해방" -
- 불교의 역지사지는 모든 생명체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고통에 대하여 어떤 종보다도 섬세하게 반응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거의 같은 정도로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식물 또한 역지사지의 대상일 수 있다. 그들 또한 성장 욕구를 갖는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안옥선, "불교의 선악론" -

오랜 기간 동안 동물 실험은 인체 실험을 대신해 시행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시행되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알고 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동물 권리 논쟁

- (1) **동물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음식을 위한 동물 사육, 의복을 위한 동물 사육, 유희를 위한 동물 활용, 애완동물 학대와 유기, 야생 동물의 생존권 위협 등
- (2) **논쟁의 핵심:**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
- (3)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아리스토텔레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함
아퀴나스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음
데카르트	동물은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함 →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음
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은 자의식을 가지지 않고,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임</li> <li>•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남</li> </ul>
코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은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나 자율성 등이 없으므로 도덕적 권리가 없음</li> <li>• 의학 발전과 인간의 수많은 업적은 동물 실험으로 얻을 수 있었음</li> </ul>

#### 개념 체크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 )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데카르트는 동물이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③ 코헨은 동물이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나 자율성 등이 없으므로 도덕적 ( )이/가 없다고 보았다.

#### 정답

- ① 인간
- ② 기계
- ③ 권리

**자료 플러스**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

자연 중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해 파괴를 일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덕성을 매우 촉진하고, 적어도 그를 위해 곧 무엇인가(예컨대, 광물계의 아름다운 결정체들, 식물계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들) 유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도 사랑하도록 준비시키는 감성의 정조인,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절멸시키기 때문이다. 이성만으로는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인간 안에서도 둔화되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약화되어, 점차로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곧 이러한 동물들과 관련한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 칸트, "윤리형이상학" -

칸트는 인간이 무생물인 광물이나 생명이 있는 식물,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함부로 다루는 인간의 행위가 인간성을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

<b>벤담</b>	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b>싱어</b>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거하여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함
<b>레건</b>	한 살 이상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진 삶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님 → 동물을 단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함

※ **싱어**

“동물 해방”, “실천 윤리학” 등의 저서를 쓴 윤리학자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함

**자료 플러스** 레건의 동물 권리론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 레건, “동물의 권리” -

레건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일부 포유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moral patients)이지만 감정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희망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기출 플러스** 칸트와 싱어의 환경 윤리 입장 비교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갑: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을: 도덕적 기준은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갑은 칸트, 을은 싱어이다.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며, 동물 학대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개념 체크**

- 1 벤담은 동물도 ( )을/를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2 싱어는 ( )을/를 지닌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3 레건은 한 살 이상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 )이므로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정답**

- 1 고통
- 2 쾌고 감수 능력
- 3 삶의 주체

[23015-0051]

01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의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은 모든 의료 자원의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② 의료인은 환자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③ 의료인은 환자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의료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의료인은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게 활용하도록 유념해야 한다.
- ⑤ 의료인은 환자의 의사를 고려하면서도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온정적으로 간섭해야 한다.

[23015-0052]

02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아이로 태어나는 연속적인 과정 중에 있으므로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생식 과정의 특정 시점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점차 그 기준이 후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을: 배아는 인간 개체가 될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세포 덩어리이므로 인간으로 볼 수 없다. 배아는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불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복제 배아 파괴는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다.

- ① 갑은 배아가 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존재라고 본다.
- ② 을은 배아의 활용 여부를 효용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배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기 위한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배아가 인간 종(種)의 한 구성원이라고 본다.

[23015-0053]

03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최근 유전자를 세포 안에 넣어 새로운 형질을 발현하게 하여 이상(異常) 유전자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이상 유전자를 바꾸어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치료 중에서 체세포 치료는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만, 생식 세포 치료는 후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식 세포 치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난자의 세포질 유전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생식 세포 치료가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생식 세포 치료가 적극적 우생학을 유발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유전자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세대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생식 세포 치료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①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비도덕적인 의학적 방법이다.
- ②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 후세대의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
- ③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로 인간 유전자를 강화해야 한다.
- ④ 치료 목적의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되어야 한다.
- ⑤ 유전자 치료로 난치병을 치료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23015-0054]

0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명 현상의 본질과 특성을 연구하는 생명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하지만 생명 과학 기술을 잘못 이용할 경우,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명 과학 기술의 연구와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생명 과학 기술이 지니는 정당성과 한계를 성찰하는 생명 윤리가 필요하다. 생명 윤리는 생명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생명 과학 기술은 생명 윤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생명 윤리는

㉠

- ① 과학적 사실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배제해야 한다.
- ②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③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명 현상을 연구해야 한다.
- ④ 생명의 과학적 현상을 주된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⑤ 생명의 본래적 가치보다 도구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23015-0055]

**0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길 거부하는 자세를 옹호할 수 있는 도덕적인 논증은 없다. 한 존재의 본성이 어떠하든,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

- ① 인간과 동물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 ② 무생물적 자연환경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③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④ 도덕적 행위의 주체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⑤ 유정성을 지닌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23015-0056]

**0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인간 안에서 둔화되고, 그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약화되어 점차로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 ① 동식물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니고 있다.
- ②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 ③ 인간에게는 동물을 보호해야 할 직접적 의무가 있다.
- ④ 비이성적 존재도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이다.
- ⑤ 무생물적 존재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에 반한다.

[23015-0057]

**07**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건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동물의 신체는 신의 손으로 만든 하나의 기계이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발명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잘 정돈되어 있는 경탄할 만한 운동을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계이다.

<문제 상황>

제약 회사 연구원인 A는 신약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많은 수의 동물이 희생된다는 것을 알고 실험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보기

- ㄱ.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임을 명심하세요.
- ㄴ.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와 같음을 명심하세요.
- ㄷ. 동물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보다 열등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ㄹ. 실험 대상인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5-0058]

**0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과학의 발전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단지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 ① 의무론의 관점에서 동물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
- ② 사유 능력을 지닌 동물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 ③ 공리의 원리만으로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 ④ 인간과 동물이 항상 동일한 이익을 갖는 것은 아니다.
- ⑤ 동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23015-0061]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완전히 자란 말이나 개는 갓 태어난 유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잘 통하고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문제는 그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이다.

을: 산업 사회에서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면, 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인간의 이익과 먹히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가 정말 균형을 이루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를 때,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희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 ① 갑: 도덕적 행위 능력은 도덕적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다.
- ② 갑: 동물이 인간에게 유용성을 증진할수록 동물의 본래적 가치도 증진된다.
- ③ 을: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해야 한다.
- ④ 을: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닌 존재는 모두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 ⑤ 갑과 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실험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23015-0062]

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동물은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동물이 내는 소리는 태엽을 감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짹짹거리는 소리와 같다.</p> <p>을: 삶의 주체인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스포츠나 돈을 위해 임의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관행은 잘못이다.</p> <p>병: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p> <p>B: 을만의 입장</p> <p>C: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p> <p>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div>

보기

ㄱ. A: 동물은 기계와 같은 존재이므로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다.

ㄴ. B: 인간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이다.

ㄷ. C: 동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 나갈 능력이 없는 존재이다.

ㄹ. D: 동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3015-0063]

## 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이후 불치병으로 여겼던 유전병 치료에 관한 전망이 밝아지면서 유전자 치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을: 그렇습니다. 유전자 치료를 통해 과거에 불치병으로 여겼던 질병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식 세포 치료를 통해 후세대의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불치병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갑: 유전자 치료는 불치병을 퇴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세포 치료와 달리 생식 세포 치료는 후세대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세대도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에 동의할 것입니다.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도 마땅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 ①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 ②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 ③ 최근에는 과거보다 유전자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
- ④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현세대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⑤ 체세포 유전자 치료가 아닌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만을 허용해야 하는가?

[23015-0064]

##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나)의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인간과 다른 생물종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간과 다른 생물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p> <p>을: 인간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는 평등한 이익 고려의 범주에 포함된다. 인간의 이익과 비교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p>
(나)	<p>○○ 회사 농약 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는 A 연구원은 새로 개발한 농약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p>

- ① 갑: 동물 실험은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을 고려하세요.
- ② 갑: 인간과 다른 종을 차별하는 종 차별주의는 정당성이 없음을 고려하세요.
- ③ 을: 인간이 아닌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 ④ 을: 동물은 인간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세요.
- ⑤ 갑과 을: 인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동물 실험은 허용될 수 없음을 고려하세요.

[23015-0065]

7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 복제는 동일한 게놈(genome)의 인간들을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성, 즉 개성의 권리를 불가피하게 침해하게 된다.  
 을: 인간 복제는 핵 이식 기술을 통해 불임 부부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불임 부부는 무성 생식 방법을 통해 자신과 유전 형질이 같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 ① 갑은 인간 복제가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② 을은 인간 복제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미완성의 기술이라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복제 인간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인간 복제가 복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불임 부부에게만 인간 복제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23015-0066]

8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어떤 것도 불완전하거나 쓸데없이 만들지 않는다. 길들인 동물은 식량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를 위해서도 존재한다.</p> <p>을: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따라서 동물을 죽이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부정의한 것이 아니다.</p> <p>병: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들은 모두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은 권리는 자의식이 있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삶의 주체라면 어떤 존재라도 갖추고 있다.</p>
(나)	<p>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범례&gt;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vertical-align: middle;"></span> : 출발 조건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vertical-align: middle;"></span> : 판단 내용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middle;"></span> : 판단 방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2px; vertical-align: middle;"></span> : 사상가의 입장</p>

보기

ㄱ. A: 동물을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하는가?  
 ㄴ. B: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지닌 존재인가?  
 ㄷ. C: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ㄹ. D: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④ 사랑과 성의 관계

#### 1. 사랑의 의미와 가치

- (1) 사랑의 의미: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 (2) 사랑의 가치
  - ① 인간이 지향하는 정서의 최고 단계로서 인간을 도덕적 생활로 안내함
  - ② 인간 상호 간에 인격적 교감을 이루게 함 → 인간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바탕이 됨
- (3) 사랑의 구성 요소(프롬)
  - ① 보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
  - ② 책임: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
  - ③ 존경: 사랑은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 ④ 이해(지식): 사랑은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알고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것

#### 자료 플러스 프롬의 사랑의 기술

서로 전혀 모르고 지냈던 두 사람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유쾌하고 흥미 있는 경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고립되어 사랑 없이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멋지고 기적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특히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되고 이와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하다.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그들의 친밀감으로 발생했던 사랑의 기적적인 특성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마침내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실망감, 그리고 권태감으로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 프롬, "사랑의 기술" -

프롬은 사랑이 서로를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윤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된 사랑은 실패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삶이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보았다.

#### 2. 성의 의미와 가치

##### (1) 성의 의미

생물학적 성(sex)	생물학적 신체 구조와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성 개념
사회·문화적 성(gender)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성 개념
욕망으로서의 성(sexuality)	성적 관심이나 성적 활동 등 성적 욕망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 개념

##### (2) 성의 가치

생식적 가치	종족 보존과 관련된 가치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됨
쾌락적 가치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가치를 지님
인격적 가치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실현하게 해 주는 가치를 지님

#### ※ 프롬

정신 분석학자이자 사회 심리학자.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인본주의적 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주장함

#### 개념 체크

- ① 프롬은 사랑의 구성 요소로 보호, 책임, 존경, ( ) 을/를 제시하였다.
- ② 프롬은 사랑을 적극적인 과정이자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하여 개발되는 ( )이라고 보았다.

#### 정답

- ① 이해(지식)
- ② 기술

### 3.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

<b>보수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함</li> <li>• 성은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도덕적이라고 주장함 →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다고 봄</li> </ul>
<b>중도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함</li> <li>• 사랑을 동반한 성적 자유를 인정하고 사랑을 통해 성적 자유와 성에 대한 책임을 절충함</li> </ul>
<b>자유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함</li> <li>•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인들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성적 자유를 허용함</li> </ul>

#### 기출 플러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입장 비교

[2022학년도 수능]

- (가)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므로 개인은 감각적인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성적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자발적 동의와 자율성이 존중되기만 하면 정당화된다.
- (나)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상호 인격 존중의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 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성행위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성과 사랑의 관계와 관련하여 (가)는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가 있다면 도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입장이고, (나)는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주의 입장이다. 한편 중도주의는 성과 결혼이 별개의 것으로서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4.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

#### (1) 성차별

- ① 의미: 남녀 간의 차이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는 차별
- ② 원인: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사회적·문화적으로 규정된 후 이를 따르게 할 때 발생함
- ③ 문제점: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자아실현을 방해하고, 인간으로서 평등성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남녀 각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함
- ④ 극복 방법: 양성평등의 관점을 갖고,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

#### (2) 여성주의와 배려 윤리

- ① 배려 윤리의 등장 배경: 기존의 남성 중심적이고 정의 중심적인 윤리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함
- ② 길리건의 윤리 사상: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이 동일하지 않으며, 남성은 권리와 의무, 정의의 원리를 중시하지만 여성은 인간관계, 특히 배려를 중시함
- ③ 나딩스의 윤리 사상
  -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덕목을 주입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인간관계를 중시함
  - 여성의 도덕적 특징인 타인에 대한 배려나 보살핌, 유대감이나 의존, 책임 등을 중시함

구분	정의 윤리	배려 윤리
성격	남성적 윤리	여성적 윤리
강조점	정의, 이성, 공정성, 보편성	배려, 공감, 유대감, 책임
이상적 관계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는 배타적·대립적인 것이 아니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	

#### ※ 양성평등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법률적·사회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함

#### 개념 체크

- ① ( ) 입장에서는 성이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도덕적이라고 본다.
- ② ( )은/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인들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성적 자유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 )은/는 남녀 간의 차이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는 차별로, 인간으로서 평등성과 존엄성을 훼손한다.

#### 정답

- ① 보수주의
- ② 자유주의
- ③ 성차별

**자료 플러스** 길리건의 배려 윤리

남성과 여성은 매우 다르게 독립과 친밀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청년기에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서 서로 다른 삶의 진리를 강조하게 된다. 남성은 자아를 규정짓고 그 힘을 부여하는 독립을 강조하고, 여성은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친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중략)… 도덕은 대립되는 요구를 저울질하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함의 문제로 규정된다. -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

길리건은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의 특징을 토대로 배려 윤리를 제시하였다. 길리건은 도덕 판단에서 남성과 여성이 중시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책임과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사랑, 공감, 동정심, 상호 의존성, 유대 등 여성의 도덕적 특성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를 주장하였다.

**(3) 성의 자기 결정권**

<b>의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li> <li>• 외부의 부당한 압력,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li> </ul>
<b>올바르지 못한 자기 결정권 행사로 인한 윤리적 문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이 갖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li> <li>• 생명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li> </ul>
<b>해결 방안</b>	서로의 인격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함

**(4) 성 상품화**

- ① 의미: 성 자체를 상품처럼 사고팔거나, 다른 상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
- ② 사례: 성매매,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성을 도구화하는 것 등
- ③ 찬반 입장

찬성 입장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함</li> <li>•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부합할 수 있음</li> <li>•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허용할 수 있음</li> <li>•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른 노동과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상품화는 인간의 성이 지닌 인격적 가치의 의미를 훼손하므로 올바른 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li> <li>• 인간의 성이 지닌 인격적 가치의 의미를 훼손함</li> <li>• 칸트 윤리의 관점에서 성 상품화는 인간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임</li> <li>•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함</li> </ul>

**기출 플러스** 성 상품화와 성의 자기 결정권의 관계에 대한 입장 비교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자신의 성(性)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권리 행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  
 (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는 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가)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른 성 상품화가 허용 가능하다고 보는 데 반해, (나)는 성 상품화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아 성 상품화에 반대하고 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의 범위**

- 자신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
-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

**개념 체크**

- ① 길리건은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이 동일하지 않으며, 여성은 인간관계, 특히 ( )을/를 중시한다고 보았다.
- ② ( )은/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성 자체를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다른 상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 )이라고 한다.

**정답**

- ① 배려
- ② 성의 자기 결정권
- ③ 성 상품화

☉ 음양론

우주나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을 음양의 변화로 설명하는 이론. 음과 양은 서로 다르지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봄

☉ 상경여빈

부부는 친밀한 사이지만 서로 손님을 대하듯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임. 부부유별, 부부상경과 비슷한 뜻을 지님

☉ 사회화

개인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행동 양식을 상호 작용을 통해 획득하는 과정

☉ 형우제공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뜻

개념 체크

- 음양론에 따르면 부부는 자연의 음과 양의 관계처럼 ( )인 관계이다.
- ( )은/는 부부는 친밀한 사이지만 서로 손님을 대하듯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 )은/는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뜻이다.

정답

- 상호 보완적
- 상경여빈
- 형우제공

☉ 결혼과 가족의 윤리

1. 결혼의 윤리적 의미와 부부간의 윤리

(1) **결혼의 의미:** 사랑의 결실이며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인 가정을 구성하는 의식,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랑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자 의지의 표현, 사랑을 바탕으로 삶 전체를 공동으로 영위하겠다는 약속(백년가약)

(2) **부부 윤리**

<b>전통 사회의 부부 윤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녀 간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서로 존중할 것을 강조함</li> <li>음양론에 근거한 부부 윤리: 자연의 음(陰)과 양(陽)의 관계처럼 부부는 상호 보완적임</li> <li>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상경(夫婦相敬), 상경여빈(相敬如賓), 정조의 윤리를 강조함</li> </ul>
<b>오늘날의 부부 윤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자의 주체성과 자유를 존중함</li> <li>가정에서 부부의 역할을 고정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지양함 → 양성평등을 강조함</li> </ul>

(3) **부부간에 발생하는 문제:** 고정된 성 역할에 따른 가사 분담의 문제, 경제적 문제, 부모 부양이나 자녀 양육 등에 따른 갈등 문제

(4) **부부간에 요구되는 윤리:** 서로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존중·협력하겠다는 신의를 지켜야 함

자료 플러스 동양 사상에 나타난 부부간의 윤리

무릇 부부는 인륜(人倫)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므로 아무리 친밀하다 하더라도 역시 올바르게 행동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사이이다. 그래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의와 공경심을 잃고서 그저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는 서로 알보고 업신여겨 못하는 짓이 없는데, 이 모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는 데에서 생겨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집안을 올바르게 지켜 나가려면 마땅히 부부 사이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퇴계집 40권” -

이황은 부부가 지극히 친밀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부부 윤리로 상경여빈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2. 가족의 가치와 가족 윤리

(1) **가족의 의미:**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2) **가족의 가치:** 정서적 안정, 사회화, 건강한 사회의 토대

(3) **가족 해체 현상**

<b>의미</b>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나 가족 전체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
<b>원인</b>	가족이 서로 떨어져 지내거나 서로 접촉할 시간이 많지 않음 → 가족 공동체 내에서 정서적 상호 작용이나 가정의 사회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b>결과</b>	가족 간 유대감 약화로 인한 아동 학대 증가, 청소년들의 정서적 결핍, 독거노인 증가 등

(4) **바람직한 가족 윤리**

<b>전통 사회의 가족 윤리</b>	부자유친(父子有親), 부자자효(父慈子孝)의 윤리를 강조함
<b>부모 자녀 간의 윤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애와 효도를 실천해야 함</li> <li>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함</li> <li>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마음을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함</li> </ul>
<b>형제자매 간의 윤리</b>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형우제공(兄弟恭)을 실천해야 함 → 형제자매 간에 지켜야 할 규범을 익히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규범을 익히는 밑거름이 됨

[23015-0067]

01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각자의 통합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입니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다고 하는 행위는 활동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 ①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 ② 사랑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 ④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이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 ⑤ 사랑은 상대방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 수동적 활동이다.

[23015-0068]

02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어진[仁]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해 주고 자신이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해 준다. 따라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	㉠은/는 같은 어버이에게서 태어나 기운이 같으며[同氣],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이다[手足之義].

- ①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인간관계이다.
- ② 가정 내에서 수평적이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이다.
- ③ 상호 간에 정조를 지켜야 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 ④ 상호 간에 자애[慈]와 효의 실천이 중시되는 관계이다.
- ⑤ 장유유서의 도리를 실천해야 하는 천륜(天倫)의 관계이다.

[23015-0069]

0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성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특정한 성의 한 개체로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남성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남녀 양성의 관계는 두 개의 전극의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양극인 동시에 전체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어에서 남성을 뜻하는 'homme'란 말은 동시에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반면 여성은 음극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개념 규정은 제한을 의미한다. …(중략)…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만들어진다.

- ① 여성은 남성과 달리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한 존재이다.
- ②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율적 선택의 능력이 있다.
- ③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야 한다.
- ④ 여성성과 남성성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다.
- ⑤ 여성의 성 정체성은 학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23015-0070]

0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성 상품화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부합할 수 있다. 상품 판매를 위해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

을: 성 상품화는 인격적 가치를 지니는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여 성의 가치를 훼손한다. 또한 사람의 평가 기준을 외모에만 둬으로써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에 성 상품화를 허용할 수 없다.

- ① 갑은 개인의 성의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개인의 성적 매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성 상품화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인간을 도구화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인간을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성 상품화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23015-0071]

05 다음 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외부의 부당한 압력,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성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자신의 성적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가진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 상황>

A는 자신이 좋아하는 B가 만남을 거부하자 B를 스토킹하면서 수시로 괴롭히고 있다.

- ①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성의 자기 결정권을 항상 존중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② 남성과 여성의 성의 자기 결정권이 지닌 가치가 서로 다를음을 명심하세요.
- ③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④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됨을 명심하세요.
- ⑤ 상대방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판단이 성의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중요함을 명심하세요.

[23015-0072]

06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性)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이라는 사회적 승인을 거쳐서 출산과 관련하여 행하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성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종족 보존과 무관한 성적 관계가 허용될 수 있다
- ② 부부만이 성적 관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자발적 동의만으로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
- ⑤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23015-0073]

07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은 그 자체로 쾌락을 가져다주고, 쾌락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을 사랑이나 결혼과 결부하여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숙한 사람들이 상호 동의하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사랑의 교감 없이도 성적 호감과 관심만으로 성적 행위가 가능하다.

- ①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적 관계는 항상 정당한 것인가?
- ② 혼전(婚前)의 성이나 혼외(婚外)의 성은 비도덕적인가?
- ③ 성적 관계에 제약이나 규제를 하는 것은 항상 잘못된가?
- ④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성적 관계는 정당화가 불가능한가?
- ⑤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자율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가?

[23015-0074]

0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성과 여성은 도덕적 딜레마에 접근할 때, 남성은 권리 혹은 정의의 관점에서, 여성은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는 진리 또한 상반된다. 즉 남성은 독립의 중요성을, 여성은 친밀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상이한 관점은 두 개의 다른 도덕성에 반영되어 있는데, 독립은 권리 혹은 정의의 윤리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친밀은 배려의 윤리에 의해 지지된다. 권리 혹은 정의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며, 배려의 윤리는 공감과 배려의 전제 조건인 이해심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남성적 기준으로 측정하면서 다른 진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 ① 남녀가 추구하는 도덕적 지향성은 동일하다.
- ② 남성과 여성은 같은 도덕적 발달 단계를 경험한다.
- ③ 감정이 배제된 도덕 판단일수록 높은 가치를 지닌다.
- ④ 여성은 남성보다 인간관계, 책임, 배려에 관심이 많다.
- ⑤ 여성의 도덕 판단은 보편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3015-0075]

1 다음 가상 대담의 갑 사상이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선생님께서서는 사랑을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요?</p>  <p>1</p>	<p>만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려 한다면 우리는 음악이나 그림, 의학과 같은 또 다른 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p>  <p>2</p>
<p>그렇다면 사랑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p>  <p>3</p>	<p>사랑은 보호, 책임, 존경과 지식을 포함합니다. 이런 요소가 없는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되기 어렵습니다.</p>  <p>4</p>

- ①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다.
- ② 사랑은 자신의 개성을 상대방과 교환하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빠지는 것이다.
- ④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 ⑤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이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이다.

[23015-0076]

2 다음을 주장한 사상이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의 절반에게 족쇄를 채우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려도 되는 것일까? 그렇게 해도 과연 우리는 잃는 것이 전혀 없을까? 설령 그들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얻을 기회를 봉쇄해 버리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책임 아래 각자가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도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런 불의는 당사자인 여성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능력을 발휘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는 셈이기 때문이다. ...**(중략)**... 아무리 보편적으로 널리 퍼진 관습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정치적으로 여성을 남성의 지배 아래 두는 제도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또 그런 방향으로 그릇된 생각을 심어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 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인가?
- ② 양성평등의 실현은 인류 전체의 유용성 증진에 기여하는가?
- ③ 남성은 여성보다 직업 선택에서 우선권을 보장받아야 하는가?
- ④ 교육의 기회를 남성과 여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근거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23015-0077]

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나)의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가 산출할 결과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의무에서, 즉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에서 결정된다. 인간과 모든 창조된 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필연성은 도덕적 강제로 나타난다.</p> <p>을: 어떤 사람이 하늘땅의 바름[正]을 타고, 여섯 가지 기(氣)의 변화를 부려, 무한한 경지에서 노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런 사람이 무엇에 더 기대겠는가? 그러므로 지인은 자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신인은 공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성인은 명예를 탐내지 않는다.</p>
(나)	<p>○○ 회사의 광고 모델인 A는 광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광고 촬영을 할 것 인가를 고민하고 있다.</p>

- ① 갑: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 ② 갑: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해서 광고를 촬영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③ 을: 개인의 자연적 본성에 따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④ 을: 미(美)를 실현하기 위해 본인의 추(醜)한 부분을 극복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⑤ 갑과 을: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23015-0078]

4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태극이 동(動)하면 양(陽)을 낳고, 동이 극에 이르면 정(靜)하고, 정하면 음(陰)을 낳는다. 정이 극에 이르면 다시 동한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춤에 있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이 두 표준으로 선다.</p>
(나)	<p>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 ㉠ ]이/가 있고, [ ㉠ ]이/가 있고 난 다음에 부자가 있으며, 부자가 있고 난 다음에 형제가 있다. 한 집안의 친족은 이 셋뿐이다.</p>

- ① 서로 존중하고 상호 보완적인 천륜(天倫)의 관계이다.
- ② 수직적 위계 구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뢰의 관계이다.
- ③ 각자가 항상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관계이다.
- ④ 상호 간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는 위계적 관계이다.
- ⑤ 삶의 동반자로서 상호 간에 보완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다.

[23015-0079]

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갑: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이다. 사랑을 동반한 성은 인간의 품격을 유지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한다.

을: 성적 쾌락 추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성은 결혼이나 사랑과 결부하지 않아도 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자발적 동의가 있으면 정당화될 수 있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성적 관계에서 사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 성적 관계에서 인격 존중은 필요하지만, 상호 간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을은 ㉢ 성적 관계에서 자발적 동의와 해약 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며, ㉣ 결혼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성적 관계가 생식적 가치를 반드시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① ㉠

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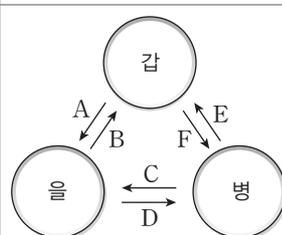
③ ㉢

④ ㉣

⑤ ㉤

[23015-0080]

6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성행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전제된 성행위만이 정당하다.</p> <p>을: 성은 본질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성행위는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해약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면 허용될 수 있다.</p> <p>병: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이다. 사랑을 동반한 성은 인간의 품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법 레〉</p> <p>→ : 비판의 방향</p> <p>A~F : 비판의 내용</p> <p>〈예 시〉</p> <p>갑 → A → 을</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 ① A: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는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E: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성적 관계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C, E: 성적 관계에서 상호 간의 인격적 교감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D, F: 성행위의 본질은 사회의 안정과 종족의 보존에 있음을 간과한다.



# III

## 사회와 윤리

### 학습 요소

- 동서양의 직업관
- 다양한 직업 윤리
- 청렴의 중요성
-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 분배적 정의의 기준
- 룰스, 노직, 왈처의 정의에 대한 입장
- 형벌에 대한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의 관점
-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
- 국가의 역할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
- 시민 불복종

❶ 이 단원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직업이 지니는 의의와 직업에 대한 동서양의 다양한 직업관을 이해하고, 직업 생활에서 청렴한 자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룰스와 노직이 제시한 절차적 정의의 의미와 각 사상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국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지니는 권리와 의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 EBS 교재 연계 사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항 11번

11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은 사회적 동의로 절대 권력을 수립한다.  
 을: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입법부가 자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

#### 보기

- ㄱ.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에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인가?
- ㄴ.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되는가?
- ㄷ.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계약에 토대를 두는가?
- ㄹ.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계약을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답 ①

06 직업과 청렴의 윤리

07 사회 정의와 윤리

08 국가와 시민의 윤리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98쪽 5번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인간이 본래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을 통해 공동 사회를 구성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구성원들이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정부를 조직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한다.</p> <p>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는 부정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쟁 상태에서는 소유권도 지배권도 없으며, 네 것과 내 것의 구분도 없다. 평화를 추구하는 본능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기인한다. 인간의 이성인 평화의 조항들을 제안하는데 우리는 이를 자연법이라 한다.</p> <p>병: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공동의 힘을 다해 지킬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이와 결합을 맺으며, 자기 자신 외에는 복종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것. 이것이야말로 사회 계약이 해결해 주는 근본 문제이다. 우리는 저마다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의 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둔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lt;법 레&gt;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lt;예 시&gt;                  (갑)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div> </div>

- ① A: 어떤 사람도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A, C: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행위는 이성에 따른 합리적 행위임을 간과한다.
  - ③ B: 국가 권력의 분립 없이 통치자에게 모든 권력과 힘을 양도하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C, E: 통치 권력은 자의적 명령을 통해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D, F: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연적 자유를 잃게 되지만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됨을 간과한다.
- 답 ③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은 EBS 수능특강 98쪽 5번 문항에서 다른 로크, 홉스, 루소의 사회 계약론 내용을 토대로 문항의 형식을 변형해 홉스와 로크의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수능특강 문항의 정답 선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 홉스의 입장에서 로크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 내용을 모의평가 문항의 선지로 변형하여 활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EBS 교재와의 연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예시된 문항은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 사회 계약론을 다루는 문항으로 매년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상가와 관련된 개념과 내용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EBS 교재로 공부할 때 홉스, 로크, 루소 등 사회 계약론자들이 자연 상태의 특징, 사회 계약의 성격,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제시하였는지 그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 ④ 직업 생활과 행복한 삶

#### 1. 직업의 의미

(1) **직업의 의미**: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 경제적 재화를 취득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

<b>동양</b>	사회적 지위나 역할, 책임을 나타내는 '직(職)'과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뜻하는 '업(業)'이 합쳐진 말
<b>서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잡(job), 어큐페이션(occupation): 경제적 재화를 얻기 위해 하는 일</li> <li>프로페션(profession): 주로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전문직</li> <li>보케이션(vocation): 신의 부르심, 천직(天職)이라는 종교적 의미가 담긴 용어</li> </ul>

#### (2) 직업의 가치

- ① 생계유지: 개인 및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게 함
- ② 자아실현: 개인이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함
- ③ 사회 참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분담, 수행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됨

#### 2. 동서양의 직업관

##### (1) 동양의 직업관

<b>공자</b>	각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정명(正名)을 강조함
<b>맹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을 구별하여 사회적 분업과 직업 간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함</li> <li>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恒産[恒産])이 백성들의 도덕적 삶(恒心[恒心])의 기반이 된다고 봄</li> </ul>
<b>순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예(禮)에 따를 것을 강조함</li> <li>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봄</li> </ul>

#### 개념 플러스 장인(匠人) 정신

장인 정신이란 자신의 기술을 탁월하게 연마하여 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태도나 자세로,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원동력이 된다. 장인 정신은 전문적인 기능과 도덕적 품성을 지닌 장인이 될 것을 강조하는 개인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는 사회적 측면도 포함한다.

##### (2) 서양의 직업관

<b>플라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자 타고난 소질과 함께 교육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봄</li> <li>직업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 덕(德)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봄</li> </ul>
<b>중세 그리스도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은 원죄에 대한 벌로서 신이 부과한 것이라고 봄</li> <li>인간은 속죄의 차원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li> </ul>
<b>칼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은 신의 부르심, 즉 소명(召命)이라고 봄</li> <li>인간의 구원 여부는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고 보며, 근면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한 직업적 성공을 긍정함</li> </ul>
<b>베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칼뱅의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이 청교도의 직업 윤리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li> <li>청교도의 금욕주의적 생활 태도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봄</li> </ul>
<b>마르크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봄</li> <li>자본주의 체제의 분업화된 노동은 인간 소외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함</li> </ul>

#### 정명

각자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따른 덕성을 갖추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이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함(君君臣臣父父子子)으로 표현됨

#### 원죄

성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신이 금지한 열매(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죄

#### 인간 소외

인간이 자신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낸 물질에 의해 도리어 지배당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이 상실되고 비인간화되는 현상

#### 개념 체크

- 1 맹자는 백성에게는 ( ) 이/가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 2 ( )이란 자신의 기술이나 자기의 일에 정통하며 자부심을 갖고 전념하는 철저한 직업 정신을 의미한다.
- 3 ( )은/는 직업은 신의 부르심, 즉 소명(召命)으로 보았다.

#### 정답

- 1 항산(恒産)
- 2 장인 정신
- 3 칼뱅

## 자료 플러스 플라톤의 직업관

내 생각에 성향상으로 장인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부(富)나 다수 또는 힘에 의해, 또는 이런 유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우쭐해져서는 전사의 부류로 이행하려 들거나, 혹은 전사들 중의 어떤 이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속의 결정하며 수호하는 부류로 이행하려 든다면, 그리하여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게 된다면, 또는 동일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 든다면 그런 경우에 내 생각에도 그렇지만, 자네한테도 이들의 이 교환이나 참견이 이 나라에 파멸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 생각하네.

- 플라톤, "국가" -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개, 욕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는 같은 구분법을 적용해 국가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세 계층으로 나누었으며, 국가는 세 계층이 각각의 본분에 맞는 탁월성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정의를 올 수 있다고 하였다.

### 3. 직업과 행복

- (1) **직업 선택의 중요성:** 직업은 단순히 부의 획득과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통로이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 선택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음
- (2) **직업 생활과 행복:** 직업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직업관을 가져야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서로 존중해야 함

## ④ 직업 윤리와 청렴

### 1. 직업 윤리의 의미

- (1) **직업 윤리의 의미:** 자신이 맡은 직업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과 규범
- (2) **직업 윤리의 필요성:** 개인의 행복 실현과 사회의 발전을 돕고, 직업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을 수 있게 함
- (3) **직업 윤리의 일반성과 특수성**

일반성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
특수성	각 직업에서 지켜야 하는 특수한 행동 규범으로, 전문 직종의 영향력이 커지고 직업이 세분화됨에 따라 강조됨

### 2. 다양한 직업 윤리

#### (1) 기업가와 근로자의 윤리

- ① 기업: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체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극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본연의 목적에 따라 이윤을 창출함</li> <li>• 이윤 창출 과정에서 법 규범을 준수함</li> </ul>
적극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도 사회의 기관이므로 공익적 가치 실현에 적극 참여해야 함</li> <li>• 법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기부, 환경 보호, 인류에 구현 등 사회 공헌에 힘써야 함</li> </ul>

### 개념 체크

- ① 플라톤은 국가의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이 각각 타고난 성향에 따른 ( )을/를 발휘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 )은/는 각자가 맡은 직업에서 지켜야 하는 가치와 행동 규범으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
-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이윤 창출이라는 소극적 책임도 있고, 사회 공헌과 공익 실현 등의 ( ) 책임도 있다.

#### 정답

- ① 탁월성
- ② 직업 윤리
- ③ 적극적

## ③ 기업가 윤리

- 법적 테두리 내에서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함
- 노동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해야 함
-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해야 함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의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법

## 개념 체크

- 1 ( )은/는 사회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책임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본질, 즉 이윤 추구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2 기업가와 근로자는 상호간에 맺은 근로 계약을 준수하고 신뢰, 협력하여 ( )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 )은/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개인들 간의 연계,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등을 의미한다.

## 정답

- 1 프리드먼
- 2 상생
- 3 사회적 자본

## 자료 플러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 자유 경제 체제에서 경영자들은 오직 기업의 소유주들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일반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만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사회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며, 정부의 일에 주저없이 나서는 것이다.

—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

• 이윤 극대화라는 단순한 규칙이 사회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중 하나는 생산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그럴듯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회사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언가 생각하는 것, 즉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법률적이든 무언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생산품의 안전성 맥락에서, 회사가 받아들인 윤리 규칙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은 훨씬 더 향상된다.

— 애로우,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효율성” —

프리드먼은 기업에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의 틀을 깨뜨리는 행위이며, 기업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사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애로우는 기업의 본질이 이윤 추구에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프리드먼과 같지만, 기업이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④ 근로자 윤리

-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기업가와 맺은 근로 계약을 이행하고 기업가와 협력을 추구해야 함
- 동료 근로자와 유대감과 연대 의식을 형성해야 함

## ⑤ 기업가와 근로자의 상생적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 개인 윤리적 차원: 노사 양측이 근로 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준수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사회 윤리적 차원: 정부는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노사 간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함

## 개념 플러스 사회적 자본

퍼트남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간의 연계,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등을 이르는 말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특성을 지닌다. 사회 성원 간의 신뢰, 기업 간의 신뢰, 사회 제도와 정책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정착되어야 그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협력적 행동을 촉진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자본으로 집단적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유용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전문직과 공직자의 윤리

### ① 전문직의 특징과 전문직 윤리

- 전문직의 특징: 직업적 전문성으로 인해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b>전문성</b>	고도의 전문적 훈련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
<b>독점성</b>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b>자율성</b>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전문직 윤리: 자신의 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인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지녀야 함

### ② 공직자의 특징과 공직자 윤리

- 공직자의 특징: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법에 규정된 공권력을 지니고,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큼
- 공직자 윤리

<b>봉공·봉사</b>	공사(公私)를 구분하여 공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b>공정</b>	직무를 수행할 때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b>청렴 정신</b>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올곧은 성품을 지녀야 함

-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 불공정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공익 침해 행위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 확립, 시민 단체 감시 활동, 공직 사회의 자정 노력과 공직 기강 확립 등

## 자료 플러스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을을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절약하지 않고,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빛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일을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게 된다. 그러므로 절약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

정약용은 공직자 윤리로 절용(節用)과 청렴(淸廉)을 강조하였으며, 공직자가 탐욕을 부리면 부정 부패하게 되므로 공직자는 덕을 쌓고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 청렴의 의미와 필요성

### (1) 부정부패의 의미와 문제점

- ① 부정부패의 의미: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행위
- ② 부정부패의 문제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올바른 시민 의식을 형성하기 어려워지고, 공정한 경쟁의 틀을 깨뜨려 국민 간 위화감이 조성되며 사회 통합이 어려워짐

### (2) 청렴한 사회 실현

- ① 청렴의 의미: 성품과 행실이 맑고[淸(淸)], 염치를 알며[廉(廉)] 탐욕을 부리지 않는 자세
- ②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 이익을 취하기 전에 그 이익이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함
  - 제도적 보완: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

### ❖ 봉공(奉公)·봉사(奉仕)

국가나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함

### ❖ 견리사의

"논어"에서 성인에 대해 설명하며 사용된 표현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접할 때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뜻함

## 개념 체크

- ① 전문직은 직업적 전문성과 독점성, 자율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윤리적 ( )을/를 지녀야 한다.
- ②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사치와 탐욕을 경계하면서 '아껴 씀을 뜻하는 ( )을/를 공직자의 윤리로 강조하였다.
- ③ ( )은/는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성품과 행실이 고결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자세를 의미한다.

### 정답

- ① 책임감
- ② 절용(節用)
- ③ 청렴

[23015-0081]

0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농부가 한 사람, 집 짓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직물을 짜는 사람이 있어야 하네. 혹시 우리는 여기 에다 제화공이나 아니면 신체와 관련되는 것들을 보살피는 또 다른 사람을 보태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최소한도의 나라’는 넷 또는 다섯 사람으로 이루어지겠네. 우리 각자는 서로가 그다지 닮지 않았고,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저마다 다른 일에 매달리게 될 것이네.

보기

- ㄱ.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사회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가?
- ㄴ. 직업 선택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ㄷ. 이상 사회의 구성원은 각자의 본분에 따른 덕을 발휘해야 하는가?
- ㄹ. 생산자 계층의 사람도 타고난 성향으로부터 벗어나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082]

0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밝은 임금은 백성들의 생업을 보살피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충분히 모실 수 있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충분히 돌볼 수 있어서, 풍년이 들어 즐거운 시절에는 종신토록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뒤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착한 데로 나아가게 한다.  
 을: 권세나 지위가 같고 욕심과 싫어하는 정도가 같되 물건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 다투면 반드시 혼란해지고 혼란하면 궁해진다. 선왕은 그 혼란을 싫어하여 예의를 제정하였고 이로써 신분을 가르고 빈부귀천의 차등을 두어 서로 아울러 다스리게 하였으니, 이것이 천하가 백성을 기르는 근본이다.

- ① 갑: 대인과 소인은 같은 사회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 ② 갑: 일반 백성은 생업이 없어도 항심(恒心)을 지닌다.
- ③ 을: 사람들의 직분은 예(禮)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④ 을: 덕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통치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분업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

[23015-0083]

0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청렴은 수령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이런 까닭에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않게 되는 까닭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공직자는 일상적 덕목으로서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
- ㄴ. 공직자는 애민(愛民) 정신을 바탕으로 봉사해야 한다.
- ㄷ. 공직자는 공사(公私)를 구분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ㄹ. 공직자는 도덕적 옳고 그름을 떠나 사적 이익을 우선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5-0084]

0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기업의 책임은 오로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여 이윤 추구에 힘쓰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장기적인 기업의 이익 증대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보호, 사회 복지 공헌 등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견해가 ㉠고 생각한다.

- ① 기업이 법을 준수하며 이윤을 추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기업 경영의 목표는 사회 공헌과 복지 실현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③ 기업은 획득하게 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기업의 책임 이행은 기업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기업에 합법적 이윤 추구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23015-0085]

**05** (가)의 입장에서 (나)의 ‘A 사회’ 상황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 등을 이르는 말로,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도록 촉진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적 품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행복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A 사회’는 과거보다 경제력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사회적 유대와 상호 신뢰가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율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 ① 사회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세요.
- ② 법적 강제를 통해서만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세요.
- ③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장려하세요.
- ④ 구성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세요.
- ⑤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부정행위의 효율성을 높이세요.

[23015-0086]

**06**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세로 낱말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특별한 삶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신에 의해 부여받았다. 그 누구도 경솔하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은 다양한 종류의 삶을 소명으로 부르셨다. 어떤 일이든지 소명을 따르는 일은 결코 지저분하거나 천한 일이 아니며, 신이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될 것이다.																				
(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A)</td><td>(C)</td><td></td><td></td></tr> <tr><td></td><td></td><td>(B)</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                      (A):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                      (B): 어떤 사업이나 연구 따위에서 세운 공적, 일이나 사업에서 이룬 성과                      [세로 열쇠]                      (C): …… 개념</p>							(A)	(C)					(B)							
	(A)	(C)																			
		(B)																			

- ① 부를 축적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이다.
- ② 신이 인간의 원죄에 대해 내린 벌이다.
- ③ 사회에서 신분의 귀천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 ④ 내세에서 신의 예정을 바꾸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 ⑤ 신의 부르심이자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23015-0087]

**0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청교도들에게 부(富)는 오직 나태하고 게으르게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살아가거나 최악된 삶을 즐기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부를 추구하는 것도 오직 현세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안일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일 때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종교적 의무로서 직업 노동을 수행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하느님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허용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프로테스탄트는 노동을 통한 부의 증대를 죄악으로 여겼다.	v	v		v	
프로테스탄트는 자신의 구원 여부가 예정된 것이라고 보았다.	v		v		v
프로테스탄트는 소명 정신을 바탕으로 직업 활동을 이해하였다.		v		v	v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윤리는 서구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가 되었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015-0088]

**0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생계 수단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을 동물과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술적 노동 분업은 노동자를 기계로 전락시켰다.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에서 개인은 그러한 분업에 복종하는 예측적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 ① 노동을 상품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 ② 자본주의 체제에서 분업화된 노동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 ③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확대함으로써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 ④ 매뉴팩처가 발달하여 작업이 세분화될수록 노동 소외는 약화된다.
- ⑤ 인간은 자발적인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다.

[23015-0089]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나의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 서로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p> <p>을: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노동의 본질이 왜곡된다.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소외가 발생한다.</p> <p>병: 선왕은 예의를 제정해 분별을 지은 것이다. 귀천의 등급, 장유의 차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능한 자와 능하지 못한 자의 분수를 알게 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의 일을 맡도록 하되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후에 봉록의 많고 적음이 알맞도록 하였다.</p>
(나)	

- ① A: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D: 사회적 분업의 확대를 통해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C, E: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재화 생산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이상 사회에서 개인의 노동과 욕구 충족은 상호 양립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⑤ F: 통치자에게는 생활필수품 이외의 사적 재산 소유가 허용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23015-0090]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인(大人)의 일이 있고 소인(小人)의 일이 있다. 가령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장인이 하는 일을 고루 갖추어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만든 다음에야 이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할 일이 없게 만들어 모두 길바닥으로 내얹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쓰고, 어떤 사람은 힘을 쓴다.'고 말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勞心者]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勞力者]은 다른 사람에게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들의 부양을 받게 되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도리이다.

- ① 사람들은 각자가 맡은 사회적 직분에 충실히 임해야 하는가?
- ② 백성들에게 생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왕도 정치의 기반이 되는가?
- ③ 통치자와 피치자 간에 역할 교환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④ 선비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도덕적인 마음을 지닐 수 있는가?
- 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을 예의로 대해야 하는가?

[23015-0091]

### 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영역까지 미치면서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기업 활동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마땅히 법을 준수하며 이익을 창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은 환경 보호, 장학 사업 등 사회 공헌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합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며 재무적 성과를 내는 것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익 추구에 전념하는 것만으로 기업은 장기적으로 공익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나 빈부 격차 심화 등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경제적 이윤을 공동체에 환원하며 공익 실현에 힘쓸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 ①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준법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 ② 기업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가?
- ③ 오늘날 기업 활동이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 ④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 ⑤ 기업은 경영을 통해 이윤을 환원하며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23015-0092]

###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수호자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 한 그 누구도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네. 그리고 절제하며 시민들을 지켜 준 대가로 시민들에게서 생필품만 일정하게 받되, 그들의 연간 소비량을 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여야만 하네. 또한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공동으로 생활해야만 하네.

을: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지나가는 곳은 산림과 샘이나 돌까지도 모두 밝은 빛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는 더러운 욕을 하는 소리가 드높을 것이니, 수치스러운 일이다.

- ① 갑은 통치자가 생산 활동과 통치를 겸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공직자가 사치스러운 태도와 엄치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공직자가 사사로운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위해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절제를 공직자가 발휘해야 할 필수적 덕목이라고 본다.

[23015-0093]

5 다음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3학년 □반 이름: ○○○

◎ 문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기업가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와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 학생 답안

기업가는 ㉠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소비자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또한 기업가는 ㉡ 사회·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단체 교섭권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와 지속적 대립 구도를 형성해야 하며, ㉢ 사회의 법 규범을 따르면서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근로자는 ㉣ 근로 계약을 지키면서 동료 근로자와 연대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근로에 임해야 한다. 나아가, ㉤ 기업가와 근로자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5-0094]

6 갑, 을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에 힘써야 할 책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공익 실현을 자율의 영역에만 맡기기에 역부족이므로 공직자가 뇌물을 받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끔 특수한 법을 통해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을: 공직자는 공권력을 지니므로 그들의 의사 결정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큼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힘쓰고자 하는 윤리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감시와 처벌 등 타율적인 제재를 지양하고, 공직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며 그들에게 자정 노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 ① 갑이 을에게: 공직자의 언행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② 갑이 을에게: 공직자에게는 일반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무가 요구됨을 간과하고 있다.  
 ③ 갑이 을에게: 공직자는 그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체의 타율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④ 을이 갑에게: 공직자에게 법적 강제력보다 도덕적 자율성 확보가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을이 갑에게: 공직자는 제약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23015-0095]

7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lt;문제 상황&gt;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었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명하였다. 인간은 구원을 예정해 놓은 신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 물질적 번영은 분명 신의 축복임에 틀림 없으나,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을 위해 나누기 위함이지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다.

&lt;문제 상황&gt;

A는 자기가 갖고 싶은 비싼 옷과 가방을 구매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다. A는 직업이 단지 개인의 경제적 부를 쌓거나 소비를 위해 필요한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현대 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통해서도 그 밖의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 ① 세속적인 직업 생활을 그만두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 ② 속임수와 기만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명예를 드높이세요.
- ③ 직업을 통해 축적하는 경제적 부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고려하세요.
- ④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⑤ 일은 성스러운 명령과 같음을 깨닫고 직업 활동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23015-0096]

8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 칼럼

오늘날에는 과학 기술, 의술, 법률 등이 발달하고 업무 행정이 체계화되면서 특정 분야에서 고도의 훈련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사회적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학습과 수련을 거쳐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갖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들의 자율성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내린 의사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종사자들이 높은 경제적 보수와 사회적 대우가 뒤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면서 전문직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직업 생활의 일부분이겠지만, 전문직 종사자라면 마땅히

㉠

- ① 직업 윤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 ② 업무가 지니는 공공성을 생각하여 윤리적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 ③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 ④ 어려운 업무는 피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는 무관심하되 기계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1. 사회 정의의 의미

(1)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 ① 사회 윤리의 등장 배경
  -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가 발생함
  -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독자적 원리에 따라 움직임
- ② 사회 윤리의 의미와 과제
  - 의미: 사회 구조나 제도와 관련된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 규범
  - 과제: 공동선과 사회 정의의 실현
- ③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구분	개인 윤리	사회 윤리
주안점	개인의 양심, 윤리 의식 등 개인의 도덕성	사회 구조, 제도, 정책 등 사회의 도덕성
문제 원인	개인의 도덕적 의사 결정 능력, 실천 의지의 결여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
문제 해결	개인의 도덕적 판단 능력이나 실천 의지, 도덕적 습관 함양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 사회 구조와 제도 개선

- ④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관계: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모두 필요함
- ⑤ 니부어의 사회 윤리에 대한 관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현대 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쉬움
  -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하며, 오히려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음
  -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니부어

미국의 신학자. 낙관적인 인간관을 비판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주의적 입장을 주장함

개념 체크

- ① 개인의 양심, 윤리 의식 등의 함양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 )와/과 달리, 사회 윤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 사회 구조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② ( )은/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쉽다고 보았다.
- ③ 니부어는 집단 간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 ① 개인 윤리
- ② 니부어
- ③ 강제력

자료 플러스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에 대한 니부어의 관점

-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간단히 정치와 윤리의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의 요구이다.
-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아만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의 제거는 인종이건 국가건 경제 집단이건 인간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 및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이상이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속성이나 도덕적 이상이 다르므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집단 속에서 이기적으로 되어 가는 인간의 성향과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부정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외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사회 정의

① 사회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의미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며, 사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필요성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와 개인 간·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 지침을 제공함

자료 플러스 사회 정의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

- 맹자가 양혜왕을 접견했다. 왕이 말했다. “선생처럼 고명한 분이 천 리 길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찾아 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지요?”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어쩌서 이익에 대해서만 말하십니까? 진정 중요한 것으로는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아래에 있는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선비와 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 맹자, “맹자” -
- 정의는 각자가 자기의 성향에 가장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 한 가지에 종사하며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곧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다. …(중략)… 철학자들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인류 전체에서 악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 플라톤, “국가” -

동양에서 의로움은 천리(天理)에 부합하는 올바름을 의미한다. 맹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악행을 미워하며, 이익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올곧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서양에서 정의는 ‘올바름’ 또는 ‘공정함’을 의미한다.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최고의 덕목을 정의라고 하였으며,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제 직분을 다하여 조화를 이룰 때 사회가 정의로움에 있다고 보았다.

② 사회 정의의 분류

분배적 정의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교정적 정의	위법과 불공정함을 바로잡아 공정함을 확보하는 것
절차적 정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당한 몫을 결정하는 것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 갖게 되면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 분배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법은 한 사람은 부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의를 당한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하며 당사자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보편적) 정의와 부분적(특수적) 정의로 구분하고, 부분적 정의를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시정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정의는 완전한 탁월성의 활용으로서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분적 정의는 특히 공정성과 관련되는데, 그중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여 각 사람의 가치에 따른 사회적 재화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보상해 주고, 이익을 주었으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을 지향한다.

개념 체크

- 1 ( ) (이)란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덕목 중 하나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자, 사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 2 사회 정의를 분류할 때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 ) 정의라고 한다.
- 3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시민들이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 ) 정의와 부분적(특수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 정답
- 1 사회 정의
  - 2 분배적
  - 3 일반적(보편적)

## 2. 분배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

### (1) 분배적 정의

- ① 분배적 정의의 의미: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
- ② 분배의 다양한 기준

기준	장점	문제점
절대적 평등	기회와 혜택이 균등하게 보장됨	• 생산 의욕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개인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음
필요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용이함	•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능력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적절한 대우를 할 수 있음	• 능력 획득에 선천적인 요소가 개입됨 •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업적	• 객관적 평가와 측정이 쉬움 • 동기 부여가 잘 되며, 생산성이 높아짐	•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에 대한 양과 질의 평가가 어려움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어려움

### (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의관

#### ① 마르크스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함
-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배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 ②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함
-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됨
- 정의의 두 원칙: 모든 구성원이 원초적 입장에서 자기 이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합의할 두 가지 정의의 원칙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야 함
제2원칙	차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됨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함

-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과 자발적 협동 체제로서의 사회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 ③ 노직의 ‘소유 권리론’

-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절대적 권리를 지님
-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함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는 취득한 사람에게 그 소유 권리가 있음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의 원칙	타인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받은 재화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음
교정에서의 정의의 원칙	재화를 취득하고 양도받는 과정에서 과오나 잘못된 절차에 의한 소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함

#### ❖ 원초적 입장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하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가상적 상황

#### ❖ 무지의 베일

개인의 사회적 지위, 소질과 능력, 지능, 체력, 심리적 성향 등에 관해 모르게 하는 것으로, 자연적·사회적 우연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배제시키는 장치

### 개념 체크

- 1 ( )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2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배제시키는 ( )을/를 쓴 개인들이 공정한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 3 노직은 취득·이전·교정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발생한 정당한 ( )에 대해서 개인이 배타적·절대적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다.

#### 정답

- 1 필요
- 2 무지의 베일
- 3 소유물

**개념 플러스** 절차적 정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생한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는 정의관이다. 기존의 분배적 정의관은 능력, 필요, 업적 등 분배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분배가 정의롭다고 보았으나, 그러한 분배의 기준은 보편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서로 충돌한다는 한계가 있다. 절차적 정의는 분배 기준 자체보다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절차를 강조하여 분배의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인가를 중시한다.

④ 왈처의 ‘복합 평등론’

-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됨
-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정의 기준을 인정함

**자료 플러스** 왈처의 복합 평등(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복합 평등(또는 다원적 평등, Complex Equality)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민 X가 공직에서 시민 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 취학의 우선권, 다른 취업 기회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또한 일반적으로 전환될 수 없는 한, 공직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 왈처, “정의와 다원적 평등” -

왈처는 개인들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된 롤스의 단일한 정의의 원칙은 실제 삶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고 비판하며,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에 맞는 가치 분배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적 가치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복합 평등(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즉 부(富)는 경제 영역에, 권력은 정치 영역에 머물러야 하며 부를 지닌 사람이 정치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본 것이다.

(3)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

① 우대 정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 우대 정책의 의미: 특정 집단에 대해 역사적·사회 구조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 입장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부당한 차별에 대한 보상</li> <li>• 사회 갈등 완화,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li> <li>• 자연적·사회적 운으로 발생한 불평등을 시정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당한 특혜</li> <li>• 업적주의의 위배</li> <li>• 과거의 피해와 현재의 보상 간 불일치 문제</li> <li>• 역차별로 새로운 사회 갈등 유발</li> </ul>

② 부유세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 부유세의 의미: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으로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

❖ 복합 평등

왈처는 모든 사회적 재화를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단순 평등을 비판하고, 영역별로 각기 고유하고 특수한 다원적인 분배 원칙을 찾는 복합 평등을 강조함

❖ 업적주의

개인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로 얻은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하는 사상 또는 입장

❖ 역차별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우대 정책이 오히려 다른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는 것

**개념 체크**

- ( )은/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 특정 집단에 대해 역사적·사회 구조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 정책은 오히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으로 또는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 ) (이)라고 한다.

**정답**

- 왈처
- 역차별
- 부유세

• 부유세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 입장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li> <li>• 빈부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li> <li>•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아서 부자들에게 대한 차별 발생</li> </ul>

### 3. 교정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

#### (1) 교정적 정의

- ① 교정적 정의의 의미: 손해와 손실을 회복시키거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불균형과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
- ② 교정적 정의로서의 처벌에 대한 관점

구분	응보주의 관점	공리주의 관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li> <li>•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 부과</li> <li>• 범죄 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li> <li>• 위법의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실이 더 크도록 형벌 부과</li> <li>• 처벌의 사회적 효과 강조</li> </ul>

#### 자료 플러스 처벌에 대한 칸트와 벤담의 관점

-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방호해 준다. - 칸트, "윤리형이상학" -
- 모든 법령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중략) ... 그러나 모든 형벌은 해악이다.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오직 그것이 더욱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 (중략) ...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그러므로 위법 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칸트는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며, 응보주의에 바탕을 둔 형벌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형벌은 범죄자에게 자신의 자율적 행위, 즉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벤담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형벌은 고통을 야기하므로 그 자체로 악이라고 보았으며, 만약 형벌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형벌은 그로 인해 초래되는 해악이 형벌을 통해 예방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에 대한 교화를 통해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형벌을 주장하였다.

#### ③ 공정한 처벌의 조건

- 죄형 법정주의: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야 하고, 그 법이 공정해야 하며,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비례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 됨

#### ※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

#### ※ 피의자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개념 체크

- ① ( )적 정의를 손해와 손실을 회복시키거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함으로써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칸트는 형벌의 본질이 ( )에 있으며, 이에 바탕을 둔 형벌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③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처벌을 사회적 ( )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 정답

- ① 교정
- ② 응보
- ③ 이익

(2)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

① 처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응보주의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음</li> <li>• 전과자의 사회 적응이 어려움</li> </ul>
공리주의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의 예방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움</li> <li>• 범죄자 처벌을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li> </ul>

② 사형 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 사형의 의미: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법정 최고형
- 사형 제도에 대한 관점

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보주의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며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li> <li>•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임</li> </ul>
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계약설의 관점에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형 제도는 정당함</li> <li>•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함</li> </ul>
베카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보다 중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함</li> <li>•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은 불가함</li> <li>•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에 근거해 살인(사형)하는 것은 부당함</li> </ul>

자료 플러스 사형 제도에 관한 루소와 베카리아의 입장

•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단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수단은 위험과 희생을 수반한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유사하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 루소, "사회 계약론" -

•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強度)만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범죄의 이득이 크다 해도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하기를 택할 자는 없다. ... (중략)... 사형을 대체한 중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중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

루소는 사회 계약설을 바탕으로 사형 제도에 찬성하였다. 사회 계약설은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사회(국가)를 형성했다는 이론이다. 루소는 이러한 자발적 상호 계약을 근거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희생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이 생명 보존을 위해 맺은 것이므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단기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형보다 오랫동안 고통의 본보기가 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중신 노역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 입장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 방어 수단임</li> <li>• 범죄 예방 효과가 큼</li> <li>• 범죄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면 과도한 형벌이 아님</li> <li>• 과학 수사와 제도 보완으로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형벌임</li> <li>•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부적합함</li> <li>•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함</li> <li>•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li> <li>• 오판 가능성이 있음</li> </ul>

교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

개념 체크

- ( )은/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사형은 범죄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루소는 ( )의 관점에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보았다.
- 베카리아는 ( ) 관점에서 사형보다 중신 노역형이 사회 이익 증진에 부합하는 형벌이라고 보았다.

정답

- 1 칸트
- 2 사회 계약설
- 3 공리주의

[23015-0097]

0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에서 질문에 대해 제시할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게

지난 편지에서 자네가 ‘정의란 무엇인지’ 물었기에,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 보고자 하네. 일반적 정의는 보통 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분적 정의는 공정성과 관련된다네. 부분적 정의 중 하나는 공동체에서 명예나 부의 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다면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다면 동등하지 않은 몫을 가지는 것이라네. 다른 하나는 상호 교섭에서의 동등함을 위해 바로잡는 것으로, 행한 자들은 동등하게 취급되며 발생한 이익과 손해의 중간을 회복하려는 것이라네. …(후략).

	질문	대답
①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것은 정의로우나?	예
②	교정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를 따르는 동등함을 추구하는가?	예
③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그 몫을 분배하는 것인가?	예
④	누구에게나 동등한 양의 물질적 재화를 분배해야 하는가?	아니요
⑤	정의란 동등하지 못한 사람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요

[23015-0098]

0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보기

ㄱ.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화와 범죄 예방이다.  
 ㄴ.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 행위와 같다.  
 ㄷ. 형벌은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다.  
 ㄹ. 사형은 일반 의사를 대표하는 법을 통해 허용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5-0099]

0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과 성취는 사회생활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함을 가할 수 있다.

보기

ㄱ.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ㄴ. 집단 간 불균등한 힘의 분배는 사회 부정의의 원인이 되는가?  
 ㄷ.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도 집단 내의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ㄹ. 개인들이 각자의 도덕성을 발휘함으로써 모든 사회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100]

0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정교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습니다.



- ① 사회적·경제적 재화의 분배는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일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되어야 한다.  
 ③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④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타인과 비교하며 경쟁의식을 가진다.  
 ⑤ 무지의 배일을 쓴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사회의 기본 운영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23015-0101]

**0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원적 평등 체제는 전제(專制)와 정반대가 된다. 이 체제는 지배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일군의 관계들을 정립한다. 형식적 어법으로 말한다면 다원적 평등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어떤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정의의 원칙들은 형식적 측면에서 그 자체로 다원주의적인가?
- ② 유능한 정치가들이 정치 영역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은 합당한가?
- ③ 사회적 가치의 분배는 각 영역의 고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④ 다원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가?
- 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는가?

[23015-0102]

**06**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사법적 형벌이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또는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사법적 형벌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은 살인자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지만, 그것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사회적 효용의 최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한에서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이에 대해  ㉠  고 생각한다.

- ①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 ②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 ③ 형벌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형벌의 목적은 사회에서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⑤ 형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3015-0103]

**07** 분배적 정의에 대한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의 필요에 따른 분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을: 나는 개인의 성취와 노력을 장려할 수 있도록 업적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병: 나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양질의 재화와 혜택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 ① 갑이 추구하는 분배 방식은 재화에 대한 개인들의 수요량을 전부 동일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② 을이 추구하는 분배 방식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배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③ 병이 추구하는 분배 방식은 그 과정에서 선천적 요소가 개입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낳을 수 있다.
- ④ 갑이 추구하는 분배 방식은 을이 추구하는 방식에 비해 성과를 위한 구성원 간의 과열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 ⑤ 병이 추구하는 분배 방식은 을이 추구하는 방식에 비해 사회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3015-0104]

**08**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서술형 평가

◎ 문제: A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A  :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 학생 답안

A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A 정책의 시행을 통해 ㉠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A 정책이 ㉢ 부자들에게 대한 납세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며, ㉣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 A 정책으로 인해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덜한 다른 나라로 투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염려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5-0105]

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형벌 그 자체에는 반드시 정의가 내재해야 하며, 정의만이 형벌 개념의 본질을 구성한다. 사법적 형벌은 언제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형벌은 범죄자의 자유 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	√		√	
형벌은 시민들의 범죄 의지를 억제하려는 방편으로서 집행되어야 한다.				√	√	√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인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정언 명령으로 주어진다.		√			√	√
범죄자는 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015-0106]

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한 국가가 올바른 나라로 여겨지는 것은 그 안에 타고난 성향이 다른 세 계층이 저마다 제 일을 하기 때문이며, 한 국가가 절제 있고 용기 있으며 지혜로운 나라인 까닭은 이들 세 계층의 심적 상태와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p> <p>을: 왜 사람들은 꼭 이익만을 말할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따름이다. 군주가 이익만을 생각하면 대부들은 자기 집안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고, 대부들이 자기 집안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일반 백성들은 자기 한 몸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위태롭게 될 것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

- ㄱ. A: 덕이 있는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ㄴ. B: 통치자는 자신의 사익만을 좇기보다 피치자를 위한 정치를 행해야 한다.  
 ㄷ. B: 사회 질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직분을 다할 때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  
 ㄹ. C: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사회적 계층이나 신분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3~4]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희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며,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가상의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하게 될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을: 만약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 즉 분배도 정당하다. 이 일반적인 개요를 세부적으로 이론화하기 위해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세 원리를 규정해야 하는데, 이는 각각 소유물 취득의 원리, 소유물 이전의 원리, 그리고 이 두 원리 위반을 교정하는 원리이다. 분배에서 정의의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23015-0107]

### 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제1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에게 균등한 사유 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선천적인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과세 정책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23015-0108]

###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갑, 을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사회적 가치는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각각의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만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돈은 성직의 영역에서는 부적절하며, 만약 돈으로 성직을 살 수 있다면 이는 다른 영역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돈은 시장의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는 경건성이나 신앙심이 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 ① 갑에게: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제1의 덕목은 정의라는 점을 간과한다.
- ② 갑에게: 한 사회적 영역 안에서 독점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을에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단일한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을에게: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분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갑과 을에게: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최대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분배 원리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23015-0111]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형벌에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p> <p>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가 사회 계약을 맺으며, 따라서 그는 이제 국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과 선고이다. 그는 계약을 깬 자로서 추방에 의해서나 공중의 적으로서 죽음에 의해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p> <p>병: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하지 못했다. 제대로 조직된 국가에서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개인의 자유 중에서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보기

- ㄱ. A: 사형은 살인자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이다.
- ㄴ. B: 형벌 부과와 정당성 여부는 사회 계약에서 찾을 수 있다.
- ㄷ. C: 형벌의 질과 양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ㄹ. D: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3015-0112]

8 갑, 을, 병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거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될 경우 그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 것이다.

을: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부정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병: 정의로운 분배는 사회 전체가 얻게 될 이익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분배이다.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에게	비판
①	갑	병	사회적 재화의 분배는 산술적 비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다.
②	을	갑	부정의한 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교정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③	을	병	재화 분배의 결과보다 분배의 절차가 정의로워야 함을 간과한다.
④	병	갑	각자에게 각자의 가치에 따라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이 분배 정의임을 간과한다.
⑤	병	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분배의 결과적 평등을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㉔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 1. 국가 권위의 정당성

#### (1) 국가 권위의 의미와 특징

의미	시민들을 국가의 뜻에 따르게 하는 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또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
특징	시민의 삶 전체 영역에서 복종과 헌신을 요구함,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화됨

#### (2)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

##### ① 국가와 시민의 관계: 시민과 국가는 상호 의존적 관계임

- 시민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며 동시에 국가에 대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국가는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님

##### ②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관점

유교	• 군주의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 •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의무임
플라톤	• 개인의 타고난 기능은 국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 •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임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존재임 •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함
사회 계약론	• 국가의 권위는 시민들의 자발적 합의로 형성된 것임 • 국가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음
혜택론	•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 등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국가에 복종해야 함

#### 자료 플러스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 모든 국가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다. …(중략)…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특정한 공동체가 있다면, 이는 가장 으뜸가는 좋은 목적을 추구한 것이다. 이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주요한 공동체가 바로 국가, 즉 정치적 공동체이다.
-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완성이므로 모든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이런 면에서 국가 성립 이전의 단계인 여러 공동체와 마찬가지로의 성격을 갖는다. 국가는 이런 여러 공동체의 종착역이며 가장 높은 단계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가족이나 부락과 같은 공동체처럼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는 자급자족적일 뿐 아니라 구성원들이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라고 보았다.

#### 개념 플러스 사회 계약론

사회 계약론은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한다는 주장이다. 사회 계약론이 등장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왕의 권리가 신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왕권신수설을 믿었다. 그러나 왕권신수설이 의문시되면서 사람들은 군주들도 동등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동등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타인들을 지배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 ❊ 이데아

사물이나 존재의 본모습 또는 참모습.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

#### 개념 체크

- 1 동양의 ( )에서는 군주의 통치권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보고, 부모를 섬기듯이 군주를 섬겨야 한다고 본다.
- 2 ( )은/는 국가가 가족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자연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3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권위가 시민들의 ( )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

#### 정답

- 1 유교
- 2 아리스토텔레스
- 3 자발적 합의

가? 사회 계약론은 이에 대해 우리가 복종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그러한 의무 아래 우리 자신들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평등하며, 더 높은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권리가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국가를 수립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이다.

## 2.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 (1) 동양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의무

공자, 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군주가 먼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함</li> <li>• 맹자: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恒産[항산])되어 도덕적인 삶(恒心[항심])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li> </ul>
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주는 남의 나라와 나의 나라, 남의 가족과 나의 가족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兼愛[겸애]), 서로 돌보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 천하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함</li> </ul>
한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엄격한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함</li> <li>• 적절한 포상과 처벌을 통해 질서를 유지해야 함</li> </ul>
정약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이 일어났을 때 현명하게 해결해 주어야 함</li> <li>• 애민(愛民) 정신으로 노약자나 빈자(貧者)를 돌보고 구제해 주어야 함</li> </ul>

#### ④ 민본주의

민본(民本)이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의미로, 민본주의는 백성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치사상을 의미함

#### ④ 목자

춘추 전국 시대 제자백가의 하나인 목가의 시조. 차별 없는 사랑인 겸애(兼愛)를 강조하고, 천하에 이익이 되는 것을 복돋우고 해가 되는 것을 없애는 정치를 주장함

### 자료 플러스 맹자의 왕도(王道) 정치

- 무력으로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한다.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복종하니, 칠십 명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복종한 것이 그 예이다. “시경”에서 문왕이 천하를 다스린 것에 대해 “서쪽에서 그리고 동쪽에서, 남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라고 한 것은 그것을 말한 것이다.
- 어진 정치를 실행하려면 덕을 귀하게 여기고 선비를 존중해 덕을 지닌 현자가 합당한 지위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합당한 직책에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나라에 내우외환(內憂外患)이 없어지거든 그때에 이르러서 정치와 형벌을 밝게 시행하면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다. — “맹자” —

맹자는 인의(仁義)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힘으로 다스리는 패도(霸道) 정치와 달리 왕도 정치는 덕을 베풀어 다스리는 것으로, 세금을 가볍게 하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백성을 돌보아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덕과 능력 있는 사람을 적절하게 기용하는 것이다.

### (2) 서양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의무

홉스	이기적 존재인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함
로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성을 지녔지만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의 분쟁을 해결해야 함</li> <li>•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여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함</li> </ul>
루소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영하도록 해야 함
밀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야 함</li> <li>• 사회의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누구에게나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야 함</li> </ul>

### 개념 체크

- 1 유교에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 )을/를 바탕으로 군주가 먼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한다고 본다.
- 2 한비자는 이기적 본성을 지닌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 )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 홉스, 로크, 루소는 국가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어 형성한 것이라는 ( )을/를 주장하였다.

#### 정답

- 1 민본 또는 민본주의
- 2 법
- 3 사회 계약론

**자료 플러스**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

-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먼웰스(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 …(중략)… 코먼웰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홉스, “리바이어던” -
- 국가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저질러진, 의당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이리저리한 범죄에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국가는 국가의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로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능한 한 사회의 전 구성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 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 로크, “통치론” -

홉스는 사람들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므로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로크는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국가를 만든 것이므로, 국가는 시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료 플러스** 루소의 사회 계약론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양도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각자가 자기를 전적으로 양도해 버리고 나면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되고, 또 조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되면 그 누구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만약 사회 계약으로부터 본질적이지 아닌 부분을 제거해 버리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중략)… “우리를 각자는 자기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기고 - 그런 정치 조직 속에서 -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 불가분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 결합 행위가 성립하는 즉시 계약자인 개인들 대신에 하나의 정신적이고도 집합적인 정치 공동체가 형성된다. - 루소, “사회 계약론” -

루소가 주장한 사회 계약의 핵심은 일반 의지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루소는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조금도 남김없이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면 공동체 전체의 의사인 일반 의지가 확립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사회 계약의 당사자는 개인들 전체인 것이다.

(3) 소극적 국가관과 적극적 국가관

<b>소극적 국가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 질서 유지의 역할만을 강조함</li> <li>• 빈부 격차의 심화와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li> </ul>
<b>적극적 국가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 주택, 교육 등의 영역에서 복지 제공을 강조함</li> <li>• 국가 기능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복지 과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 등의 문제 발생</li> </ul>

❖ 일반 의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를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시민의 도덕적 의지를 가리키는 개념

**개념 체크**

- 1 홉스는 인간이 코먼웰스(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 ) 와/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고 보았다.
- 2 로크는 국가가 시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과 자유와 ( )을/를 보호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 3 루소는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조금도 남김없이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면 공동체 전체의 의사인 ( )이/가 확립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 1 자기 보존
- 2 재산
- 3 일반 의지

### 주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 대의 민주주의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을 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게 하는 간접 민주 정치

### 주민 소환제

선출직 지방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유권자인 주민이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및 지방 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음

### 개념 체크

- 맹자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백성이 군주를 부모와 같이 여기고 따라야 하지만, 군주가 백성을 위하지 않으면 왕조를 교체하는 ( )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선출된 대표가 시민의 의견을 대신 정치에 반영하는 정치 형태를 ( ) (이)라고 한다.
- ( )은/는 부정적인 법이나 정책을 개정하거나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 정답

- 역성혁명
- 대의 민주주의
- 시민 불복종

## 민주 시민의 참여와 시민 불복종

### 1. 시민의 권리와 의무

#### (1)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

- 민주 시민의 의미: 민주 국가에서 주권을 발휘하는 주체
- 민주 시민의 권리
  - 주권자로서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
  - 내용: 국가에 대해 생명, 재산, 인권 등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등
- 민주 시민의 의무
  -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임무
  - 내용: 국가의 정당한 권위 존중, 국방·납세·교육의 의무, 정치 참여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함

#### (2) 동양 민본주의(民本主義)의 백성

- 민본주의의 의미: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근본을 탄탄히 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사상으로, 군주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지향해야 함
- 민본주의의 백성
  - 군주를 부모와 같이 여기고 군주가 부여한 의무를 자발적으로 따라야 함
  -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역성혁명(易姓革命)이 가능하다고 봄

### 2. 민주 시민의 참여의 필요성과 방법

#### (1) 민주 시민의 참여의 필요성

-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선출된 대표가 전문적이고 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음
- 시민 참여의 필요성
  - ‘시민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음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2) 민주 시민의 참여 방법

- 시민 참여 분야: 정책의 입안·결정·집행·평가 등 정부와 사회의 모든 활동
- 시민 참여 방법: 공청회, 자문회,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국민 참여 재판, 선거 등
- 시민 참여의 한계: 다수의 참여는 행정과 자원에 과도한 부담을 줌으로써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음

### 3. 시민 불복종

#### (1)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연원

-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특징

의미	부정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특징	부정적인 법이나 정책을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위반함

② 시민 불복종의 역사적 연원

- 자연법사상: 실정법은 자연법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의 정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함
- 뉴른베르크 재판: 개인은 자국의 정의롭지 못한 법률을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제시함

(2) 시민 불복종의 일반적인 정당화 조건

최후의 수단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비폭력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함
공동성 추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정의 실현과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함
공개성	불복종의 정당성과 정의의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처벌 감수	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함

(3) 시민 불복종에 대한 다양한 관점

소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함</li> <li>• 악법에 대한 불복종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임</li> <li>• 양심에 따라 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함</li> </ul>
간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함</li> <li>•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함</li> </ul>
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불복종의 기준이 되어야 함</li> <li>•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 전개되어야 함</li> </ul>
싱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함</li> <li>•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li> </ul>
드워킨	헌법이 정치 도덕의 근본을 형성하므로 이를 어기는 법이 있다면 헌법 정신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므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법률에 대해 시민이 저항할 수 있음

❖ 자연법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법으로 실정법의 토대가 됨. 민족, 사회, 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님

❖ 드워킨

미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로 "법과 권리", "자유주의적 평등" 등의 저서가 있음

자료 플러스 **롤스와 싱어의 시민 불복종**

-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에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 롤스, "정의론" -
-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행위 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불복종자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지배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표명하게 된다.
- 결심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 싱어, "실천 윤리학" -

롤스는 시민들의 공유된 정의감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된다고 보았으며, 만약 어떤 법이나 정책이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날 경우 시민들은 그러한 법에 대해 불복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합법적인 수단으로 부정의를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비폭력적으로 행위 하면서, 행위 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이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념 체크

- 1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 ) 이어야 한다.
- 2 시민 불복종은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 )을/를 감수함으로써 법체계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야 한다.
- 3 소로는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개인의 ( ) ( )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 1 최후의 수단
- 2 처벌
- 3 양심

[23015-0115]

01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양 사상의 A 사회>**

큰 도(道)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중략)**... 노인에게는 그 생애를 편안하게 마치게 해 주고, 장정에게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며,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해 주고, 과부와 고아, 장애인 등에게는 고생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A 사회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사회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복지에 힘쓰는 사회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개인의 업적에 따라 모든 재화가 분배되는 사회입니다.

- ① 갑, 병                      ② 갑, 정                      ③ 을, 정  
 ④ 갑, 을, 병                ⑤ 을, 병, 정

[23015-0116]

02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군주가 백성들을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질서 정연하게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군주가 법술(法術)로 혼란을 다스리고, 상과 벌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법치로 군주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야 함을 간과한다  
 ② 백성들을 무차별적인 사랑으로 다스려야 함을 간과한다  
 ③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함을 간과한다  
 ④ 형벌로 통치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함을 갖지 못함을 간과한다  
 ⑤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로서 법을 강조해야 함을 간과한다

[23015-0117]

0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 권력이 없이 살아갈 때는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 이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다. 인간은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에 속하게 된다.

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 따르는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동안 열악한 상황에 시달리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 ① 갑: 국가는 모든 사람의 비자발적인 동의로 성립된다.  
 ②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존재이다.  
 ③ 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법률이다.  
 ④ 을: 자연 상태에는 권위를 가진 공정한 재판관이 존재한다.  
 ⑤ 갑과 을: 국가는 가족으로부터 출발한 자연적 산물이다.

[23015-0118]

0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는 단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같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며, 상호 간에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된다고 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란 그 구성원의 가족들과 씨족들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공동체이며, 그 목적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다.

- ①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중요한 결사체가 국가인가?  
 ② 국가는 구성원들의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가?  
 ③ 인간이 복종해야 하는 국가는 인위적인 산물인가?  
 ④ 정치적 결사인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형성되는가?  
 ⑤ 국가는 가정보다 높은 차원의 자급자족을 이룩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23015-0119]

**05**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실업의 구제나 사회 보장 제도 등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이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나라에서는 경제 공황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

을: 복지 국가에서처럼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국가는 국방, 치안 등과 같은 질서 유지 역할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보기

- ㄱ. 갑은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국가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국가의 개입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본다.
- ㄹ. 갑과 을은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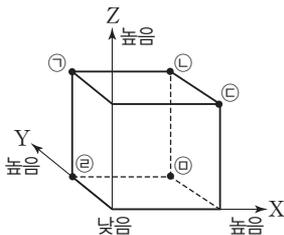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15-0120]

**06**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현대 사회의 문제는 복잡하고 심층적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그 문제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하여 최대 행복을 산출할 것이다.



- X: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정도
- Y: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정도
- Z: 정치 참여는 국민 자치의 원리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5-0121]

**0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희생인이 되고 있다.

보기

- ㄱ. 시민 불복종은 행위의 결과를 근거로 정당화된다.
- ㄴ. 국가의 권위도 개인의 권리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 ㄷ.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것이 될 수 있다.
- ㄹ. 국민으로서 책무보다는 인간으로서 양심이 더 중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5-0122]

**0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그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을: 다수의 결정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거기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타격, 즉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 ② 갑: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한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은 계약론적 관점을 근거로 정당화해야 한다.
- ④ 을: 시민들은 다수결 원칙과 같은 민주적 원리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 ⑤ 갑과 을: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에 대한 호소이므로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23015-0123]

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계약적 동의 행위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국가 권위에 명시적 동의를 아닐지라도 묵시적 동의를 했으므로 복종해야 할 정치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갑

국가 권위가 시민이 동의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필요에 의해 그리고 통치 정부라는 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느끼는 이익 관념에 의해 통치 정부에 복종해야 할 정치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을

- ① 갑: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성립되므로 권위를 지니게 된다.
- ② 갑: 국가와 시민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③ 을: 유용성에 기초하여 통치 정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 ④ 을: 국가 권위는 시민의 명시적 동의의 결과인 법에 따라 정당화된다.
- ⑤ 갑과 을: 국가 권력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분립되어서는 안 된다.

[23015-0124]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이도 일정한 마음[恒心]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가능하다.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이내 일정한 마음이 없어진다.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사치하기를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죄에 빠진 후에야 그에 따라 처벌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질해 잡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어진 정치[仁政]를 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백성을 그물질해 잡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문제 상황>

정책 결정자인 A는 경기 침체로 실직자가 증가하자 실업 급여 대상자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국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회 보장 제도를 축소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② 국가는 근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시민들을 처벌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③ 국가에 의한 경제 개입은 시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④ 국가는 시민들이 부도덕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형벌을 강화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⑤ 국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을 지원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23015-0125]

### 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선택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선택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민민에게 있다.</p> <p>을: 최종적이고 완벽한 결사인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을 이룬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란 성장하는 단계에서 그저 생존만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면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을 이루지 못한다. 반면에 국가가 완전히 성숙하고 나면 좋은 생활을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자급자족한다고 할 수 있다.</p>
(나)	

| 보기 |

- ㄱ. A: 개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없다.  
 ㄴ. A: 계약의 산물인 국가가 시민의 자연권을 침해할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B: 인간은 정당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소유한 존재이다.  
 ㄹ. C: 국가에 대해 복종해야 하는 근거는 인간의 본성에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15-0126]

###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문화 변동으로 새로운 도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쟁점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도덕적 쟁점이 발생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만 심층적인 논의에 참여하게 하여 대안을 모색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의 의견은 공허할 뿐입니다.  
 갑: 아닙니다. 일반 시민의 참여는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여 공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해야 민주적 절차가 담보되어 도덕적 쟁점의 해결 과정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의 참여는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도덕적 쟁점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① 참여는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②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가?  
 ③ 전문 지식인은 도덕적 쟁점의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④ 일반 시민은 도덕적 쟁점의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⑤ 상향식 의사 결정을 통해 도덕적 쟁점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가?



[23015-0129]

##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숨을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정부는 피통치자의 허락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내가 허용해 준 부분 이외에는 나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순수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을: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을 좌절 시킨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불복종은 여러 실험실이나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공중에게 알린다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자신의 생각이 보편적으로 수용될 때 전개할 수 있다.
- ② 갑: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복종보다도 내적 신념을 더 우월하게 여긴다.
- ③ 을: 시민 불복종 행위가 산출하는 손해가 이익보다 커야 정당화 가능하다.
- ④ 을: 시민 불복종에는 비이성 존재에 대한 해악 방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⑤ 갑과 을: 시민 불복종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면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23015-0130]

## 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게 평등한 인간들 간에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예비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 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이나 개인의 양심에 의거해야 정당화 가능하다.
- ② 부정의한 법이라도 일정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따라야 한다.
- ③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개인 신념에 따른 행위이다.
- ④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과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⑤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치인에게 국한해서 행사하는 공개적 호소이다.



# IV

## 과학과 윤리



### EBS 교재 연계 사례

#### 학습 요소

-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 정보 기술의 발달과 정보 윤리
- 정보 사회의 매체 윤리
-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
-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① 이 단원에서는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 뉴 미디어 시대 매체의 특징과 문제점, 뉴 미디어 시대의 매체 윤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 환경 문제의 원인과 특징, 기후 변화의 윤리적 문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7번

### 7 갑 사상이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술은 그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결국 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을: 기술은 은폐되어 존재하는 것을 탈은폐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가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종속되어진다.

- ① 인간의 개입 없이도 기술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기술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기술의 본질을 고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불필요함을 간과한다.
- ④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임을 간과한다.
- ⑤ 기술은 사물의 참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주는 것임을 간과한다.

답 ④

## 09 과학 기술과 윤리

## 10 정보 사회와 윤리

## 11 자연과 윤리

2023학년도 EBS 수능완성 65쪽 04번

## 0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lt;보기&gt;에서 고른 것은?

갑: 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은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목적에 대한 수단에 불과하다.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기술 그 자체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 중립적이며,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과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없다.

을: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 생각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해 하면 우리는 기술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우리가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으며,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된다.

| 보기 |

- ㄱ. 갑: 기술의 사용은 인간 삶의 행복이나 불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ㄴ. 을: 기술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는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ㄷ. 을: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 사실이므로 도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갑, 을: 기술을 활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답 ④

##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 7번 문항은 EBS 수능완성 65쪽 04번 문항의 제시문과 선지의 내용을 활용하면서 야스퍼스의 입장에서 하이데거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을 찾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수능완성 문항의 ㄹ 선지 ‘기술을 활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와 수능 문항의 ③번 선지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불필요함을 간과한다.’는 유사한 내용 요소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예시된 문항은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을 다루는 내용으로, 야스퍼스나 하이데거와 같은 주요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과 관련된 문항은 EBS 교재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주제와 관련된 문항은 수능에 연계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학 기술과 관련된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④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1.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주와 관련된 재화가 대량으로 생산됨</li> <li>• 삶의 각 영역에서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더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됨</li> </ul>
공간적 제약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망의 연결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li> <li>•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됨</li> </ul>
건강 증진과 생명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로 각종 난치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게 됨</li> <li>•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됨</li> </ul>

(2) 과학 기술의 부정적 측면

환경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사고방식을 낳음</li> <li>•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등으로 자원 고갈, 기후 변화, 동식물의 종(種) 감소,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함</li> </ul>
인간의 주체성 약화와 비인간화 현상 초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과학 기술이어야 하는데,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간이 과학 기술에 종속되는 비인간화 현상이 발생함
인권과 사생활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함</li> <li>• 다양한 정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자 판옵티콘 사회나 빅 브라더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li> </ul>
생명의 존엄성 훼손	생명 복제와 유전자 조작 등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으로 인해 생명체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문제가 발생함

※ 전자 판옵티콘

판옵티콘(panopticon)은 벤담이 죄수를 교화할 목적으로 설계한 원형 감옥임. 과학 기술의 발달로 위치 추적 시스템, 감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들의 삶을 감시하는 전자 판옵티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됨

※ 빅 브라더(big brother)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일컫는 말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처음 등장함

개념 체크

- 1 다양한 정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자 ( )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2 ( )은/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 3 ( )은/는 과학 기술의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인 측면을 부각하거나 과학의 합리성 자체를 문제 삼는 입장이다.

정답

- 1 판옵티콘
- 2 과학 기술 지상주의(과학 기술 낙관주의)
- 3 과학 기술 혐오주의(과학 기술 비관주의)

개념 플러스 과학 기술 지상주의와 과학 기술 혐오주의

과학 기술 지상주의 (과학 기술 낙관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과학 기술의 발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li> <li>• 인류가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한 행복과 부를 누릴 것이라고 주장함</li> <li>• 문제점: 과학 기술이 갖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인간의 반성적 사고 능력을 훼손할 수 있음</li> </ul>
과학 기술 혐오주의 (과학 기술 비관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과학 기술의 발전을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li> <li>• 과학 기술의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인 측면을 부각하거나 과학의 합리성 자체를 문제 삼음</li> <li>• 문제점: 과학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과학 기술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여러 가지 혜택과 성과를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li> </ul>

2.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1)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

- ① 과학 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봄
- ②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 논리적 사고를 통해 지식을 얻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고 봄

- ③ 사실을 다루는 과학 기술과 가치를 다루는 윤리는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과학 기술은 윤리적 규제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봄
- ④ 과학 기술을 윤리적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시도는 과학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

**(2)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 ① 과학 기술의 정당화 과정과 달리 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된다고 봄

<b>정당화 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 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때에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됨</li> <li>• 관찰과 실험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 과정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li> </ul>
<b>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활용의 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 기술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으로, 이때에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업의 이익, 사회적 필요,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가치가 개입될 수 있음</li> <li>• 과학자들의 연구가 대부분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공공 연구 기관이나 기업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될 수 있음</li> </ul>

- ② 과학 기술의 자유 또한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당화의 의무와 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봄
- ③ 과학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봄
- ④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자료 플러스** 기술에 대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입장

• 어떠한 분명한 것은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략)**... 기술은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인 것이다. 어떻게 기술이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있다는 말인가? 혹은 어떻게 인간을 포함한 전 지구가 오직 유일한 거대한 공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중략)**... 인간 오성은 그러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서 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그러한 사태란 전체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 야스퍼스, "역사의 기원과 목표" -

•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종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특히 사람들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하기 때문이다. - 하이데거, "기술에 대한 물음" -

야스퍼스에 따르면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다. 단지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에 하이데거는 기술이 단순한 가치 중립적 도구가 아니며,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수단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보게 될 경우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 야스퍼스**

독일의 철학자로, "철학"을 퍼내 '실존 철학'을 체계적으로 전개함. 서구 사회의 기계 문명, 대중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성찰을 강조함

**※ 하이데거**

독일의 실존 철학자로, 그가 실존 사상의 대표자로 간주되는 것은 주요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 부분 때문임. 이 책에 불만, 죽음, 양심 등 실존과 관계된 여러 양태가 서술되어 있음

**개념 체크**

- ① 과학 기술은 ( ) (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은 윤리적 규제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 ② 과학 기술의 ( ) 과정이란 과학 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다.
- ③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 ) 영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정답**
- ① 가치 중립적
  - ② 정당화
  - ③ 독립적

### ❖ 연구 부정행위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	연구 자료나 장비 등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기	연구에 공헌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중요한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 적정 기술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사정에 알맞은 기술적 해법을 제시해 주는 기술. 서구의 첨단 기술이나 거대 기술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술이 진정으로 그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됨

### ❖ 정언 명령

칸트 윤리학에서 행위의 목적이나 결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하는 도덕적 명령

## 개념 체크

- ( )란 과학 기술자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 양식을 말한다.
-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가 참 또는 거짓인지를 밝혀야 하고, 다른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 )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과학 기술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과학 기술자의 ( ) 책임이다.

### 정답

- 1 과학 기술 연구 윤리
- 2 검증
- 3 외적(사회적)

## ❖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 1. 과학 기술자의 책임

#### (1)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

- ①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 연구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데, 과학 기술 연구 윤리란 과학 기술자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 양식을 말함
- ② 과학 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③ 과학 기술자는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하고, 연구 결과를 완전하게 공표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 공로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함
- ④ 과학 기술자는 연구 윤리를 지키며 자신의 연구가 참 또는 거짓인지를 밝혀야 하고, 다른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 ⑤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실험자가 있다면 실험에 대한 동의 절차가 적절했는지 살펴보아야 함

#### (2) 과학 기술자의 외적 책임(사회적 책임)

- ①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②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결과물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폭넓게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함
- ③ 과학 기술자는 적정 기술, 식량 증산 기술, 대체 에너지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함
- ④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활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
- ⑤ 과학 기술자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연구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예상된다면 연구를 중단해야 함

### 2. 요나스의 책임 윤리

#### (1) 책임 윤리의 필요성 제시

- ①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 기술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봄
- ②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윤리학의 책임 개념과는 다른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제시함
- ③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當爲)로 이어져야 한다고 봄

#### (2)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 강조

- ①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함
- ② 칸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하여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 하라.”라는 새로운 생태학적 정언 명령을 제시함
- ③ 우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봄

## 자료 플러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

전통 윤리학의 모든 도덕적 명령과 격률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아무리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바를 그에게 행하라.” …(중략)… “너의 이웃 사람을 언제든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되며, 항상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하라.” 등등. 이 모든 격률에서 행위자와 그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은 현실의 공통적인 참여자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중략)…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대충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부정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 하라.”

— 요나스, “책임의 원천: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

요나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적 세계가 동시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예견될 수 있는 삶의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현대 과학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가 너무나 새롭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윤리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자연과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책임 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기출 플러스 과학 기술에 대한 요나스와 베이컨의 입장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갑: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희망보다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을: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더 나은 지식이 만들어지면 과학 기술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근거이다.

갑은 요나스, 을은 베이컨이다. 요나스가 주장하는 공포의 발견술이란 인간 실존 그 자체에 대한 의무를 선에서 찾기보다 불행한 예언을 적용함으로써 인간이 앞으로 처하게 될 운명을 진단하고 그 예방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베이컨은 기술과 과학 문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적·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베이컨은 과학이 전적으로 유용한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 3. 과학 기술 개발의 사회적 합의와 윤리 의식의 함양

- (1) **사회 제도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과 결과를 평가·감시·통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국가의 각종 윤리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해야 함
- (2) **과학 기술 개발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성찰:** 순천절물(順天節物)의 정신은 자연에 따르고 절도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함께 살아갈 때 생존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함

#### ☞ 기술 영향 평가 제도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

#### 개념 체크

- ① 요나스가 주장하는 ( ) (이)란 인간이 앞으로 처하게 될 운명을 진단하고 그 예방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 ② 베이컨은 ( )이/가 전적으로 유용한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 ③ ( )의 정신은 인간의 이기심과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함께 살아갈 때 생존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 정답

- ① 공포의 발견술
- ② 과학
- ③ 순천절물(順天節物)

[23015-0131]

01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학 기술은 생명을 파괴함으로써 비인간화되었다. 과학 기술은 인간성에 꼭 들어맞는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명을 직접적으로 대량 파괴하는 무기를 만들어 냈다. 또한 과학 기술은 값싼 에너지를 얻게 해 주고 해충을 박멸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편리한 물건을 만들어 내는 등 그 자체로서는 인간의 유익한 목적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과학 기술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까지의 규모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과학 기술은 식량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 ㄴ. 과학 기술은 인간에게 국한해서 영향을 끼친다.
- ㄷ. 과학 기술의 발달은 선악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 ㄹ.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본성 실현에 부합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132]

0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과학에 관한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가) 인류가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한 부와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봄
- (나) 과학 기술의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인 측면을 부각하거나, 과학의 합리성 자체를 문제로 봄

◎ 학생 답안

과학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가)는 ㉠ 과학 기술의 발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 과학 기술이 갖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여 인간의 반성적 사고 능력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나)는 ㉢ 과학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 과학 기술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현실적인 혜택과 성과를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가), (나)는 모두 ㉤ 과학 기술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과학 기술과 윤리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여 생겨난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5-0133]

03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미래 사회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질병과 같은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다. 미래의 위험 관리의 가장 유용한 도구가 과학 기술이다. 과학 기술이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연구 개발의 당위성이 있게 된다.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중요한 것이지, 과학 기술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과학은 인간이 발견한 법칙과 원리이고, 기술은 인간이 고안해 낸 방법이다. 인간 존재와 별개로 원래부터 과학은 존재했겠지만 인간이 과학을 발견하면서 과학에 인간적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컨대 미래 사회의 과학 기술은 인간을 위한 과학 기술이 되어야만 한다.

- ① 과학은 인간이 발견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과학 기술은 인간을 위한 수단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③ 과학 기술을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나 바라보아야 한다.
- ④ 과학 기술과 사회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 ⑤ 과학 기술은 진리 탐구 이외의 목적을 지니지 말아야 한다.

[23015-0134]

0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는 너무나 새롭고, 그 대상과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전통 윤리의 틀로서는 이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 하라.”,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 조건을 위협하지 말라.”

- ①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도 중요한가?
- ② 책임의 범위를 이성적인 존재로 제한해야 하는가?
- ③ 책임에 대한 명령은 조건 명령의 형태로 부과되는가?
- ④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성인가?
- ⑤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연에 대한 책임으로 대체해야 하는가?

[23015-0135]

**05** 다음 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절도에 맞도록 생활해야 한다. 하늘 아래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유지하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즉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인간은 자연의 생성, 변화, 발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 상황>

대규모의 농작물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지만 곤충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충제를 발명한 과학자 A는 이 살충제를 이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 ① 물질적 욕구를 절제하며 자연과 공존을 추구하세요.
- ② 자연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적 성과를 사용하세요.
- ③ 인간과 자연은 서로 독립적임을 고려해서 판단하세요.
- ④ 인간의 이익을 생태계 질서보다 우선해서 결정하세요.
- ⑤ 농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과학적 성과를 사용하세요.

[23015-0136]

**0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보기

- ㄱ. 과학과 기술은 단순한 도구적인 것에 불과하다.
- ㄴ. 인간은 기술의 발달에 종속되어 성장해야 한다.
- ㄷ. 기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ㄹ. 기술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5-0137]

**0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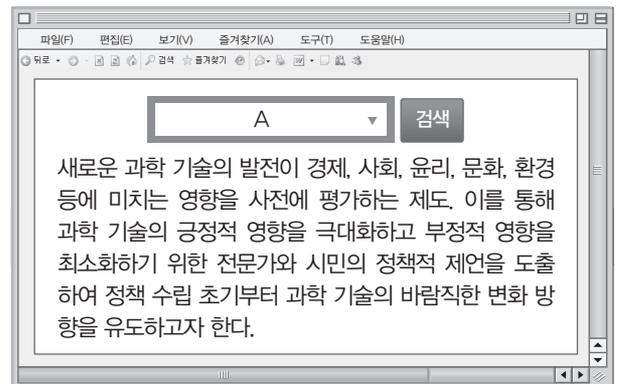
갑: 과학자는 그 성격상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과학 기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분야보다 연구 과정이 윤리적 문제에 맞닿아 있다. 그래서 과학자는 연구 과정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도 윤리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과학자에게 연구 성과도 중요하지만 성과 자체만큼이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의 진실성과 공정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을: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따라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발견하고 평가하는 데 가장 먼저 참여해야 한다. 과학자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현재 과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 ① 갑: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도덕규범을 따라야 한다.
- ② 갑: 과학자는 참과 거짓의 탐구를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③ 을: 과학자의 연구 과정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롭다.
- ④ 을: 과학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 ⑤ 갑과 을: 과학자에게는 연구 과정에 대한 내적 책임이 있다.

[23015-0138]

**08** 그림은 A에 대한 인터넷 검색 화면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기술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한다.
- ② 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 ③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 ④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⑤ 신기술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갖고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다.

[23015-0139]

1 다음 토론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과학 기술은 유전 공학이나 컴퓨터 공학 등을 발달시켜 인간이 질병이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물질적인 발전과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줍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당면 과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입니다.</p>	<p>아닙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새로운 기술의 소유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부의 불평등, 생태계의 파괴, 정치권력에 의한 기술 남용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현재 인류의 모든 문제는 과학 기술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p>
<p>1 갑 을</p> 	<p>2 갑 을</p> 
<p>그렇다고 과학 기술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과학 기술을 개발해 대안을 마련하여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p>	<p>그렇다면 당신은 ㉠은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p>
<p>3 갑 을</p> 	<p>4 갑 을</p> 

- 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분배의 형평성이 보장된다
- ② 과학 기술의 힘 없이는 식량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③ 과학 기술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불필요하다
- ④ 과학 기술로 인해 인류가 풍요로운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 ⑤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해악이 될 수 있다

[23015-0140]

2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과학자는 자기에게서 비롯된 영향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과학자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과학자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중 하나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과학자의 선행을 공로로 인정한다는 것은 해악에 대한 책임도 감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응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므로, 그 오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과학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외적 책임을 가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② 과학 연구의 성과는 항상 사회에 대한 봉사로 이어짐을 간과한다
- ③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간과한다
- ④ 과학 연구의 결과는 오직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됨을 간과한다
- ⑤ 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유일한 사용자는 과학자임을 강조한다

[23015-0141]

### 3 다음 글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 기술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인간의 동기에 따라서 선악 어느 쪽으로도 가려 쓸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떠한 과학 기술에도 반드시 폐해나 부작용이 수반되게 마련이며 완벽히 좋은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 기술이 진보하면 반드시 자연 파괴도 진행되므로 과학 기술의 진보 그 자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도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기술 개발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같은 것은 자연 파괴를 막는 데 불가결한 과학 기술에 해당한다. 과학 기술 개발 그 자체를 정지시키라는 것은 전 세계의 인류에게 야생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 ① 과학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② 과학 기술은 인간의 가치 판단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도구이다.
- ③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멈춰야 한다.
- ④ 과학 기술의 진보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기술이 등장할 수 있다.
- ⑤ 과학 기술 발달과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

[23015-0142]

### 4 같은 긍정, 음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과학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는 과학 기술자의 존재적 조건과 직결되어 있다. 의사나 변호사에게 ‘고객에 대한 성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그것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고객이 치료나 변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나 변호사의 경우처럼 자신의 노동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고객으로 간주한다면 과학 기술자의 고객은 고용주가 된다. 과학 기술자에게 고객은 고용주이며, 과학 기술자는 고용주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고용주의 요구가 사회적 이해관계와 상충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을: 과학 기술의 영향력은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많은 과학 기술 활동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과학 기술자의 고객이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며 과학 기술자는 고용주에 대한 의무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과학 기술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양심적으로 선택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가 도덕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생각되는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

- ① 과학 기술자는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가?
- ② 과학 기술자는 고용주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하며 연구에 임해야 하는가?
- ③ 과학 기술자는 고용주에 대한 의무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해야 하는가?
- ④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가?
- ⑤ 과학 기술자는 자신이 담당하게 되는 연구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가?





### ◎ 정보 자기 결정권

자신의 개인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얼마 동안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인지 등에 관해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알고 정당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념 체크

-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 )이 확대되었다.
- ( )문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말한다.
- ( )이란 개인 정보를 비롯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정답

- 정치 참여 기회 또는 표현의 자유
- 사생활 침해
- 잊힐 권리

## ④ 정보 기술 발달과 정보 윤리

### 1. 정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

#### (1)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긍정적 변화

- 삶의 편리성 증대: 일상적인 업무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음
- 수평적·다원적 사회 변화: 정보 기술의 발달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됨
- 전문적 지식의 습득 기회 확대: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를 인터넷 검색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전 세계의 예술이나 풍습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접해 봄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음

#### (2)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부정적 변화

-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 증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짐
- 기술에 대한 의존성 증가: 정보 통신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빠져 비판적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는 경우가 증가함
- 다양한 윤리적 문제 발생: 불법 복제, 표절,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2.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

#### (1) 사생활 침해 문제

- 컴퓨터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도용되는 문제가 발생함
- 사생활 침해 문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말함
-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 정보가 악용되어 개인이 통제·억압당할 경우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보의 유통 과정 전체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결정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잊힐 권리'가 강조되고 있음

### 개념 플러스 잊힐 권리

잊힐 권리란 개인 정보를 비롯하여 자신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호회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간 등에서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에 대해 후회하더라도 글을 지우거나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이지만, 점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검색 서비스 사업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혹은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 저작권 문제

- ① 저작권법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② 저작권을 둘러싸고 지적 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재산권과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산물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봄</li> <li>•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높이고 더 많은 지적 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봄</li> <li>• 창작자에게 정보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li> </ul>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저작물은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구성된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봄</li> <li>• 저작물에 관한 과도한 권리 행사는 새로운 창작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발생시킨다고 봄</li> <li>• 창작자의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저작물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li> </ul>

(3) 사이버 폭력 문제

- ① 사이버 폭력의 의미: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글이나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
- ② 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 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 ③ 사이버 폭력의 특징
  -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정보의 복제와 유포가 쉬워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됨
  - 한번 유포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회수하기 어려워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됨
  -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폭력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쉬움

(4) 표현의 자유 문제

- ①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의 토대가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바탕이 됨
- ② 표현의 자유는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
- ③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함

**개념 플러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간의 갈등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격권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모든 자유권의 출발점이 된다. 반대로 개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저작권

지식 재산권 중에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정보 격차

교육, 소득 수준, 성별, 지역 등의 차이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차이가 생기고, 그 결과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

개념 체크

- 1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 )을/를 보장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높이고 더 많은 지적 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본다.
- 2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저작물을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구성된 ( )이라고 본다.
- 3 ( )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글이나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정답

- 1 경제적 이익
- 2 공공재
- 3 사이버 폭력

❶ 피싱(phishing)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해 위장된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한 뒤 인터넷 이용자들의 금융 정보 등을 빼내는 것

❷ 파밍(pharming)

사용자가 자신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확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 정보를 훔치는 것

개념 체크

- 정보 사회에 필요한 정보 윤리 중 ( )이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유출,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 )은/는 기존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 매체를 의미한다.
- 뉴 미디어의 특징 중에서 ( )은/는 뉴 미디어가 정보 교환에서 송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답

- 해약 금지
- 뉴 미디어
- 비동시화

3. 정보 사회에 필요한 정보 윤리

존중	사이버 공간에서는 타인의 인격과 사생활,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존중해야 함
책임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삼가고, 정보가 자유롭게 제작, 유통되므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함
정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함
해약 금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유출, 피싱과 파밍,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됨

❸ 정보 사회의 매체 윤리

1. 뉴 미디어 시대의 매체의 특징과 문제점

(1) 뉴 미디어의 특징

① 매체와 뉴 미디어의 의미

매체 (media)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신문이나 서적 등의 인쇄 매체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 등이 있음
뉴 미디어 (new media)	기존의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 매체를 의미함

② 뉴 미디어의 특징

상호 작용화	송수신자 사이에 쌍방향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음
비동시화	정보 교환에서 송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함
탈대중화	대규모 집단에 획일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음
능동화	정보를 발견하는 동시에 취합·공개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이용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
종합화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어 멀티미디어화됨

(2) 뉴 미디어의 문제점

정보의 객관성 문제	•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뉴 미디어의 정보는 기존 매체 수준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뉴 미디어의 정보가 객관성을 지니는지를 점검할 감시 장치가 기존 매체에 비해 부족함 • 뉴 미디어가 전달하는 부정확한 정보가 빠른 확산력과 결합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
책임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특정 저작물을 여러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정보가 분산되어 존재하며, 그 결과 책임도 분산되어 윤리적 책임 의식이 약화될 수 있음
사적 정보 노출의 문제	매체가 발달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

2. 뉴 미디어 시대의 매체 윤리

(1) 개인 정보의 신중한 처리

- 뉴 미디어를 통한 개인 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②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

## (2) 표절 금지

- ①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기사들이 동시에 다양한 언론사의 이름을 달고 게재되는 사례가 있음
- ② 표절 행위는 기사 작성자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뉴 미디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림

## (3) 상호 간의 소통과 시민 의식 함양

- ①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교류함으로써 공동으로 체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야 함
- ② 매체 이용자들은 규범의 준수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시민 의식 등을 포함한 윤리적 태도를 갖추어야 함

## (4) 매체 이해력 습득

- ① 매체 이해력이란 매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서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고도 함
- ② 뉴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 중에는 거짓 정보도 있는데, 이러한 거짓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뉴 미디어상에 유포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③ 매체 이용자들은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조합하는 능력도 길러야 함

### 개념 플러스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사회에서 매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을 말한다. 포괄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분석하며 평가하여 발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해서는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이 특히 요구된다. 즉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이를 새롭게 가공·편집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과 지식을 공유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 기출 플러스 뉴 미디어 시대의 매체 윤리

[2022학년도 수능]

인터넷을 활용한 뉴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정보의 소비뿐 아니라 유통과 생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허위 정보 내지 유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을 숨겨도 IP 추적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가 밝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활동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야 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으로 나타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삼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개념 체크

- ① 시민의 ( )을/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② ( )은/는 기사 작성자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뉴 미디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 ③ ( )이란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어 내면서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다.

#### 정답

- ① 알 권리  
② 표절 행위  
③ 매체 이해력

[23015-0147]

01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정보 기술의 발달에 관한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가) 정보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이 게시판 댓글이나 SNS를 통해 사회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청원이나 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나)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 정보가 악용되어 개인이 통제, 억압당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다.

㉡ 학생 답안

정보 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가)는 ㉠ 사람들의 사회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나)는 ㉡ 정치 참여의 공간적 제약이 약화되어 참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지만, ㉣ 사생활의 침해, 개인 정보 유출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가)와 (나)는 모두 ㉣ 정보 기술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사회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5-0148]

02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나 정보가 사라지도록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이른바 휘발성 SNS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휘발성 SNS는 기존 SNS보다 익명성을 더욱 보장하며, 가치 없는 데이터의 축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디지털 흔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휘발성 SNS는

㉠

보기

- ㄱ.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 ㄴ. 익명성 보장으로 허위 정보를 증가시킬 수 있다.
- ㄷ. 사이버 범죄의 증거 수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ㄹ. 개인의 잊힐 권리에 대한 보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149]

03 다음은 가상 인터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문가: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를 해석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데, 정보 격차가 발생하여 빈부 격차와 불평등 등의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보 격차의 발생 원인에는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에 대한 욕구의 차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뉴 미디어 산업 등이 있습니다.

기 자: 그렇다면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기

- ㄱ. 정보를 시장의 논리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 ㄴ. 공공성을 전제로 하여 정보를 생산해야 합니다.
- ㄷ. 정보의 유용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ㄹ. 정보 기기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방법을 획일화해야 합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150]

04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자연이 제공한 것에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섞음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 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동된 권리가 배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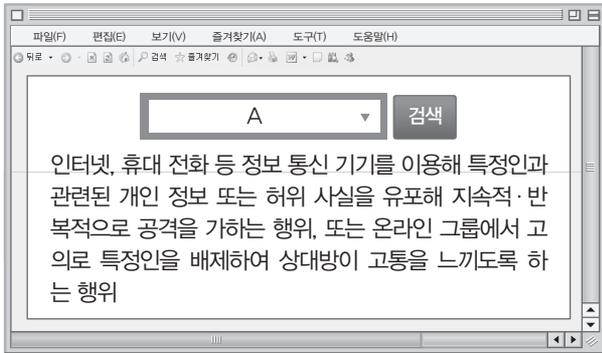
<문제 상황>

프로그래머인 A는 전염병 확산 상황을 알 수 있는 앱을 개발하였다. A는 전염병 확산 상황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지, 개발에 쏟은 노력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제공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 ① 창작물에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② 창작물을 공유할수록 질적 향상이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③ 창작물은 창작자의 배타적인 사유 재산임을 명심하세요.
- ④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폐지하여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⑤ 창작물은 정신노동의 산물이므로 대가 없이 이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23015-0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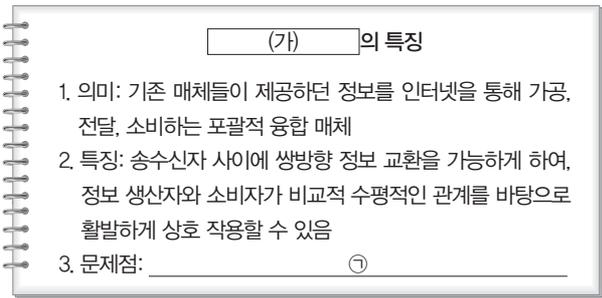
**05** 그림은 A에 대한 인터넷 검색 화면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
- ② 정보 복제와 유포가 쉬워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된다.
- ③ 잊힐 권리를 이용하여 개인 피해를 쉽게 예방할 수 있다.
- ④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울 수 있다.
- ⑤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준다.

[23015-0152]

**06** 그림은 노트 필기 내용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정보 생산자와 이용자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 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과장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
- ㄷ. 정보의 유통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 ㄹ.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5-0153]

**0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뉴 미디어와 정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수평적·다원적 사회로 변화되고, 인터넷 공간의 등장으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을: 뉴 미디어가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라 말한다. 하지만 목소리가 큰 뉴 미디어의 권력자들이 뉴 미디어를 지배하는 현상과 국가 권력에 의해 정보가 통제되는 사례를 보면, 뉴 미디어가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 ① 갑: 정보 기술의 발달로 참정권의 보장이 확대된다.
- ② 갑: 인터넷에서 의제 설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③ 을: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 ④ 을: 사이버 공간은 수평적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갑과 을: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 참여의 방법이 존재한다.

[23015-0154]

**08**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알고리즘의 발달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계속해서 찾고, 싫은 것은 멀리하게 되는 현상이 심해지게 되었다. 편식이 영양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비만과 성인병의 가능성을 높이듯, 정보의 편식으로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야 한다.

보기

- ㄱ.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한가?
- 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은 사이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ㄷ.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하는가?
- ㄹ.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생산자가 아닌 정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5-0155]

1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

**칼럼**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이다. 정보 사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인간의 책임성이 중시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보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철학자들에 의해 행해져 왔던 기존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책임 없음’ 혹은 면책의 조건을 밝히는 데에만 집중되어 왔다. 적극적인 도덕적 의미의 책임에 대한 설명은 늘 뒷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정보 사회에서는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책임 개념이 요청된다. 컴퓨터가 잘못 작동되어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그 사고의 책임을 단순히 컴퓨터의 오작동으로만 여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확대되고 더 포괄적인 책임 개념을 필요로 한다. 확대된 책임 개념에는 자신이 만든 정보 기술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급적 책임과 함께 예상적 책임을 포함해야 한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이전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견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러한 유형의 책임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말미암아 정보 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 ① 정보 생산자는 창작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② 정보 생산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면책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 ③ 정보 생산자는 창작물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정보 생산자에게 책임성을 강조하면 정보 사회의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 ⑤ 정보 생산자가 이행해야 하는 책임의 종류는 사후적 책임으로 국한해야 한다.

[23015-0156]

2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윤 추구의 동기 없이 양질의 소프트웨어는 개발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상품화와 정보 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해 많은 저작권의 엄격한 보호를 정보 사회의 전제 조건으로 삼으면서 보호 범위의 확대를 추구해야 합니다.

을: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전달받았다고 해서 나의 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인류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문화의 평등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방식에서도 상업적 활용이 아닌 문화적 접근에 우위를 두어야 합니다.

- ① 저작권의 사회성과 공유적 성격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② 정보 생산자보다 정보 이용자의 권리를 우선해야 하는가?
- ③ 정보를 공공재로 보고 저작권의 보호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가?
- ④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가?
- ⑤ 양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정보 생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는가?





[23015-0161]

## 7 ㉠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교환되고 재생된다. 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보고 즐기며 의견을 남기고 또 다른 곳으로 퍼 나르기도 한다.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과 비슷하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은 관중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기를 검투사가 펼친다면 거수를 통해 검투사를 죽일 수도 있다. 관중들이 순간의 광기에 휩싸여 내리는 선택에 따라 누군가는 죽게 된다. 그 광기는 오늘날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나타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신상 털기'이다. 개인은 신상 털기로 사회적으로 사형을 선고받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신상 털기와 같은 개인 정보 유출은

㉠

- 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 ② 개인의 정보에 대해 합당한 비밀이 유지되기 어렵게 만든다.
- ③ 현실 세계와 같은 사생활 존중의 원리에 따라 예방되어야 한다.
- ④ 악의적으로 이용되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다.
- ⑤ 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제약 없이 노출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23015-0162]

## 8 다음 글에서 지지할 견해만을 &lt;보기&gt;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오늘날 정보 기술은 접촉의 수단, 소통의 수단을 증가시킴으로써 세계화를 도래하게 하였다. 정보 기술은 병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의 환자들을 돌보는 데 기여하였고, 기상 정보 데이터를 전 세계의 농부들에게 보냄으로써 자연적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보 기술은 미디어 세계를 변화시켰다. 신문은 원거리에서 작성, 편집, 인쇄되고 각기 다른 주요 지역에 맞춰 동일 신문의 동시 편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 기술은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침해, 해킹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정보 기술은 선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악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세련된 도구이다. 그러므로 정보 사회에서 세련된 도구 사용자들은 도구 사용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 기술은 인류에 대한 경외적이고 위압적인 의무와 책임감을 공유하고 알게 하는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 보기 |

- ㄱ. 정보 기술의 발달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교류할 수 있다.
- ㄴ. 정보의 해악성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한다.
- ㄷ. 정보 기술은 인간의 목적에 종속되는 수단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 ㄹ.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는 수직적 관계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④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

#### 1. 자연을 바라보는 서양의 관점

##### (1) 인간 중심주의

- ① 도덕적 지위를 지닌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며, 모든 자연 대상을 오직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 ②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 존재의 가치를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정하는 도구적 자연관의 성격을 지님
- ③ 인간만이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며, 동물이나 식물 등 인간이 아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
- ④ 인간 중심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 긍정적 측면: 자연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함
  - 한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며,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됨
- ⑤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와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 지상주의적 태도와 이성 중심적 사고는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를 형성함</li> <li>• 자연에 대한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 관점은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도구적 자연관을 강화함</li> <li>• 도구적 자연관을 지닌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자연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가속화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세대를 포함한 인류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li> <li>• 인간을 다른 존재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함</li> <li>•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에 비해 자연에 대한 존중과 책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자연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li> </ul>

##### (2) 대표적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며, 모든 동물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봄
아퀴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봄</li> <li>•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 어린 감정을 나타낸다면, 그는 그만큼 더 동료 인간들에게 동정심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함</li> </ul>
베이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힘은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얻는 지식을 통해 생겨난다고 봄</li> <li>• 자연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자연에 관한 지식의 활용을 강조함</li> </ul>
데카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분법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설정함</li> <li>• 인간의 정신을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본 반면, 자연을 단순한 물질 또는 기계로 파악함으로써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함</li> </ul>
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성적 존재만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성이 결여된 동물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li> <li>•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고 주장함</li> <li>•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함</li> <li>•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봄</li> </ul>

#### ※ 아퀴나스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신학대전"을 집필함

#### ※ 베이컨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로, 저서 "뉴 아틀란티스"에서 인간의 편안한 삶과 안락함을 위해 자연 과학적 탐구를 강조함

#### ※ 데카르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합리론을 주창한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림

#### ※ 이분법적 세계관

정신 대 육체, 인간 대 자연, 남자 대 여자 등과 같이 세계를 두 개의 서로 배척되는 개체로 인식하는 것

### 개념 체크

- 1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 존재의 가치를 오직 인간을 위한 ( )으로 간주한다.
- 2 데카르트는 자연을 단순한 물질 또는 ( )으로 파악하였다.
- 3 칸트는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 )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정답

- 1 수단
- 2 기계
- 3 의무

(2) 동물 중심주의

- ①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봄
- ②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동물의 복지와 권리의 향상을 강조함
- ③ 동물 중심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 긍정적 측면: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 학대와 동물 실험 등 동물에 대한 비도덕적 관행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
  - 한계: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할 때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물 이외의 식물,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님
- ④ 대표적 사상가

싱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리주의 입장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함</li> <li>•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단지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종 차별주의라고 비판함</li> </ul>
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론에 기초하여 내재적 가치를 갖는 개체들은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li> <li>• 일부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li> </ul>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 종(種) 차별주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은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은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

❖ 내재적 가치

인간의 경험적 좋음이나 평가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갖는 가치

자료 플러스 싱어와 레건의 동물 중심주의

- 나는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피하였다. 물론 다른 동물에게 친절할 경우 인간에게도 친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것이 예컨대 아퀴나스와 칸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하는 참된 이유라면, 이는 전적으로 종 차별주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동물이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 싱어, "동물 해방" -
-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해 미래에 대한 의식, 쾌락과 고통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즉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 관심,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순간의 시간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타자와는 별개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 레건, "동물의 권리" -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이익 관심을 지니며, 모든 이익 관심은 평등하게 고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건은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인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moral patients)이지만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이들을 단순한 도구로 여기거나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3) 생명 중심주의

- ①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봄
- ②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은 생명이며, 인간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라는 점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봄
- ③ 생명 중심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 긍정적 측면: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일깨워 줌
  - 한계: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낮으며,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무생물을 고려하지 못함

개념 체크

- 1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 )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 2 레건은 ( )에 기초하여 내재적 가치를 갖는 삶의 주체들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3 생명 중심주의는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 )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답

- 1 이익 평등 고려
- 2 의무론
- 3 무생물

◎ 생명 외경

생명의 신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지극히 소중히 하는 태도

◎ 개체론

개체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 윤리 이론.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가 여기에 해당함

◎ 전일론

전체로서 자연환경, 종과 생태계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 윤리 이론. 생태 중심주의가 여기에 해당함

개념 체크

- 1 슈바이처는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은 ( )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은 악이라고 보았다.
- 2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 )이라고 보았다.
- 3 테일러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떤 생명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 )을/를 제시하였다.

정답

- 1 선
- 2 목적론적 삶의 중심
- 3 악행 금지의 의무(불침해의 의무)

④ 대표적 사상가

슈바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 외경(畏敬) 사상을 제시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강조함</li> <li>•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은 선(善)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은 악(惡)이라고 봄</li> <li>•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쳐야 하는 선택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선택에는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함</li> </ul>
테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유기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봄</li> <li>• 다른 생명체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인 것과 동일한 의미와 조건으로 인간도 그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며,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봄</li> </ul>

자료 플러스 슈바이처와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

- 생명 외경은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어느 동물을 손상시켰다면 그 일이 필요 불가결한 일이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백해야 한다. 나는 피할 수 없는 일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중략)… 얻어 낸 결과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하여 동물을 수술하고 약을 주고 병균을 주사하는 사람은 이 잔인한 행위가 가치 있는 목적을 수반한다고 일반적으로 유유자적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인류를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이 실제로 필요 불가결한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슈바이처, "문화와 윤리" -
- 우리가 생명 중심 관점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관점에서 자연계와 생명을 볼 때, 우리는 각 생명체의 매 순간 존재를 예리하고 명확하게 인식한다. 특정 유기체에 주의를 집중하면 우리가 개체로서 그 유기체와 공유하는 어떤 특징이 드러난다.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체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그들의 행동과 내적 과정은 그들의 선의 실현을 중심으로 어떤 경향성을 끊임없이 형성한다. 우리의 선의 내용과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수단이 그들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에서 실증되는 목적론적 질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근본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

슈바이처는 생명이 그 자체로 선이며 본래적 가치를 지니므로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이 불가피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의 선을 지닌다고 보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념 플러스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

- 악행 금지의 의무(불침해의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떤 생명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함
- 불간섭의 의무: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함
- 성실의 의무(신의를 의무):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야생 동물을 사냥, 낚시하거나 밧을 놓는 등의 기만행위를 금지해야 함
-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함

(4) 생태 중심주의

- 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함
- ②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나 생명 중심주의 윤리가 개체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두는 개체론의 성격을 지닌다고 비판하면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개별 생명체가 아닌 생태계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전체론 혹은 전일론적 입장을 취함

③ 생태 중심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 긍정적 측면: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
- 한계: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 개별 구성원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한계를 지님

④ 대표적 사상가

레오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토양, 물 등이 균집해 있는 대지도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지 윤리를 주장함</li> <li>• 대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가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이며, 인간은 대지의 지배자가 아니라 한 구성원일 뿐이라고 봄</li> <li>• 생태계, 즉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봄</li> </ul>
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중심주의적 환경 보호 운동을 비판하고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 심층 생태주의를 주장함</li> <li>•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큰 자아실현'과 모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생명 중심적 평등'을 제시함</li> </ul>

자료 플러스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

대지 윤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식물과 동물, 곤 포괄하여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 (중략) ... 간단히 말해서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 -

레오폴드는 대지를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간 중심주의 윤리와 달리 수많은 존재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파악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료 플러스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

우리에게 환경 윤리가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 이타적으로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심지어 희생까지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생태에 역효과를 낳을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보다 넓은 관점인 동일시를 통하면, 환경 보호 덕분에 자기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깊어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 네스 외, "산처럼 생각하라" -

네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관점을 거부하고 전체 관계를 중요시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료 플러스 심층 생태주의의 기본 원리(강령)

1.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의 변역은 그 자체로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의 가치는 인간에게 유용한가의 여부와는 별개이다.
2.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삶이 번성하는데 이바지한다.

- 데이비드 로텐버그, "생각하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가요?" -

❖ 큰 자아

자연과 함께 있는 자아를 말하며, 큰 자아실현은 자기를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함

❖ 생명 중심적 평등

생명 공동체 내 모든 생명체는 유기적 관계에서 평등한 가치를 지님

개념 체크

- 1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 개별 구성원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 ) (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 2 레오폴드는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토양, 물 등이 균집해 있는 대지도 ( ) 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지 윤리를 주장하였다.
- 3 네스는 모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 ) 을/를 제시하였다.

정답

- 1 환경 파시즘
- 2 도덕 공동체
- 3 생명 중심적 평등

### ◎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유교의 개념

### ◎ 인드라마

불법(佛法)을 지키는 수호신인 제석천(帝釋天)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그물망. 그물코에 걸려 있는 구슬들은 서로 의존하여 빛을 내는데, 이것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얽혀 있는 연기(緣起)를 상징함

### ◎ 무위자연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도가의 개념

## 개념 체크

- 1 유교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을 ( )으로 해석하며,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 2 불교에서는 불살생의 계율에 따른 ( ) 사상을 제시한다.
- 3 도가에서는 ( )을/를 추구하며, 인간의 인위적인 의지나 욕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중시한다.

### 정답

- 1 도덕적
- 2 생명 존중
- 3 무위자연

## 2.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의 관점

### (1) 유교의 관점

- ① 만물이 본래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지향함
- ② 하늘과 땅은 서로 느끼고 상응하며 맞물리면서 끊임없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존재라고 하여 자연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봄
- ③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며,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봄

### (2) 불교의 관점

- ①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연기론을 주장하면서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함
- ② 연기적 세계관에서는 그물의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어 주기에 빛이 나는 인드라마처럼 우주와 인간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곧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봄
- ③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에 따른 생명 존중 사상과 무소유의 가르침에 나타난 검약 정신 등은 환경친화적 사상을 갖는 데 도움을 줌

### (3) 도가의 관점

- ① 자연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서 무목적의 질서를 담고 있다고 봄
- ②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추구하며 인간의 인위적인 의지나 욕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중시함
- ③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함

## 자료 플러스 동양 사상의 자연관

- 군자는 만물(금수초목)을 아끼지만 인애(仁愛)하지는 않고, 백성들을 인애하지만 친애(親愛)하지는 않는다. 부모를 친애하고 백성들을 인애하며, 백성들을 인애하고 만물(금수초목)을 사랑한다. - “맹자” -
- 온갖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늘, 그들을 잡아서 먹거나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다. 모든 땅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온기와 존재는 다 나의 본래 몸이다. - “범망경” -
- 스스로의 덕을 소중히 품고 화합의 마음을 키우며 천지자연 따르는 자를 진인(真人)이라고 한다. 눈에 비치는 대로 사물을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되 본심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자는 그 마음이 무심하여 바깥처럼 평탄하고 그 변화는 모두 자연을 따르고 있어서 사물에 거역하는 일이 없다. - “장자” -

유교에서는 하늘을 인간의 선한 본성의 근원으로 보고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불교에서는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만물의 상호 의존성에서 비롯된 사랑인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도가에서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

## ④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 1. 환경 문제의 원인과 특징

#### (1) 환경 문제의 원인

- ① 자연을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도구적 자연관을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② 산업화와 도시화로 토양, 물, 대기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무분별한 개발과 남획으로 자원 고갈,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생태계 파괴가 발생함

#### (2) 환경 문제의 특징

- ①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
- ②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초국가적 성격을 지님
- ③ 다양한 원인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움
- ④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다시 회복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⑤ 현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연결됨

### 2. 기후 변화의 윤리적 문제

#### (1) 기후 변화의 원인과 문제점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변화란 자연적 요인 또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장기적으로 기후가 변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지구 온난화임</li> <li>•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작용으로 지구 표면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인데,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와 산림 파괴 등으로 온실가스가 급증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음</li> </ul>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수, 가뭄,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li> <li>• 농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식량난이 발생하고 있음</li> <li>• 생태계가 교란되며 새로운 질병이 유행하기도 함</li> <li>• 해수면이 상승하여 저지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음</li> </ul>

#### (2) 기후 정의

- ① 기후 정의란 기후 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로, 기후 변화 문제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봄
- ② 기후 변화의 피해는 기후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끼친 개발 도상국과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후 정의의 문제가 제기됨
- ③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어린이, 노동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이 받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3)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기후 변화 협약 (1992)	세계 각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함
교토 의정서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변화 협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토 의정서를 마련함</li> <li>•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설정하고,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함</li> </ul>
파리 협정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에까지 확대 적용함</li> <li>• 개발 도상국에 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함</li> </ul>

#### ④ 도구적 자연관

자연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간주하는 관점

#### ④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 속에 있으면서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이산화 탄소, 메탄, 프레온 등을 말함

### 개념 체크

- ① 자연을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 ) 을/를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② ( )이란 자연적 요인 또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장기적으로 기후가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 ③ 파리 협정은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선진국뿐만 아니라 ( )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 정답

- ① 도구적 자연관
- ② 기후 변화
- ③ 개발 도상국

**개념 플러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마다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이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나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를 환경 문제에 도입함으로써 돈만 지불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게 할 우려가 있다.

☉ 생물 다양성 협약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협약으로,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채택됨

☉ 녹색 기후 기금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

**개념 체크**

- 1 요나스는 인류 존속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현세대가 가진 책임은 일차적으로 ( )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2 나딩스는 우리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가치 있는 행동으로서 ( )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 )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방식이다.

**정답**

- 1 미래 세대
- 2 배려 윤리
- 3 현세대

**3.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1) 환경 문제와 미래 세대의 생존

- ①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생존 및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 ② 기후 변화, 환경 오염이 지속되면 미래 세대는 깨끗한 환경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없음
- ③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온전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해야 함
- ④ 인류는 하나의 연속적 세대로 이루어진 도덕 공동체이며, 어느 세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인 자연환경을 남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2)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배려의 윤리

<b>요나스의 책임 윤리</b>	인류 존속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현세대가 가진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b>나딩스의 배려 윤리</b>	우리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가치 있는 행동으로서 배려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4.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1) 환경 보전과 개발에 대한 논쟁

① 개발론과 보전론의 입장

<b>개발론</b>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지니며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자연 개발을 주장함
<b>보전론</b>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과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큰 이익이라는 점에서 자연 보전을 주장함

② 개발과 보전 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등장함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b>의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방식임</li> <li>• 생태 지속 가능성의 범위에서 환경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개발과 보전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li> </ul>
<b>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차원: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친환경적 소비를 생활화해야 함</li> <li>• 국가적 차원: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법을 엄격히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확대해야 함</li> <li>• 국제적 차원: 파리 협정, 람사르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과 같은 국가 간 합의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녹색 기후 기금 등과 같은 제도나 기구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함</li> </ul>

[23015-0163]

0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 중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한 한갓된 파괴의 성벽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덕성을 매우 촉진하는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절멸시키기 때문이다.

- ① 자연의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 ②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③ 이성적 존재만이 직접적인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 ④ 자연물 파괴 행위를 삼가야 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⑤ 동물에 대한 동정심은 인간의 도덕성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23015-0164]

0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동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서 당연하게 인간에 의해 이용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을 죽이거나 혹은 어떤 다른 식으로 이용함에 있어 부정을 저지른다고 볼 수 없다.

을: 적어도 어떤 포유동물은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특성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이들 동물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정의는 우리가 삶의 주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보기

- ㄱ. 갑: 사고할 수 있는 영혼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ㄴ. 을: 삶의 주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 ㄷ. 을: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 ㄹ. 갑과 을: 인간 중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부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165]

0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일 어떤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 같은 고통을 고려하지 않아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 존재가 어떤 성질을 가졌든 간에, 평등의 원칙은 그 존재의 고통을 대략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존재의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볼 것을 요청한다.

- ① 인간과 동물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가?
- ② 이성적 사유 능력이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인가?
- ③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 ④ 인간과 동물이 선호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은 다를 수 있는가?
- ⑤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가?

[23015-0166]

0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 이외의 지구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의무의 근거는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지위이다. 그들은 본성 자체에 의해 그들에게 속하는 일종의 가치를 지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마치 인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방식은 잘못이다. 그들의 선이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이다.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보기

- ㄱ. 자연의 모든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 ㄴ.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 ㄷ. 인간은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 ㄹ. 생명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나온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167]

0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대지를 우리가 소유한 상품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남용하고 있다. 대지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대지를 사랑과 존중으로써 이용하게 될 것이다. 대지가 공동체라는 것은 생태학의 기초 개념이지만, 대지가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 문제이다. 대지 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을 포괄하는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 ① 개별 생명체의 보존이 생태계의 안정성보다 중요하다.
- ②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과 공동체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 ③ 인간은 관리자로서 생명 공동체를 보전하고 다스려야 한다.
- ④ 대지와 그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인간의 재산에 불과하다.
- ⑤ 자연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3015-0168]

06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하늘이 사람에게 명한 것을 일러 성(性)이라 하고, 이 성에 따르는 것을 일러 도(道)라고 하며, 이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교(教)라고 한다.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나) 도(道)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임금도 크다.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본받는다.

- ① (가): 자연은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이다.
- ② (가): 인간은 하늘을 본받아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
- ③ (나): 하늘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근원이다.
- ④ (나):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여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
- ⑤ (가)와 (나): 연기(緣起)를 깨달아 만물을 사랑해야 한다.

[23015-0169]

07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후 변화를 초래한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기후 변화의 피해를 입거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후 변화의 책임이 가장 작은 가난한 나라와 그곳에 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으며, 기후 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으면서 기후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기후 부정의를 야기하고 있다. 기후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선진국은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개발 도상국에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하며, 각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보기 」

- ㄱ. 기후 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나라의 경제적 약자들이다.
- ㄴ. 선진국은 기후 변화 피해를 입은 개발 도상국을 지원해야 한다.
- ㄷ. 기후 변화의 원인 제거에 대한 공정한 책임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 ㄹ. 기후 변화를 초래한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큰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5-0170]

08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A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A :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방식

◎ 학생 답안

A는 ㉠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발 방식으로, ㉡ 생태 지속 가능성의 범위에서 환경 개발을 추구한다. A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 자연의 자정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간 활동을 억제하고, ㉣ 현대의 욕구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양립시킬 필요가 있으며, ㉤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5-0171]

## 1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고통과 괴로움은 그 자체로 나쁘며, 따라서 고통받는 존재의 인종이나 성, 또는 종과 무관하게 고통은 억제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고통이 얼마나 나쁜가는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며,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동일한 강도와 지속성을 갖는 고통은 동일하게 나쁘며, 그것을 인간이 느끼는지 동물이 느끼는지는 고통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을: 식물은 동물에게 생존 수단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동물은 사람에게 생존 수단이 되기 위하여 존재한다. 가축은 사람에게 노동력과 식량을 준다. 야생 짐승들도 대부분의 경우 사람에게 식량뿐만 아니라 의류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일용품을 준다. 자연은 목적 없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므로 모든 동물은 본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

- ① 동물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가?
- ② 자연의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가?
- ③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④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모두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⑤ 이성적 사고 능력을 지닌 존재만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가?

[23015-0172]

##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lt;보기&gt;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간, 즉 모든 이성적인 존재는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다른 이성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에 어떤 존재가 이성이 없는 존재라면, 그 존재는 수단으로서 상대적인 가치만을 지닐 뿐이기 때문에 사물 또는 물건이라고 부르고, 이성적인 존재에 대해서만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 즉 인격이라고 부른다.

을: 우리의 내재적 가치가 동물의 그것보다 크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물에게는 이성이나 자율성, 또는 지적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인가? 하지만 당신이나 나의 내재적 가치가 지적 장애아나 정신 장애인의 그것보다 크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주체인 동물의 내재적 가치보다 당신이나 나의 내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성적인 근거는 없다.

| 보기 |

- ㄱ. 갑: 인간은 동물을 확대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 ㄴ. 갑: 자연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도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ㄷ. 을: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을 넘어 일부 동물로 확장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이성을 지닌 존재는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3015-0173]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고하는 인간은 다른 생명 의지를 대할 때도 자신의 생명 의지를 대할 때와 똑같은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갖고 대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그는 남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 속에서 체험한다. 그가 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 발전할 수 있는 생명을 그 최고의 가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가 악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 발전할 수 있는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다.

을: 생태적인 참 나를 통해 실재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적이고 미적으로 엄격한 환경 윤리를 따르게 된다. 우리는 분명 이따금 우리의 윤리적 결함에 관해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격려를 통해 실재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인식함으로써, 즉 더 깊은 실재를 통해서 더 쉽게 변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넓은 의미의 공동체, 즉 모든 생명과 우리의 관계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① 갑: 전체의 선을 위한 개별 생명체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 ② 갑: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 ④ 을: 인류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생명이 없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3015-0174]

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선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의 선을 존중할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신의 선을 갖는 생명체에 피해를 끼치게 될 행동은 어느 것이든 삼가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동식물을 포함하여 토양, 물, 공기 등의 무생물까지도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생명 공동체에 대한 간섭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 사상가의 주장은 ㉠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① 인간의 이해관계를 다른 생명체의 생존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 ②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낮다
- ③ 생태계 보전을 명목으로 개별 생명체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생태계를 구성하는 무생물적 존재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부족하다
- ⑤ 인간이 생명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원에 불과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23015-0175]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늙은 말이나 개의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곧 이러한 동물들에 관련한 감사의 정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p> <p>을: 삶의 주체는 믿음과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 미래에 대한 의식,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등의 감정생활, 타자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복지를 가진 존재이다.</p> <p>병: 특정 집단의 유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자신의 선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반면에 무생물은 그들 고유의 선이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혹은 그릇되게 대우할 수 없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p>
(나)	<p>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보기

- ㄱ. A: 목적 그 자체인 인간을 위해서만 동물에 대한 행위 방식에 제한이 필요한가?
- ㄴ. B: 모든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가?
- ㄷ. C: 도덕적 무능력자도 목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가?
- ㄹ. D: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존재는 모두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3015-0176]

6 갑, 을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단순히 한 개체가 어떤 종(種)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인종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개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부도덕하다. 왜고 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이다.

을: 동물이건 인간이건 간에 삶의 주체는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녔고, 그 내재적 가치를 존중받을 동등한 권리를 지녔다.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노골적인 종 차별에 해당한다.

- ① 갑이 을에게: 모든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② 갑이 을에게: 이성과 자율성을 도덕적 존중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 ③ 갑이 을에게: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 ④ 을이 갑에게: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지닌 것만으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 ⑤ 을이 갑에게: 모든 유기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임을 간과한다.



[23015-0179]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잡함으로써만 복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찰에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p> <p>을: 모든 유기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p> <p>병: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라. 낱알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p>
(나)	

보기

ㄱ. A, F: 지식과 학문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 지배에 있음을 간과한다.  
 ㄴ. B, D: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ㄷ. C: 생명 공동체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  
 ㄹ. E: 자연은 인간의 이익 실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5-0180]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배려를 받으려는 욕망의 보편성은 배려 관계를 근본적으로 선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도록 만든다. 배려를 받으려는 욕망의 발현은 유아의 절대적인 필요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는 고고한 욕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그 발현은 문화, 시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을: 미래 인류에 대한 책임이 의미하는 바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미래 인류의 실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본질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후세의 인간은 어쨌든 실존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후세들을 위한 세계 또는 인간적 구성을 타락시켰다면, 불행의 창시자로서 우리를 비난할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 ① 갑: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는 미래 세대가 아닌 현세대를 위한 것이다.  
 ② 갑: 배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욕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을: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에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배려는 없다.  
 ④ 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권리와 호혜성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아야 한다.  
 ⑤ 갑과 을: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모르므로 그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



# 문화와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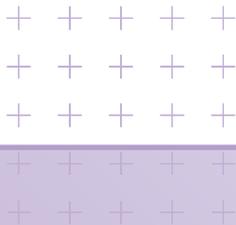


## EBS 교재 연계 사례

### 학습 요소

- 도덕주의
- 심미주의(예술 지상주의)
- 예술의 상업화
- 자본 종속
- 의식주 윤리
- 윤리적 소비
- 문화 다양성
- 관용
- 종교 간 화해와 협력

❶ 이 단원에서는 도덕주의와 심미주의(예술 지상주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이해하고,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며 대중문화를 윤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식주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파악하고, 윤리적 소비 실천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노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필요한 이유를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종교 갈등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항 20번

20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예술가는 사물을 모방할 수 있을 뿐 이데아 자체를 만들 수는 없네. 그래도 예술가의 훌륭한 작품은 영혼의 교육에 도움을 주네. 이때 음악적 수련이 가장 가치가 있네. 왜냐하면 리듬과 화음은 영혼 안에 들어가 우아함을 심어 주기 때문이네. 그러하니 작품 속에 무절제와 아비함을 표현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예술가를 추방해야 하네.
(나)	제자: 예술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의미가 있기 위해 예술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스승: 예술가는 _____ ㉠ _____

- ① 예술을 위한 예술 활동에 전념해야 하네.
- ② 국가가 예술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네.
- ③ 사람의 선한 성품을 작품 속에 표현해야 하네.
- ④ 아름답거나 추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하네.
- ⑤ 사물이 나누어 가지는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창조해야 하네.

답 ③

## 12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 13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 윤리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143쪽 03번

## 0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좋은 리듬, 좋은 말씨, 조화로움, 우아함 등은 좋은 품성을 갖게 한다. 반면에 꼴사나움과 나쁜 리듬과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격을 닮게 한다. 리듬과 화음이 올바른 자에게는 우아함을, 그릇된 자에게는 추악함을 깨닫도록 할 것이다.

- ① 모든 시가 인간의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 ② 시를 통해 건전한 품성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 ③ 시에 대한 검열은 시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낮추는가?
- ④ 시는 선의 이데아를 지향할 때 가치 있는 것이 되는가?
- ⑤ 시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도록 해야 하는가?

답 ④

## 언제 분석 및 학습 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은 EBS 수능특강 143쪽 03번 문항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을 묻고 있다. 수능특강 문항의 제시문과 선지로 다룬 내용 중 ‘좋은 리듬’, ‘조화로움’, ‘선의 이데아’ 등의 표현을 모의평가 문항의 제시문과 선지에 활용하면서 ‘화음’, ‘아름다움의 이데아’, ‘예술을 위한 예술 활동’ 등의 표현으로 변형하거나 개념을 부가하였다. 수능특강에서 사용한 플라톤의 예술관의 특징을 묻는 문항을 모의평가에서 제자와 스승의 대화 형식 문항으로 변형해 출제하여 형식상의 변화를 피하였으나, 플라톤의 예술관을 묻는 문항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예시된 문항은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와 심미주의 입장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도덕주의 입장의 사상가들과 심미주의 입장의 사상가들의 주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EBS 교재로 공부할 때 각 사상가들의 핵심 입장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 ④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 1. 인간의 삶과 예술

##### (1) 예술의 의미

###### ① 예술의 어원

동양	한자어 예술(藝術)의 '예(藝)'는 '심는다'는 뜻으로 기초적인 교양의 씨를 뿌린다는 의미를 가지며, '술(術)'은 '나라 안의 길'이라는 뜻으로 어떤 곤란한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서양	영어 아트(art)는 일정한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숙련된 능력으로서 기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테크네 (techne)'에서 유래하였음

###### ② 예술의 의미: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둔 모든 인간 활동과 산물

##### (2) 예술의 역할

- ①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과 즐거움을 주고 소통의 매개가 됨으로써 인간 간의 교류를 촉진함
- ② 사회 모순을 비판하여 인간의 의식과 사회 개혁에 이바지하며 도덕적 교훈을 제공하여 삶을 성숙하게 하는 데 기여함

#### 2.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입장

##### (1) 도덕주의

- ① 예술의 목적: 모든 예술 작품은 고결한 품성과 올바른 행위를 포함하여 도덕적 교훈이나 본 보기를 제공해야 함
- ② 예술관
  -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예술은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봄
  - 예술가도 사회인이며 예술 활동 역시 사회 활동이므로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보는 참여 예술론과 관계됨
- ③ 문제점: 예술에서 미적 요소가 경시될 수 있고 자유로운 창작이 제한될 수 있음
- ④ 대표적 사상가

플라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의 존재 이유가 선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하는 데 있다고 보고, 예술 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li> <li>• 도덕 기준에 따라 선별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영혼의 조화와 질서를 깨닫고, 청소년은 건전한 품성과 사고를 기를 수 있다고 봄</li> </ul>
톨스토이	"예술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모든 것이다."라고 함. 특히 표현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 자료 플러스 플라톤의 도덕주의

나는 음악적인 수련이야말로 다른 어떤 수련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보네. 음악에서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부로 파고 들어가서 우아함을 심어 주고, 올바른 자에게는 우아함을, 올바르지 못한 자에게는 추악함을 알게 해 줄 수 있네.  
- 플라톤, "국가" -

플라톤은 예술이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하며,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 참여 예술론

예술가도 사회의 구성원이고 예술도 사회의 산물이므로,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하며 이를 통해 역사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 ※ 톨스토이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 예술은 언어와 같이 인간의 감정을 바꾸게 하며, 진보와 완전을 향해 정진하는 인류 운동의 한 수단이라고 봄

#### 개념 체크

- ① 예술은 ( )을/를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둔 모든 인간 활동과 산물이다.
- ② 도덕주의는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예술은 ( )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③ 플라톤은 예술의 존재 이유가 ( )을/를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 정답

- ① 미적 가치
- ② 윤리
- ③ 선

## 자료 플러스 톨스토이의 도덕주의

진짜 예술을 가짜 예술에서 구별하기 위한 확실한 특징이 하나 있다. 예술의 감염성(感染力)이 그것이다. 만일 사람이 남의 작품을 읽고 듣고 보고 한 결과, 자신이 그 작가와 공감(共感)을 하고 또한 그 작품을 감상한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하는 경우,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예술품이다. 그와 반대로, 대상이 아무리 시적이거나 진짜를 닮았거나 효과적일지라도, 아니면 흥미를 돋우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만일 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합일하는 감정을 환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다.

-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

톨스토이는 자신의 저작에서 과거와 현재 예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의 조건과 좋은 예술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톨스토이는 사회의 종교적 자각(사회 구성원들이 도달한 최고의 선)에 입각한 좋은 예술만을 인정하고 미래의 예술은 좋은 예술을 양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심미주의(예술 지상주의)

- ① 예술의 목적: 미적 경험은 다른 것을 산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므로 예술은 미적 가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해야 함
- ② 예술관
  - 예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예술을 도덕, 정치 등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봄
  -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므로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순수 예술론을 지지함
- ③ 문제점: 예술과 현실을 분리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함
- ④ 대표적 사상가

와일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가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순간 그는 예술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독창성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li> <li>• 예술에서 도덕이 불필요함을 주장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을 기치로 삼는 심미주의 입장을 취함</li> </ul>
스핑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詩)가 도덕적이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함</li> <li>• 예술을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면 예술이 규격화 혹은 획일화되어 창조성과 창의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함</li> </ul>

## 자료 플러스 와일드의 심미주의

- 예술은 예술 안에서 그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는다. 예술은 닭은꼴이라는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술은 거울이기보다는 장막이다. 예술은 어떤 숲에도 피지 않는 꽃이다. 어떤 숲에서도 울지 않는 새이다. 예술은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 내고 파괴한다. 예술은 주홍빛 실로 하늘에서 달을 끌어오는 것이다. 예술의 눈으로 볼 때, 자연에는 어떤 법칙도 없다.
-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 산문집” -
- 심미주의는 평범한 것들에 색채를 부여하고,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아름다움과 모든 사물들 사이에는, 감지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또 다른 아름다움의 상관관계처럼 미묘한 관계가 존재한다. 그 문제를 공부해 왔던 사람들만이,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계이다.
- 와일드, “와일드가 말하는 오스카” -

와일드는 예술이 도덕이나 정치 등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예술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 와일드

아일랜드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함

### \* 스프링겐

미국의 문학자이자 비평가로 예술이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함을 역설함

## 개념 체크

- ① 심미주의는 예술을 도덕, 정치 등 다른 것을 위한 ( )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② 와일드는 예술에서 ( ) 이/가 불필요함을 주장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을 기치로 삼는 심미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 ③ 스프링겐은 예술을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면 예술이 규격화 혹은 ( )되어 창조성과 창의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 ① 수단
- ② 도덕
- ③ 획일화

### 개념 플러스 순수 예술론과 참여 예술론

순수 예술의 옹호자들은 예술이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예술은 어떠한 현실적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예술의 목적은 예술만이 될 수 있고, 예술은 예술 외적인 모든 타율을 거부해야 한다. 요컨대 예술은 자율적이고 순수하며 아름다워야 한다. 이에 대해 참여 예술의 옹호자들은 현실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순수 예술을 현실 도피라고 비판한다. 예술가도 시대의 아들이고 예술도 시대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하며, 이를 통해 역사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예술은 참여인 것이다.

- 김수용 외, “예술의 시대” -

### (3)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바람직한 관계

- ① 칸트: 자유로운 미적 체험이나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가 이기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미와 도덕성은 유사성을 가지며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봄. 또한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봄
- ② 정약용: 악(樂)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여 성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악을 가까이 해야 함
- ③ 공자: “인간은 시(詩)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예(禮)에서 서며, 악(樂)으로써 자기를 완성하게 된다.” 이는 시, 예, 악이 인간됨의 형성에서 기본적인 교양이 된다는 의미임
- ④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와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인격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정약용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의 실학자이자 개혁가

### 자료 플러스 미(美)에 대한 칸트의 입장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사람들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한다. …(중략)… 순수하게 감성적인 동물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느낄 수 있으며,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의 의욕은 선에 해당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가 느낄 수 있는 선을 추구할 수도 있고, 동물이 느낄 수 있는 안락함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 칸트, “판단력 비판” -

칸트는 미적 체험이나 도덕적 행위는 모두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이기적인 욕구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

모방한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며 인간은 어릴 적부터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모든 인간은 모방에 의한 재현에 쾌감을 느낀다. 다음 사실이 그 증거이다. 실물은 보기에 괴로운 존재들도 매우 정확하게 그려진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좋아한다. 왜냐하면 철학자가 배우면서 느끼는 살아 있는 쾌감을 다른 사람들도 조금일지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라봄으로써 배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떤 형상이 어떤 사람을 그린 것인지 알아보는 것처럼 각 사물이 무엇인지를 추리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자연이 성공시키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자연의 모방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모방은 예술이 대상에 대한 수동적인 모방을 넘어 대상의 아름다움을 실제보다 한층 돋보이게 하는 능동적인 모방을 의미한다.

### 개념 체크

- ① 칸트는 자유로운 미적 체험이나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가 ( )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 ② 정약용은 악(樂)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여 ( )이/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악을 가까이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공자는 시(詩)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예(禮)에서 서며, ( )으로써 자기를 완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 정답

- ① 이기적인 욕구
- ② 성인
- ③ 악(樂)

### 3. 예술의 상업화

#### (1) 현대 예술의 특징

##### ①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의 등장

- 고급과 저급,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창조품과 기성품, 작가와 관객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대상을 미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등 권위주의적 사고나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를 혁신하는 데 기여함
- 팝 아트(pop art)와 키치(kitsch)의 등장: 대안 없이 기존 질서의 가치 체계를 해체하거나 과거의 작품을 패러디하거나 기존 작품을 혼성 모방하는 경향을 지님

##### ② 예술의 상업화의 확산

-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는 일이 예술 작품에도 적용되는 예술의 상업화가 확산됨
- 예술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 매체의 발달로 예술 작품에 상품 가치를 매겨 거래함으로써 예술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게 됨

#### (2) 예술의 상업화의 긍정적 측면

- ① 특수 계층만 누려 왔던 예술 작품에 일반 대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 ② 예술가에게 경제적 이익은 물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창작 의욕을 북돋움

#### (3) 예술의 상업화의 부정적 측면

- ① 작가 정신보다 대중성을 중시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을 훼손함
- ② 상업적 가치가 예술을 평가하는 척도가 됨으로써 예술 작품이 지향해야 하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간과함
- ③ 예술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오락으로 전락하여 관능적이고 말초적인 표현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예술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 ④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기법을 복제함으로써 예술을 오락물이나 심심풀이 대용물로 전락시켜 예술의 창조성을 경시함

## ☞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제

### 1. 대중문화의 의미와 중요성

#### (1) 대중문화의 의미

- ① 대중 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문화
- ②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영화, 신문, 만화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즐기는 문화

#### (2) 대중문화의 중요성

- ① 대중문화에 대한 일상적 노출이 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에 영향을 줌
- ② 대중문화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므로 사회 변화에도 영향을 줌

#### (3) 대중문화의 긍정적 효과

- ① 다양한 문화를 저렴한 비용으로 풍부하게 공급함으로써 문화의 대중화에 이바지함
- ② 대중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 ☞ 포스트모더니즘

'탈현대'의 의미로, 이성에 의해 억눌린 감성의 해방을 주장하고 예술의 획일성을 비판함

#### ☞ 팝 아트

대중에게 친숙한 만화나 광고, 사물, 대중 스타 등을 인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예술 양식으로, 워홀, 리히텐슈타인, 해링 등의 작가들이 있음

#### ☞ 키치

진품을 모방하여 할값에 파는 그림을 일컬음. 순수 예술을 훼손했다는 부정적 평가와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음

### 개념 체크

- ① 예술의 상업화로 예술 작품에 상품 가치를 매겨 거래함으로써 예술에서도 ( )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
- ② 예술의 상업화는 작가 정신보다 ( )을/를 중시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지닌다.
- ③ ( )은/는 대중 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문화이다.

#### 정답

- ① 경제적
- ② 대중성
- ③ 대중문화

### ❖ 문화 산업

자본주의적으로 대량 생산된 대중문화 또는 문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함. 아도르노는 문화가 이윤 추구의 도구가 되면서 문화 산업이 사물화된 의식을 조장하고 대중을 무력화함으로써 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고 주장함

### 개념 체크

- 1 대중문화가 흥행이나 ( )만을 추구하면서 과도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2 아도르노는 상업화된 예술에 대해 ( )이라고 비판하면서, 현대 예술은 자본에 종속되었다고 보았다.
- 3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면 성의 ( )이 훼손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정답

- 1 수익성
- 2 문화 산업
- 3 인격적 가치

## 2.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 (1) 선정성과 폭력성

- ① 대중문화가 흥행이나 수익성만을 추구하면서 이목을 끌기 위해 과도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됨
- ② 문제점: 폭력을 미화함으로써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나친 선정성과 폭력성에 노출될 경우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

### (2) 자본 종속

- ① 막대한 자본 투자로 발전하는 현대의 대중문화에서 자본의 힘이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현상
- ② 문제점
  - 막대한 자본 투자력을 지닌 일부 문화 기획사가 대중문화를 주도하게 됨
  - 상업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획일화된 문화 상품이 양산되어 문화의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음
  -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각 개인이 문화 산업의 도구가 됨으로써 문화의 창조성과 예술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음

### 자료 플러스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 비판

오늘날 문화 소비자들의 자발성이나 상상력이 위축된 이유를 그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제작물 자체가 자신의 객관적인 속성에 따라 그러한 능력을 불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문화 상품의 속성은 제작물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첩성과 관찰력과 상당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 재빨리 스쳐 지나가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다. ... (중략) ...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여가 생활에서조차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노린다. 개개의 문화 생산물은 모든 사람을 일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도 잡아 놓는 거대한 경제 체계의 일부이다. 어떤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이든 언뜻 보면 임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 각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처럼 재생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아도르노 외, "계몽의 변증법" -

아도르노는 상업화된 예술에 대해 문화 산업이라고 비판하면서, 현대 예술은 자본에 종속되어 문화 산업으로 획일화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감상자에게 고유한 체험이 아니라 표준화된 소비 양식이 될 뿐이라고 보았다.

## 3.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

### (1) 윤리적 규제에 대한 찬성 입장

- ①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면 성의 인격적 가치가 훼손되므로 규제가 필요함
- ② 청소년의 정서에 해로운 대중문화를 윤리적 규제를 통해 선별해 내야 함

### (2) 윤리적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

- ①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는 대중문화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② 대중은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길 문화적 권리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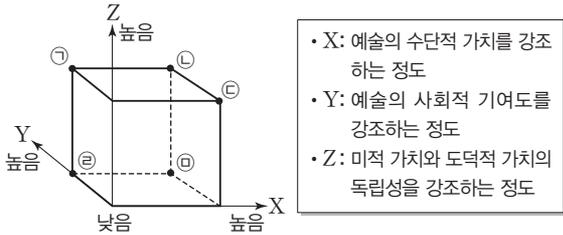
### (3)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세

- ① 대중문화의 소비자는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
- ② 대중문화의 생산자는 건전한 대중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③ 법적·제도적 노력을 병행하여 대중문화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함

[23015-0181]

01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예술의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술적 아름다움, 즉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다. 윤리적 기준으로 예술을 평가하고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 (나) 예술의 목적은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도덕적 교훈을 제공하는 데 있다. 예술은 도덕적 선을 지향해야 하므로 예술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5-0182]

0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음악적 수련이야말로 다른 어떤 수련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다. 음악에서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부로 파고 들어가서 우아함을 심어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의 정신을 더욱 우아하게 만들고,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의 정신도 우아하게 할 수 있다.

- 보기
- ㄱ. 예술은 도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ㄴ. 예술은 구성원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
  - ㄷ. 진리 인식을 위해 예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ㄹ. 예술은 사람들에게 선의 아이디어를 지향하게 하는 한에 서만 의미를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183]

03 갑 사상은 긍정, 을 사상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모든 예술 작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과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 사이에 일종의 교류를 갖게 한다. 예술은 개개 인간 및 인류의 생활과 행복의 발걸음에 없어서는 안 될 인간 교류 수단이고, 모든 사람을 동일한 감정으로 통일하는 수단이다.  
을: 시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우리는 맞지도 않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실험하려는 어리석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① 예술은 도덕적인 가치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가?
- ② 예술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는가?
- ③ 예술에서 선함과 올바름을 목표로 삼는 것을 배제해야 하는가?
- ④ 예술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하는가?
- ⑤ 예술이 담고 있는 내용보다 예술이 표현하는 형식을 중시해야 하는가?

[23015-0184]

0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은 예술 안에서 그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는다. 예술은 닳은꼴이라는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술은 거울이라기보다는 장막이다. 예술은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 내고 파괴한다. 예술의 눈으로 볼 때 자연에는 어떤 법칙도 없다.

- ① 미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일종이다.
- ② 예술은 인간의 화합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 ③ 예술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안 된다.
- ④ 예술은 사람들의 심성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⑤ 예술은 인간이 고귀한 존재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3015-0185]

**0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며, 이러한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함과 함께 알맞고 마땅하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동시에 감각적 쾌락의 한갓된 수용을 넘어서 어떤 순화와 고양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그들이 지닌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다.

보기

- ㄱ.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 ㄴ. 미적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인 동시에 자율적이다.
- ㄷ. 예술은 윤리의 영역 안에 있으며 윤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 ㄹ. 미와 선은 일체의 이해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5-0186]

**06**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 가운데는 소수에게 유용한 것이 다수에게 유용한, 예술의 급속한 확장과 대중화가 있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의 잘못된 사용을 막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대부분은 이제 상품화되어 대량으로 생산되거나 재생산되며, 고급문화라거나 저급 문화라는 엄격한 구별은 이제 진부한 이야기가 되었다. 행하는 예술과 즐기는 예술을 위한 여러 수단이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하지만 그 수준을 값어치 없게 하거나 떨어뜨리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 ① 예술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예술이 주는 가치 중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한다.
- ③ 예술의 상업화는 예술의 자율성을 훼손하므로 반대해야 한다.
- ④ 예술의 상업화를 인정하고 예술의 가치 하락을 예방하는데 힘써야 한다.
- ⑤ 예술의 상업화는 예술을 오락으로 전락시켜 예술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뿐이다.

[23015-0187]

**0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대중문화가 이윤을 창출하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폭력성과 선정성이 난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법과 규정을 마련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을: 대중문화가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면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대중문화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개인들이 비판적 시각을 길러 대중문화를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보기

- ㄱ. 갑: 대중문화의 문제점은 개인의 자율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 ㄴ. 을: 대중문화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 ㄷ. 을: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검열이 필요하다.
- ㄹ. 갑과 을: 대중문화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188]

**0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술이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은 사회에 대한 경제적 강자의 지배력이다. 오늘날 기술적 합리성이란 지배의 합리성 자체이다. 문화 산업의 기술은 규격화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그 대신 일의 논리와 사회체계의 논리를 구별시켜 줄 수 있는 무엇을 희생시켰다. 중앙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는 개인들의 의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에 의해 사전 봉쇄된다.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 ① 문화 산업의 확산은 개인들의 개성 증대를 가져온다.
- ② 대중문화는 대중의 의식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③ 대중문화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미적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④ 자본의 힘이 현대의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문화 산업을 통제한다.
- ⑤ 문화 산업과 대중문화는 상호 별개의 것으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

[23015-0189]

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악이란 즐기는 것으로 사람에게서는 음악이 없을 수가 없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없을 수가 없지만, 길으로 표현되어 올바른 도리에 맞지 않으면 곧 혼란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옛 임금들은 삼가 음악에 그 형식을 갖추게 하였다. 음악이 바르고 반듯하며 화평하면 곧 백성들은 화합하며 빛나가지 않게 되고, 음악이 엄숙하고 장중하면 곧 백성들은 질서가 있어 어지럽지 않게 된다. 백성들이 화합하고 질서가 있으면 곧 나라의 군대는 강하고 성(城)이 견고해져 적국이 감히 침략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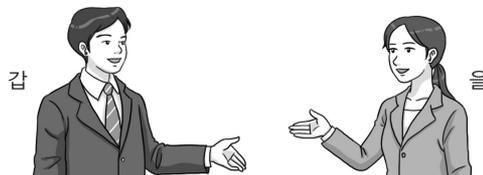
- ① 음악은 사람의 정(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 ② 음악은 천하를 바로잡고 교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 ③ 음악은 사람들을 화합하고 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예의와 함께 음악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 ⑤ 음악을 즐기는 것은 본래적 감정에 어긋나므로 예의로 교화해야 한다.

[23015-0190]

2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예술 작품은 순수하게 미(美) 그 자체만을 추구하고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 이외의 영역에 속하는 가치와는 관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술은 도덕, 종교, 이념으로부터 초월해 있으며, 또한 초월해야 합니다. 예술은 예술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와 무관한 예술이란 있을 수 없고, 예술 또한 사회 상황의 산물입니다. 예술가도 한 명의 사회 인이며 예술 활동 역시 하나의 사회 활동입니다. 사회와 무관한 순수한 예술이란 예술가의 예술 의식의 부재를 변명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예술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보기

- ㄱ. 갑: 예술은 인간과 사회에 유용한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 ㄴ. 갑: 예술 활동은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활동으로서만 가치를 지닌다.
- ㄷ. 을: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예술은 사람들의 사회 비판 의식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3015-0191]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방한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인간은 어릴 적부터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모든 인간은 모방에 의한 재현에 쾌감을 느낀다. 다음 사실이 그 증거이다. 실물은 보기에 괴로운 존재들도 매우 정확하게 그려진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좋아한다. 이러한 이유는 철학자가 배우면서 느끼는 살아 있는 쾌감을 다른 사람들도 조금일지라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라봄으로써 배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떤 형상이 어떤 사람을 그린 것인지 알아보는 것처럼 각 사물이 무엇인지를 추리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자연이 성공시키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①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며 실재를 드러나게 해 준다.
- ② 인간은 동물과 달리 모방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
- ③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끼려 하는 자세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예술가는 자연을 완전히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⑤ 예술은 자연을 그대로 표현해야 하며 자연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

[23015-0192]

4 다음 신문 칼럼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대중문화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대중문화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풍부하게 공급함으로써 대중이 쉽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 하지만 사람들이 대중문화를 통해 수익성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요소가 범람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들이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막을 수 있는 법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가 대중문화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 사항을 꼼꼼히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히 운영한다면 대중문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① 대중문화는 개인들의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 ②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 ③ 대중문화를 통한 이윤 추구 현상의 심화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④ 대중문화에 대한 법적 규제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 ⑤ 개인의 주체적 노력은 대중문화의 문제점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 의식주 윤리

#### (1) 의복 문화와 윤리적 문제

##### ① 의복의 윤리적 의미

개인적 차원	의복을 통해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하고 형성함
사회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혼상제처럼 중요한 행사에 격식 있는 의복을 착용하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시함</li> <li>의복을 통해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징과 개인이 살고 있는 시대의 성격이 드러남</li> </ul>

##### ② 의복 문화의 윤리적 문제

- 유행 추구 현상: 소비자들이 유행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거나 기업의 판매 전략에 휘둘릴 수 있음
- 명품 선호 현상: 무분별한 명품 소비는 과소비와 사치 풍조를 조장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자기 과시의 그릇된 표현이 될 수 있음
- 동물 학대 문제: 모피나 가죽옷을 생산하기 위해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줄 수 있음
- 제복(制服, 유니폼)에 의한 개성 억압 문제: 제복은 집단의 정체성 유지와 규율을 위해 필요하지만 개성과 다양성을 제한함

##### ③ 의복 문화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

- 의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절을 표현하는 수단임: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함
- 환경 문제, 자원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필요함: 환경을 고려하는 절제 있는 소비를 실천해야 함

#### 자료 플러스 지멜의 유행의 본질

유행은 한편으로 그것이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한다. 다시 말해 유행은 개인을 누구나 다 가는 길로 안내한다. 다른 한편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킨다. 즉 유행은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하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이는 유행의 내용이 변화하면서 현재의 유행은 어제나 내일의 유행과 다른 개별적 특징을 갖게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도 입각한다.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동화되는 순간 소멸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준다.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 중에서 특별한 것이다.

- 지멜, "지멜의 모더니티 읽기" -

지멜은 유행이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와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유행에 휩쓸리기 쉽다고 보았다.

#### (2) 음식 문화와 윤리적 문제

##### ① 음식의 윤리적 의미

생명권으로서의 의미	음식 섭취를 통해 생명과 건강이 유지됨
사회적 도덕성으로서의 의미	음식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과 생태계의 질서를 고려해야 함

#### 패스트 패션

소비자의 기호를 바로 파악해 유행에 따라 신제품을 출시하여 제품 수명이 짧은 의류

#### 지멜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로 사회는 개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유행도 개인들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고 봄

#### 개념 체크

- ( )은/는 소비자들이 유행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거나 기업의 판매 전략에 휘둘릴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를 가진다.
- 의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절을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시간( ),( )을/를 고려하여 이에 알맞은 옷차림을 해야 한다.
- 환경 문제, 자원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패스트 패션에 대한 ( )을/를 바탕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절제 있는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

#### 정답

- 유행 추구 현상
- 장소, 상황
- 반성적 태도

❖ 유전자 조작 식품(GMO)

식품 생산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래의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하고 변형해 만든 식품

❖ 정크 푸드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의 총칭

❖ 슬로푸드 운동

자연적인 숙성이나 발효를 거친 음식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운동

❖ 로컬 푸드 운동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으로, 음식물의 먼 거리 이동에 따른 이산화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음

개념 체크

- 1 유전자 조작 식품 및 농약과 화학 물질의 과다한 첨가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인권으로서의 ( )을/를 침해할 수 있다.
- 2 주거 공간으로서 집은 삶의 기본 터전으로 노동과 노력을 기울이는 외적 공간에서 돌아와 휴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 )이다.
- 3 하이데거는 우리가 거주지 본래적인 문제를 아직도 전혀 숙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 )을/를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정답

- 1 생명권
- 2 내적 공간
- 3 고향

② 음식 문화의 윤리적 문제

- 유전자 조작 식품(GMO) 및 농약과 화학 물질의 과다한 첨가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인권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무분별한 식량 생산과 음식 소비에 따른 환경 문제 발생: 토양 오염, 음식물 쓰레기 증가
- 패스트푸드와 같은 정크 푸드에 의한 비만과 절제하지 못하는 폭식과 탐식의 문제
-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대우 문제: 공장식 축산과 동물 학대

③ 음식 문화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

- 음식을 통해 타인은 물론 자연과 긴밀한 관계를 맺음 → 공동체와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함
- 음식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 건강한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함
- 소비자의 음식에 대한 알 권리와 윤리적 식품 구매 실천: 슬로푸드 운동, 로컬 푸드 운동 → 음식 소비에서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를 지향해야 함
- 윤리적 음식 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 식품 첨가물 성분 표시 의무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3) 주거 문화와 윤리적 문제

① 주거의 의미

주거 공간의 의미	•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으로 품성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줌 • 주거는 공간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임
주거 공간으로서 집의 윤리적 의미	• 휴식과 행복,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적 공간임 • 가족은 물론 이웃·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 형성 → 삶의 질과 인간다움 형성에 영향을 줌

② 주거 문화의 윤리적 문제

- 집의 실존적 의미 상실: 현대인은 편안하고 안정된 고향으로서의 주거 공간을 상실함
- 집의 경제적 가치에만 집착하는 문제: 경제적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만 집을 바라봄으로써 하우스 푸어 등이 발생함

③ 주거 문화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 볼노브: 자신의 공간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공간 책임론을 제시하며, 집이라는 공간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봄
- 하이데거: 내적 공간으로서 집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세태를 '고향의 상실'이라고 비판하면서, 휴식과 평화를 누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내적 공간으로서 집의 본래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함

자료 플러스 거주에 대한 바슐라르의 입장

- 인간은 성급한 형이상학이 가르치듯이 '세계에 내던져지기'에 앞서, 집이라는 요람에 놓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몽상 가운데서는 집은 언제나 커다란 요람이다. 구체적인 형이상학이라면 이 사실을, 이 단순한 사실을 옆으로 밀쳐놓을 수 없다. -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
- 고향이라는 것은 공간의 넓어라기보다는 물질이다. 즉 화강암이나 흙, 바람이나 건조함, 물이나 빛인 것이다. 그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몽상을 물질화하고,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꿈은 적합한 실체를 얻는 것이며, 그것을 향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근원적 색깔을 요구하는 것이다. - 바슐라르, "물과 꿈" -

바슐라르는 인간은 집에서 사는 가운데 인간이 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거주하면서 몽상하고 그 속에서 존재를 체험한다. 즉 집이 만들어 놓은 공간 속에서 공간은 존재를 보호하는 경계선 안에서 존재를 응축하게 된다. 그래서 바슐라르는 집을 인생의 요람이라고 말한다.

## 2. 윤리적 소비

### (1) 현대인의 소비 생활

#### ① 오늘날 소비의 특징

- 소비의 가치: 기본적 욕구 충족과 개성 표현 및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함
- 소비의 특징: 자본주의의 대량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소유의 자유가 보장되어 개별화된 소비 생활이 가능해짐

#### ② 현대 소비문화의 문제점

- 대량 소비와 과소비 문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으로 생태계 파괴 초래
- 과시 소비와 충동 소비 문제: 계층 간 위화감 조성, 근로 의욕 약화

### 자료 플러스 베블런의 과시 소비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나 권력을 그저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모든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과시 소비를 거냥한 물품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밖으로 있어 보이는 체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웅색과 불편조차도 참아 내는 것이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아마도 가장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일 것이다.

- 베블런, "유한계급론" -

베블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과시 소비를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유한계급인 부자들은 강자로서 존경을 받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과시 소비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베블런 효과'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 (2)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 ①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비교

합리적 소비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함
윤리적 소비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하는 전체 과정을 윤리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평화, 인권, 사회 정의, 환경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중시하며, '녹색 소비'와 '착한 소비'가 이에 해당됨

#### ② 윤리적 소비의 의의

- 공정한 상품 거래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정의로운 경제 체제 실현에 기여함
-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상품 구매를 거부함으로써 기업의 윤리적 책무를 일깨움
-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소비, 인류의 행복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소비를 실천함

## 3. 문화 다양성과 존중

### (1)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 ① 다문화 사회의 특징: 여러 분야의 교류 증가로 다양성과 다원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문화 요소가 도입되어 문화 선택의 폭이 확대됨
- ② 다문화 존중의 이유
  - 지역과 역사, 사회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문화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님
  - 다양한 문화를 인정할 때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

#### ❖ 녹색 소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품을 소비하는 등 소비 활동에서 환경 보호를 생활화하는 것

#### ❖ 착한 소비

소비 활동에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고려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 개념 체크

- ① 베블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을/를 한다고 보았다.
- ② 자신의 욕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도록 소비하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 ③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하는 전체 과정을 윤리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 소비하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 정답

- ① 과시 소비
- ② 합리적 소비
- ③ 윤리적 소비

❖ 화이부동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

❖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문화의 우월성에 빠져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 문화 상대주의

특정 문화만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나머지 자기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비하하는 태도

❖ 한계 상황

죽음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극한의 상황

개념 체크

- 1 ( )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또는 이민자의 유입을 받아들이는 배타적인 이주민 정책을 말한다.
- 2 ( )이)란 행위의 옳고 그름이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 3 ( )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삶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를 말한다.

정답

- 1 차별적 배제 모형
- 2 윤리 상대주의
- 3 종교

(2) 다문화 사회와 문화 정체성

차별적 배제 모형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또는 이민자의 유입을 받아들이는 배타적인 이주민 정책
동화주의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주류 문화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
샐러드 볼 이론	다른 맛을 가진 채소와 과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샐러드를 만들 듯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
국수 대접 이론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여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3) 바람직한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세

- 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태도가 필요함
- ② 우리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면서 다양한 이질적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

(4) 다문화 사회에서 관용의 필요성과 한계

- ① 문화 상대주의와 윤리 상대주의
  -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또는 문화 상대주의와 같이 문화의 우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상대의 관점에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강조하는 입장
  - 윤리 상대주의: 행위의 도덕적 옳음과 그름은 사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 윤리 상대주의의 문제점: 보편 윤리를 위반하는 문화까지 인정하게 되어 비판적·윤리적 성찰을 방해함
- ② 관용의 의미와 필요성
  - 의미: 원래 종교적 자유를 의미하였으나 오늘날 인종, 문화, 성(性), 예술로 확장되어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리킴
  - 필요성: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에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문화적 편견과 차별의 극복을 통해 자유와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 ③ 다문화 사회에서 관용의 한계
  - 관용의 역설: 무제한적인 관용은 인권 침해와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관용의 한계: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와 도덕적 악(惡)에 대해서는 불관용해야 하고,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함

4. 종교의 공존과 관용

(1) 종교의 의미와 본질

- ① 종교의 의미: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삶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 ② 종교의 본질: 사람들은 출생, 죽음, 고통처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며,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같은 궁극적 물음에 대해 종교를 통해 해답을 얻고자 함

(2) 종교와 윤리의 관계

① 종교와 윤리의 공통점

- 인간의 존엄성 중시: 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보편 윤리를 포함하고 있음
- 사회 정의 실현에 관심: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강조함

② 종교와 윤리의 차이점

- 종교가 성스러움이나 초월적 문제를 다룬다면, 윤리는 도덕규범이나 그 규범의 근거에 대해 탐구함
- 종교가 신앙심을 바탕으로 신에 대한 의존을 강조한다면, 윤리는 이성이나 양심, 도덕 감정 등을 근거로 도덕적 행위의 실천에 관심을 둠

③ 종교와 윤리의 상보적 관계

- 바람직한 종교: 인간 존중과 도덕을 전제로 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신장하면서 초월적 세계와 관계를 맺는 종교 → 성과 속의 조화를 추구하여 현실 속에서 종교를 이해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교리의 이행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믿음이 인도주의의 실천과 연결되도록 함
- 종교가 가진 윤리적 규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
- 종교와 윤리가 상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함

자료 플러스 엘리야데의 성과 속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顯現)하고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 성스러운 것의 현현이 성현(聖顯)이다. 성현은 어떤 성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종교의 역사는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고도로 발달한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현, 즉 성스러운 여러 실재의 현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원시적 성현(예컨대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것)에서 높은 수준의 성현(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부여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동일한 신비스러운 사건에 직면한다. 즉 전혀 다른,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재, 하지만 이 자연적인 '속된' 세계에서 불가결한 요소를 이루는 여러 사물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 엘리야데, "성과 속" -

엘리야데는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결국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세속과 성스러움의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종교 생활을 강조하였다.

(3) 종교 간 갈등 문제

① 종교 간 갈등의 원인

- 다른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
- 민족적·문화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충
-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배타적 태도

② 종교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자세

- 관용의 태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됨
- 대화와 협력: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호 협력함
- 보편적 가치 존중: 인권, 사랑, 평화와 같은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가짐

☞ 종교와 윤리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

- 종교를 윤리의 일부로 보는 입장
- 종교와 윤리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
- 종교와 윤리를 분리된 체계로 보는 입장
- 종교를 윤리의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입장

☞ 엘리야데

루마니아 출신의 종교학자로 성(聖)과 속(俗)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주장함

개념 체크

- 1 종교가 신앙심을 바탕으로 ( )에 대한 의존을 강조한다면, 윤리는 이성이나 양심, 도덕 감정 등을 근거로 도덕적 행위의 실천에 관심을 둔다.
- 2 ( )은/는 성스러움이 현현(顯現)함으로써 사물은 어떤 전혀 다른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3 종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자신의 종교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 )의 태도가 필요하다.

정답

- 1 신
- 2 엘리야데
- 3 관용

[23015-0197]

01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편리하지만 영양가가 낮은 고열량 식품인 정크 푸드가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크 푸드는 편의점이나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가볍고 편리한 음식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을 쉽게 유혹한다. 세계 비만 연맹은 2030년에 비만 관리 대상이 1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크 푸드 섭취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크 푸드 섭취의 문제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폭식과 탐식의 윤리적 문제와 연관해 이해해야 한다. 정크 푸드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자세와 불필요한 욕구·충동을 조절하는 자기 통제력이 함께 요구된다.

- ① 정크 푸드는 청소년들의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② 정크 푸드는 섭취가 편리하지만 이로인 영양가가 낮다.
- ③ 식욕 충족의 대상과 방식에 대해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절해야 한다.
- ④ 모든 정크 푸드는 청소년들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 ⑤ 청소년들은 정크 푸드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23015-0198]

02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집은 세계 안에 있는 인간의 구석이며, 인간의 최초 세계이자 하나의 우주이다. 집은 그 안에 외부 세계의 혼란이 퇴치될 수 있는 질서 잡힌 영역을 형성한다. 심 없이 방황하는 난민의 삶과 달리, 집은 삶의 더 심오한 지속성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집의 품속에서 포근하게 숨겨지고 보호되어 시작된다.

보기

ㄱ. 인간은 거주를 통해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ㄴ. 집은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는가?  
 ㄷ. 집은 공적인 영역으로 타인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하는가?  
 ㄹ. 인간은 집에서 삶의 지속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5-0199]

03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예절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의복의 길보기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명품을 선호하거나, 유행만을 좇는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분별한 명품 소비로 사치 풍조를 조장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패스트 패션을 유행시켜 자원 낭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유행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거나 기업의 판매 전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복을 자기 과시의 표현으로 여기는 그릇된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 ① 소비자는 제품의 수명이 최대한 짧은 의류를 선택해야 한다.
- ② 의복을 선택할 때에는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③ 기업은 유행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 ④ 의복의 소비에는 윤리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만을 고려해야 한다.
- ⑤ 의복을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23015-0200]

04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소비자는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뒤,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나) 소비자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평화, 인권, 사회 정의, 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 ① (가)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는 소비 행위를 강조한다.
- ② (가)는 개인의 경제력이 아닌 기호를 바탕으로 한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③ (나)는 소비 활동 과정에서 생태계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나)는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찰하면서 소비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가)와 (나)는 충동적 소비나 과시적 소비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23015-0201]

0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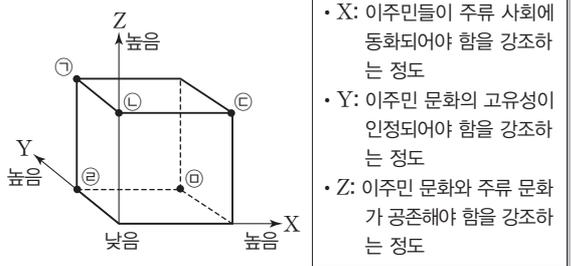
종교적 인간의 입장에서 관찰하면 세계는 성스러운 것, 존재의 다양한 양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세계는 실존하고, 실제로 거기에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신들의 작품인 피조물로 자신을 드러낸다. ... (중략) ... 우주는 전체로서 실재적이고 살아 있으며, 성스러움을 지닌 유기체이다. 즉 그것은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계시한다. 존재 현현(顯現)과 성현(聖顯)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 ① 종교적 인간은 체험을 통해 신을 느낄 수 있다.
- ②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 그 자체를 신으로 숭배한다.
- ③ 종교적 인간은 초월적이며 절대적 실재가 있다고 믿는다.
- ④ 종교적 인간은 우주를 실재적이고 성스러운 유기체로 간주한다.
- ⑤ 종교적 인간은 초월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하지 않는다.

[23015-0202]

06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사회 통합을 위해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소속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주류 문화로 편입시켜야 한다.
- (나) 사회 통합을 위해 국수와 고명의 관계처럼,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비주류 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5-0203]

0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의 어떤 계층도 모든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과시 소비를 겨냥한 물품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밖으로 있어 보이는 체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웅색과 불편조차도 참아 내는 것이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아마도 가장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일 것이다.

- 보기
- ㄱ. 유한계급은 자신의 재력을 은폐하기 위한 소비 행태를 보인다.
  - ㄴ. 타인과의 비교나 허영심은 과시 소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 ㄷ.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상위 계급만이 과시 소비의 성향을 보인다.
  - ㄹ. 사회 전체의 부가 증대되어도 과시 소비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204]

08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가 신앙심을 바탕으로 신에 대한 의존을 강조한다면, 윤리는 이성이나 양심, 도덕 감정 등을 근거로 도덕적 행위의 실천에 관심을 둔다는 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종교와 윤리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다. 종교와 윤리가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관심을 둔다는 면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종교는 인간 존중과 도덕을 전제로 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신장하면서 초월적 세계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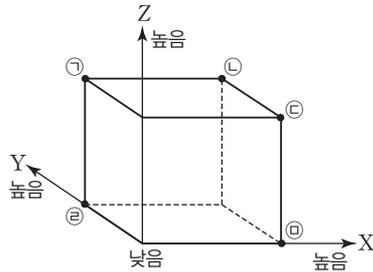
- ① 모든 도덕규범은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성립해야 한다.
- ② 종교에 대한 믿음이 인도주의적 실천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 ③ 종교의 목적을 이성을 통한 도덕적 행위의 실천에 두어야 한다.
- ④ 신에 대한 복종과 도덕적 명령에 대한 복종은 양립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 ⑤ 도덕 원리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23015-0205]

1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올바른 소비는 자신의 경제적, 심리적 만족감을 최대한으로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감을 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소비자는 충동적 구매나 과시 소비, 유행이나 명품에 대한 집착 등에서 벗어나 상품이 자신에게 주는 유용성만을 고려해야 한다.

(나) 올바른 소비는 자신의 경제적,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 변화에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역할까지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는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동물, 환경에 해를 주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적극 표현하고, 윤리적이라고 판단한 기업의 제품(상품) 소비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 X: 소비의 과정에서 보편적인 윤리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는 정도
- Y: 가격 대비 효용성을 소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 Z: 상품 구매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5-0206]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사용하려면, 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인간의 이익과 먹히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가 정말 균형을 이루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를 때,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희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화된 사회의 시민들은 동물의 고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적합한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동물의 고기는 음식을 생산하는 효과적인 방식도 아니다. 우리가 곡물을 동물에게 먹일 때, 단지 영양가의 25% 정도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겨우 10%만이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고기로서 남는다. 때문에 동물을 먹는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식량 증산을 위해서도 적합하지 않다. 동물의 고기는 사람들이 그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사치품이다.

- ① 동물 복지는 먹을거리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② 육류의 생산 과정과 섭취에 대한 경제적·윤리적 검토가 필요한가?
- ③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 도살된 육류에 대한 섭취는 지양해야 하는가?
- ④ 동물의 고통으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이익에 대한 계산이 요구되는가?
- ⑤ 육식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기호에 의존하는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하는가?

[23015-0207]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땅을 구원하는 가운데, 하늘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신적인 것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죽을 자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거주함은 사방의 사중적인 보살핌을 통해 스스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거주함은 사방을 소중히 보살핀다는 의미이다.
- 우리는 우리의 위험스러운 시대에 거주함이라는 상태의 극복을 위해 주택 부족 문제 해결, 즉 주택 건설이나 공급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거주の本래적인 문제를 아직도 전혀 숙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고향 상실을 숙고하자마자 고향 상실은 이미 더 이상 서글픔이 아니다.

| 보기 |

- ㄱ. 거주함의 본질은 집의 경제적 가치와 연관 지어 설명되어야 한다.
- ㄴ. 거주함을 통해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고향을 되찾아야 한다.
- ㄷ. 거주함은 자신을 둘러싼 사방을 고려하면서 자신을 되찾는 것이어야 한다.
- ㄹ. 거주함은 인간을 신적인 것과 죽을 자들에게서 해방시켜 심적인 안정을 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15-0208]

**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유행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의 일부입니다. 유행은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하려는 차별화 욕구를 만족 시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행은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합니다. 상류층의 유행은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의해 동화되는 순간 소멸됨이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 보기 |

- ㄱ. 유행은 삶의 형식들의 일부로 개인의 심리적 만족과 관련된다.
- ㄴ. 사회적 신분 간에 유행의 차별성이 부각되어야 유행이 사라진다.
- ㄷ. 개인은 유행을 따름으로써 집단에 속해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 ㄹ. 낮은 계층 사람들의 상류층에 대한 모방 욕구는 유행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3015-0209]

5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p>갑: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민자들의 문화를 원주민들의 문화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소외되기 쉬운 이민자들의 정체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현 국가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하면서 원주민들과 동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p> <p>을: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민자들의 문화를 원주민들의 문화에 편입하여, 소외되기 쉬운 이민자들이 원주민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민자들이 기존의 자기 문화를 포기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현 국가에 빠르게 적응해야 진정한 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 ① A: 사회 질서 안정을 위해 문화 간의 위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 ② A: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야 갈등이 해소되는가?
- ③ B: 이민자들의 문화 정체성을 원주민의 문화에 동화시켜야 하는가?
- ④ B: 여러 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대등한 존중이 사회 통합의 바탕이 되는가?
- ⑤ C: 원주민 문화를 중심으로 이주민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해야 하는가?

[23015-0210]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약 어떤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도 통치자에 의해서 관용되어야 하는가? 반란자들, 살인자들, 암살단들, 도둑들, 강도들, 간통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중상 비방자들 따위는 그들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간에, 군주의 교회에 속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징계받아야 하며 억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교리가 평화를 지향하고 그들의 행실이 주의 깊고 책망할 데 없다면, 그들은 다른 시민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교 세계의 종교에 관한 대부분의 소송과 전쟁을 만들어 낸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 의견의 다양함이 아니라 허용될 수 있는 것인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관용의 부정이다.

- ①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관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② 종교의 다름을 이유로 타인을 배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③ 종교적이거나 무종교적인 신념은 모두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 ⑤ 그리스도의 교리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교리는 이단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23015-0211]

##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공은 단지 고개 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벌써 종교적인 체험을 불러일으킨다. 하늘은 그 자신을 무한한 것, 초월적인 것으로 보여 준다. 왜냐하면 하늘은 그 존재 양식에 의해서 이미 초월성, 힘, 영원성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높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신들이 세계의 구조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聖)의 양태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다. 신들의 작품인 우주는 하늘의 단순한 현존 그 자체만으로 벌써 신적 초월성의 종교적 감정이 일깨워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 ① 창조주인 절대적 실재는 우주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 ② 우주 만물의 성현은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사고를 통해 인식된다.
- ③ 인간은 종교적 존재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
- ④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 모든 자연은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될 수 있다.
- ⑤ 종교적 인간은 성화된 사물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3015-0212]

## 8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종교와 윤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종교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는 체계화된 교리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보편 윤리를 포함한다. 종교는 성과 속의 조화를 추구하여 현실 속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교리 이행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나) 종교와 윤리는 분리된 체계이다. 종교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신과의 합일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도덕적 주제와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도덕은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 감정 등을 옳고 그름의 판단 척도로 여기므로 초월적 존재의 명령을 옳고 그름의 구분 기준으로 여기는 종교와 대립하기도 한다.

- ① 종교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세속과 무관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신과 인간의 관계를 수렴하는 종교가 윤리보다 우위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종교는 윤리 규범을 존중하면서 신앙심을 굳건히 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도덕적 명령은 신앙의 명령과는 다른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인간 행위에 대한 모든 도덕 판단은 종교적 교리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VI

## 평화와 공존의 윤리



### EBS 교재 연계 사례

#### 학습 요소

- 사회 갈등의 원인, 양상, 기능
- 소통과 담론의 윤리
- 통일 문제를 둘러싼 쟁점
-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관점
-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❶ 이 단원에서는 사회 갈등의 다양한 양상과 원인 및 기능을 이해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소통과 담론의 윤리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 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이해하고,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할 수 있으며,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관점과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항 17번

###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을 겪는 사회들을 위해 원조해야 한다. 그런데 분배 자원만으로는 정치적·사회적 부정의를 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회들의 정치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을: 풍요로운 국가의 사람들 대부분은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빈곤을 막기 위해 원조해야 한다. 그들이 소득의 1퍼센트 정도만 기부하면 전 세계 빈곤층을 완전히 없애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 ① 갑: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국민 인권에 관심을 갖게 원조해야 한다.
- ② 갑: 원조의 목적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실현과 보존에 있다.
- ③ 을: 기아의 주된 원인은 전 세계 식량 총 생산량의 부족에 있지 않다.
- ④ 을: 모든 사람은 세계 모든 이의 복지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⑤ 갑과 을: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답 ④

# 14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 15 지구촌 평화의 윤리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179쪽 05번

### 05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절대 빈곤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 가고 있다. 문제는 세계가 세계 인구를 먹이고 재울 음식과 거처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80그램의 곡물을 소비하는 반면, 북미에서는 평균 900그램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동물에게 곡물과 어분을 먹이지 않고 절약한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의 기아를 종식하고도 남을 것이다. 세계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게다가 비교적 가난한 나라들도 개선된 농업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보기

- ㄱ. 적절한 분배를 통해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ㄴ. 세계 기아 문제는 자연스러운 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 ㄷ. 세계 기아 문제의 원인이 식량 생산의 부족에 있는 것은 아니다.
- ㄹ. 빈곤한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나태함 때문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답 ②

#### 언제 분석 및 학습 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7번 문항은 EBS 수능특강 179쪽 05번 문항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을 비교하였다. 수능특강 문항의 제시문과 선지로 다룬 내용 중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의 핵심 개념을 기초로 하면서 ‘식량 생산’, ‘세계 기아 문제’ 등의 표현을 모의평가 문항의 선지에 활용하였다. 또한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과 핵심 개념을 첨가하여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 문항을 분석할 수 있는 심화된 문제로 출제하였다.

예시된 문항은 해외 원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묻는 문항으로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해외 원조의 목적, 방법, 범위, 근거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롤스, 싱어를 비교·대조하면서 각 입장의 특징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 ☉ 사회 통합

사회 내 개인이나 집단이 상호 작용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

### ☉ 갈등(葛藤)의 유래

갈등은 '침 갈(葛)'과 '등나무 등(藤)'이 합쳐진 말로 침과 등나무가 얽혀 있는 모습에서 유래함

### 개념 체크

- ( )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충돌하거나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가치의 희소성, 소통의 부재,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차이 등은 갈등을 일으키는 ( )이/가 될 수 있다.
- 갈등은 사회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사회 발전과 ( )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정답

- 갈등
- 원인
- (재)통합

## ☉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 1.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

#### (1) 갈등의 의미와 기능

- 의미: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충돌하거나 화합하지 못하는 것
- 사회 갈등의 다양한 원인

사회적 가치의 희소성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지위, 명예, 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유한함 → 분배 과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분배 과정에서 누군가가 소외되면 갈등 발생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차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사회 문제를 다르게 해석함 → 각자의 주장, 가치관 등이 충돌할 때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면 갈등 발생
소통의 부재	사회에서 참여하게 대립하는 주제를 두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한쪽에만 유리한 결론이 나면 갈등 발생
정치적 상황의 변화	권위주의적 체제가 종식되고 시민 사회의 자율성이 확대됨 → 집단적으로 다양한 자율성이 표출되기 때문에 갈등 발생
경제적 상황의 변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생활 방식이 일반화됨 → 양극화와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갈등 발생

#### (3) 갈등의 기능

순기능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사회는 갈등을 통해 사회에 내재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음
역기능	자신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고집하고 상대방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사회는 갈등이 깊어져 사회가 해체될 수 있음

### 자료 플러스 갈등의 순기능

- 사회에서 갈등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예방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갈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통합·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침체된 조직과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 이선우 외, "소통과 갈등 관리" -
- 갈등은 실제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관심사나 차이점을 표시할 경우 표면 상에 드러나는 문제와 실제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갈등이 없는 많은 조직상의 문제가 알려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 김선희 외, "인적 자원 개발론" -
- 외부 집단과의 갈등은 집단에 대한 성원들의 동일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외부 집단과 갈등이 커질수록 집단의 내적인 응집력은 높아지고 집단 구조의 권력 집중화는 더욱 강화되며, 구성원들의 집단 이탈은 감소되고 집단의 에너지와 자원 동원의 수준은 높아진다. ... (중략) ...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개인의 발전과 집단 재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갈등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상호 작용으로서 상호 간 자기주장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 기회를 제공해 준다. - 이성록, "갈등 관리론" -

사회 갈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역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순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다. 갈등은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사회 발전과 재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갈등의 순기능은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기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단과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

### ① 이념 갈등

<b>발생 원인</b>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서 충돌이 발생함
<b>갈등 양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 입장과 변화를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진보적 입장 간 갈등이 심화됨</li> <li>• 우리 사회의 모든 쟁점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사회 갈등이 심화됨</li> <li>• 정책 대결이 아닌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져 많은 사회 비용이 발생함</li> </ul>
<b>해결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의 가치관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적대시하지 말아야 함</li> <li>• 상대방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야 함</li> <li>• 상호 소통하는 동반자 관계 형성이 필요함</li> <li>• 자유와 평등, 질서와 변화, 성장과 분배, 산업화와 민주화 등의 균형을 추구해야 함</li> </ul>

### ② 세대 갈등

<b>발생 원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빠른 경제 성장과 급속한 사회 변화로 세대 간 의식과 가치관 차이가 커짐</li> <li>• 전통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가졌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존경심을 잃고 있음</li> </ul>
<b>갈등 양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갈등이 심화됨</li> <li>• 최근에는 실업난, 국민연금법 개정, 노인 부양 문제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세대 간에 의견이 충돌하기도 함</li> </ul>
<b>해결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li> <li>• 기성세대는 우리 사회를 일구어 낸 장본인이며, 젊은 세대는 독창적 시각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이므로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요함</li> </ul>

### ③ 지역 갈등

<b>발생 원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자원의 배분,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함</li> <li>•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의식이나 특권 의식이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함</li> </ul>
<b>갈등 양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영남과 호남, 지역 개발의 이해관계 등 지역 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li> <li>•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함</li> <li>• 지역의 역사적·지리적 상황과 결부하여 지역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함</li> <li>• 지역 갈등을 이용하려는 왜곡된 정치 구조는 갈등을 더욱 부각시킴</li> <li>• 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지역 갈등은 불공정한 인사나 혜택으로 연결되어 집단 간 갈등을 심화시킴</li> </ul>
<b>해결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마다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함</li> <li>•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li> </ul>

## (3)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 ① 사회 통합의 필요성

- 개인의 행복한 삶: 갈등이 만연하여 충돌과 대립이 일상화되면 개인은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불행해질 수 있음
- 사회 발전: 갈등은 사회적 역량의 결집을 방해하여 사회 발전을 가로막음
- 국가 경쟁력 강화: 갈등에 따른 사회 분열은 구성원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해쳐 국가적 어려움이나 과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킴

### ② 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함
- 사회 구성원들은 연대 의식을 갖추고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존중해야 함
- 공청회, 설명회 등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사회의 각 주체는 고유한 권리와 역할을 이해하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타인의 가치관, 신념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양보와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함

#### ❶ 지역감정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지역 출신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 사람이 가지는 좋지 않은 생각이나 편견

#### ❷ 연대 의식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통으로 나누어 가지는 귀속 의식

### 개념 체크

- ( ) 갈등은 사회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 입장과 변화를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진보적 입장 간의 갈등이다.
-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 ) 갈등이 심화된다.
-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통으로 나누어 가지는 귀속 의식인 ( ) 을/를 가져야 한다.

#### 정답

- 이념
- 세대
- 연대 의식

## 2. 소통과 담론의 윤리

### (1) 소통과 담론의 필요성과 윤리적 자세

#### ① 소통과 담론의 필요성

-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음
- 도덕적 권위를 갖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

#### ② 소통과 담론의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

-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대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
-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갖춰야 함
- 상대를 속이거나 현혹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진실한 대화에 힘써야 함
- 공적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가 필요함

### (2) 동서양의 소통과 담론의 윤리

원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하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융합해야 함을 강조함</li> <li>• 화쟁(和諍) 사상: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 → 포용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함</li> </ul>
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부동(和而不同): 군자는 도덕 원칙을 지키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자신의 원칙을 버리고 남과 같아지는 데만 급급해 하는 태도를 지님 →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함</li> </ul>
하버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론 윤리를 통해 서로 이해하여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함</li> <li>• 의사소통의 합리성: 상호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li> <li>• 이상적 담화 상황: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실성을 가지고 발언해야 함</li> <li>• 공론장: 시민 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의 영역으로, 언론, 텔레비전의 공론, 문화적 공론, 정치적 공론, 학술적 공론 등 매우 다양함</li> </ul>

#### ※ 이상적 담화 상황의 규칙

첫째,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지는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부칠 수 있으며,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어떤 담론의 참가자도 담론의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위의 첫째와 둘째에서 명시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받아야 안 된다.

#### 개념 체크

- 1 원효는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는 ( ) 사상을 강조하였다.
- 2 공자는 군자는 도덕 원칙을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자신의 원칙을 버리고 남과 같아지는 데만 급급해 한다고 설명하면서 ( )을/를 강조하였다.
- 3 ( )은/는 담론 윤리를 통해 서로 이해하여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정답

- 1 화쟁
- 2 화이부동
- 3 하버마스

#### 자료 플러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내가 일반 법칙이 될 것을 바라는 어떤 준칙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한 것으로 규정적으로 명하는 대신에, 나는 보편성 주장의 논의적 검토를 목적으로 나의 준칙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야 한다. 무게 중심은 각자가 모순 없이 일반 법칙으로 원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일치하여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나는 논의 참여자들이 그들의 행위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상호 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 부른다. 이때 매번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간주관적 인정에 따라 평가된다. 언어적 협의 과정의 경우 행위자들은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들의 언어 행위와 함께 각기 상황에 따라 타당성 주장, 즉 진리 주장, 정당성 주장 및 진실성 주장을 제시한다.

하버마스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보편타당한 규범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가 규범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담론 참여자들이 의사소통 행위를 행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해석, 주장, 권고, 정당화 등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문제 삼거나 반박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화자들은 행위자로서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 바람을 표현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람들로 한정해야 하고, 행위자로서 명령하거나 저항하고,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약속하거나 약속을 파기하고, 해명하거나 해명을 요구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람들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 민족 통합의 윤리

### 1. 통일 문제를 둘러싼 쟁점

#### (1) 통일에 대한 찬반 논쟁

- ①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이 이어지면서 통일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음
- ② 통일에 대한 찬반 논거

통일 찬성 논거	통일 반대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li> <li>•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민족 공동체 실현</li> <li>• 전쟁 공포의 해소를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li> <li>• 군사비 감소로 복지 혜택 증가</li> <li>•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li> <li>• 민족의 경제적 번영과 국제적 위상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갈등 발생</li> <li>• 군사 도발 등으로 생긴 북한에 대한 거부감</li> <li>•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과 경제적 위기 초래</li> <li>•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로 실업과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혼란 야기</li> <li>• 통합 과정에서 정치적·군사적 혼란 발생</li> </ul>

- ③ 통일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나 맹목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통일 문제를 깊이 성찰하는 태도가 요구됨

#### (2) 통일과 관련된 비용 문제

##### ① 통일과 관련된 비용

분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부담하는 유무형의 모든 비용</li> <li>•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li> <li>• 민족 구성원 모두의 손해로 이어지는 소모적인 성격의 비용</li> <li>예 국방비, 외교적 경쟁 비용, 이산가족의 고통, 국민들의 불안 등</li> </ul>
통일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통일 과정과 이후 남북한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부담해야 할 비용</li> <li>•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li> <li>• 통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투자적인 성격의 생산적 비용</li> <li>예 화폐 통합 비용, 생산 시설 구축 비용, 실업 등 초기 사회 문제 처리 비용 등</li> </ul>
통일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통일로 얻게 되는 경제적·비경제적 보상과 혜택</li> <li>•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li> <li>예 시장 규모 확대에 의한 교역 증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 등</li> </ul>

- ②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통일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3) 북한 인권 문제

- ① 문제점: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지만, 북한의 경우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② 북한 인권 문제 개입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 입장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인권을 보장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할 경우 국제 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음
반대 입장	국가는 외교 관계와 내정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므로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 ③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함

#### ⊙ 통일의 필요성

- 개인적 차원
  -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운 삶 향유
  - 보편적 가치 보장
- 국가·민족적 차원
  - 국가 역량 낭비 제거
  - 경제 규모 확장
  - 전쟁 위협 해소
  - 민족 통합과 문화 발전
- 국제적 차원
  - 북한 인권, 핵 문제 해결
  -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

### 개념 체크

- ① 분단 비용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부담하는 유무형의 모든 비용으로 ( ) 성격의 비용이다.
- ② 통일로 얻게 되는 경제적·비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 )이라고 한다.
- ③ ( )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지만, 북한의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정답

- ① 소모적
- ② 통일 편익
- ③ 인권

## 2.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

### (1)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

- ① 평화: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평화로운 국가를 지향해야 함
- ② 자유: 자신의 신념과 선택에 따른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함
- ③ 인권: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국가를 지향해야 함
- ④ 정의: 모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국가를 지향해야 함

### (2)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개인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을 경계의 대상이자 동반자로 이해하는 균형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함</li> <li>•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li> </ul>
국가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 기반의 구축과 신뢰 형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노력을 병행해야 함</li> <li>•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 통일 한국의 미래상 등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야 함</li> <li>• 동북아시아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li> </ul>

### (3) 통일 한국의 미래상

수준 높은 문화 국가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다양한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창조적으로 문화를 발전시켜야 함
자주적인 민족 국가	외세 의존적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하며, 통일 후 자주적인 민족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정의로운 복지 국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풍요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함
자유로운 민주 국가	자유와 평등, 인권 등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며,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는 자유로운 민주 국가를 만들어야 함
평화롭고 풍요로운 국가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의 상승효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함

#### ◎ 상승효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씩 작용할 때보다 더 거지는 효과

#### 개념 체크

- 1 통일 한국은 모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로 운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 2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안보 기반의 구축과 더불어 신뢰 형성을 위한( )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 3 외세 의존적 통일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통일 국가를 만들어, 통일 후( )적인 민족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정답

- 1 정의
- 2 교류와 협력
- 3 자주

#### 자료 플러스 독일 통일의 교훈

• 독일 통일은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이루어져 통합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청산 작업, 재산권 문제, 동독 경제 재건을 위한 통일 비용 문제, 동서독 주민 간 갈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연방 정부의 노력으로 점차 해소되어 나갔으며, 동독 경제의 개선 등으로 통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통일 초기 동독 지역의 경제 성장은 자생적 시장 질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서독으로부터의 재정 이전을 통해 달성되었다. 그러나 점차 서독의 재정 이전은 줄어든 반면 동독의 경제는 자생력을 찾게 되었으며, 이는 통일 초기에 우려했던 통일 비용이나 경제 통합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 통일은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도 가져왔다. 통일의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의 독일’이라는 동류의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통합이 진척되면서 동서독 주민 간 편견과 차별 의식, 갈등이 심화되었다. 동독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과거를 그리워하는 ‘오스탈지(Ostalgie)’ 현상도 나타났다. 반면 막대한 재정 지원을 담당하게 된 서독인들은 기증되는 부담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조세 부담률의 증대와 실업 증가, 물가 상승, 재정 적자 확대, 국제 수지 악화, 외채 증가 등은 통일을 비판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은 동독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동서독 주민 간 ‘마음의 벽’도 허물어지고 있다. 물론 독일의 내적 통합은 물질적, 정치적 기회의 균등으로만 통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 존중의 가치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려는 제반 사회 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통일부 통일 교육원, “통일 문제의 이해” -

우리도 독일 통일의 사례처럼 남북한 간의 서로 다른 이념과 문화의 이질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외형적인 통일을 넘어 심리적·문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

[23015-0213]

01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외부 집단과의 갈등은 집단에 대한 내부 성원들의 동일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외부 집단과 갈등이 커질수록 집단의 내적인 응집력은 더욱 강화되며, 구성원들의 집단 이탈은 감소되고 집단의 에너지와 자원 동원의 수준은 높아진다.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개인의 발전과 집단 재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갈등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상호 작용으로서 상호 간 자기주장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

- ① 갈등은 사회 해체의 원인으로 순기능 없이 역기능을 지닌다.
- ② 외부 집단과 갈등이 발생하면 집단 내부의 단결력이 약화된다.
- ③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사회 통합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 ④ 갈등을 통해 집단 내부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갈등은 개인 간의 이해와 가치관의 차이를 부각하므로 항상 회피해야 한다.

[23015-0214]

0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군자(君子)는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당파를 이루지 않고, 소인(小人)은 당파를 형성하여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 군자는 차이 속에서 조화를 이루지만 차이가 없이 마냥 똑 같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소인은 똑같이 지려고 하지, 차이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 하지는 않는다.

보기

- 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 ㄴ.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화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ㄷ.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타인의 뜻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 ㄹ. 당파를 나누어 집단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15-0215]

03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사회는 빠른 경제 성장과 급속한 사회 변화로 세대 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커지고, 기성 세대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세대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실업난, 국민연금법 개정, 노인 부양 문제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세대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 ①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바람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세대 간의 이해관계나 신념에는 차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③ 세대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④ 세대 간에는 연대 의식을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상호 배려해야 한다.
- ⑤ 기성 세대는 권위를 버리고 젊은 세대만이 사회의 주축임을 인정해야 한다.

[23015-0216]

0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행위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서로 대화를 통해 규범의 도덕적 타당성을 결정할 때는 다음의 윤리적 전제를 필요로 한다. 첫째, 갈등은 폭력에 의해 해결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관련 당사자나 그들의 대변인 간의 공동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협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방해받지 않고 주장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협의의 참여자들은 초주관성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사회의 갈등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② 갈등 해결을 위해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행위 공동체가 필요하다.
- ③ 모든 담론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상호 간의 논증적 토론을 통해 규범의 도덕적 타당성에 합의할 수 있다.
- ⑤ 규범의 타당성은 전문가 집단이 식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015-0217]

**05**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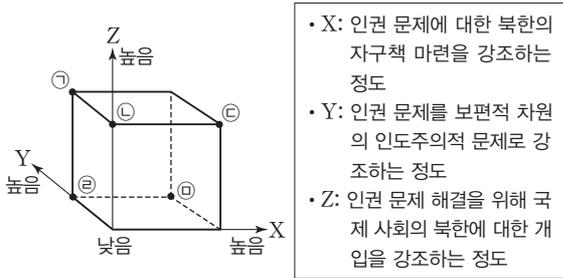
갑: 통일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통일을 통해 민족 공동체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을: 통일은 남한에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져다줄 것이다.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로 실업과 범죄가 증가하고,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과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민족적 과업의 대상이 아니다.

- ① 통일을 당위적 차원에서 살펴보아서는 안 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통일로 인해 발생할 손실을 계산해 보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경제적 유용성의 측면에서 통일 문제에 접근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통일을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옳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이해타산적 시각으로 통일의 민족적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됨을 간과하고 있다.

[23015-0218]

**06**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내정에서 타국이나 국제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나) 북한은 현 상황에서 스스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제 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며, 인권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인도적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5-0219]

**07**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은/는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부담하는 유무형의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은/는 통일 과정과 이후 남북한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의미한다.

보기  
 가. ㉠은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나. ㉡은 통일 한국 건설을 위한 투자적인 성격의 비용이다.  
 다. ㉡은 ㉠과 달리 국방비와 이산가족의 고통이 포함된다.  
 르. ㉠과 ㉡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항구적인 손해를 발생시킨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 ④ 나, 르      ⑤ 다, 르

[23015-0220]

**08**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제도적 통일로 서독에 흡수 통일된 동독의 경우, 서독의 문화에 동독인이 적응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였다. 서독인 중심의 문화는 동독인으로 하여금 서독인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게 하였으며, 서독인은 적응에 어려워하는 동독인을 비하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동·서독의 통일이 또 다른 심리적 분단을 유발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

- ① 남북한 간의 경제적 평등을 정치적 통일보다 중시해야 한다.
- ② 남북한 간의 내적인 유대감 형성보다 외형적인 통일을 우선해야 한다.
- ③ 남북한 지도자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통일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 ④ 남북한 주민들 간의 심리적·문화적 간격을 줄이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 ⑤ 남북한 간의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통일 한국 건설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

[23015-0221]

## 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갈등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해소가 더 중요하다. 갈등은 개인과 조직의 표면적·실제적 문제점을 드러내어 개인과 조직이 통합·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침체된 조직과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갈등이 없이는 많은 조직상의 문제가 알려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을: 갈등은 타인이나 집단 등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그들의 목표 지향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조직의 통합성과 사회적 기능을 파괴하여 불균형 상태를 야기한다. 또한 집단 간의 갈등에서는 소위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상대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집단의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① 갑은 갈등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 ② 갑은 갈등이 집단에 잠재된 문제점을 드러내는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고 본다.
- ③ 을은 갈등이 집단의 목표 지향적인 협력 문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갈등이 자신과 대립하고 있는 상대방과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라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갈등의 합리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23015-0222]

## 2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의 양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건전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다양한 이념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서로의 다른 이념을 존중하지 않거나, 모든 쟁점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념 갈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산업화와 민주화 등 생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이념 갈등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 이념을 갖도록 하여 해결해야 하는가?
- ② 이념의 다름이 이념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 ③ 이념 갈등은 소모적 논쟁이 아닌 정책 대결로 나타나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가?
- ④ 다양한 이념의 가치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 ⑤ 사회 안정을 위해 자신의 관점으로만 이념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가?



[23015-0225]

## 5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p>갑: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민족적 과제이다. 그러나 급진적이고 혁명적 방식의 통일은 통일 이후에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일으켜 통일 편익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크다. 통일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한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형성한 이후에 국민의 합의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p> <p>을: 통일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이질성은 분단된 상태에서 극복하기 어렵다. 분단된 상태에서 교류는 이질감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불이해와 오해를 일으켜 갈등을 부추기기 쉽다. 정치적 결단을 통한 신속한 제도적 결합이 달성되면 한반도 내의 심리적·문화적 갈등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 ① A: 남북한 간의 이질성은 극복될 수 있는가?  
 ② A: 통일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민족의 과업인가?  
 ③ B: 통일을 위해 남북한 간의 정치적 합의를 우선해야 하는가?  
 ④ B: 제도적 통일 이전에 남북한 간의 점진적인 교류가 요구되는가?  
 ⑤ C: 남북한 간의 정치 체제 통합은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끌 수 있는가?

[23015-0226]

## 6 다음 신문 칼럼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

**칼럼**

북한 주민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통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이다. 고통받는 전 인류를 도와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에 따라 우리는 남북한 간 이념 갈등의 문제를 떠나 북한 주민들을 주저 없이 도와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북 지원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과 다름없기 때문에 핵 개발 포기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변화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은 ㉠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 ① 대북 지원이 주민들의 혜택이 아닌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② 대북 지원의 실행 여부는 경제적 효용성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함  
 ③ 대북 지원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유도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함  
 ④ 타국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 의무가 될 수 없음  
 ⑤ 보편적 인류애에 기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함

[23015-0227]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 논증은 반성적 자세에서 소통적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합의적 조정에 기여한다. 도덕적 논증을 통한 의견 합치는 공동 의지를 표현한다. 규범이 주관적 협의 과정을 통해 반성적 의견 합치에 이르면, 참여자들에게 도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내가 일반 법칙이 될 것을 바라는 어떤 준칙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한 것으로 규정적으로 명하는 대신에, 나는 보편성 주장의 검토를 목적으로 나의 준칙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야 한다. 무게 중심은 각자가 모순 없이 일반 법칙으로 원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일치하여 보편적으로 승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 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극복할 수 있다.
- ②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규범적 대화 주제로 거론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논증적 대화를 통한 보편적 합의는 참여자에게 도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④ 대화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욕구에 근거하여 타인의 주장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대화 참여자들은 정당한 담론의 결과가 자신에게 손실을 초래하면 항상 거부해야 한다.

[23015-0228]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방비, 외교적 경쟁 비용과 같은 경제적 손실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통일이 실현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국방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의 발생으로 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것입니다.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찰해야 합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의 발생은 투자적 성격을 지니며,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오히려 군사비 감축, 남북한 간의 자원 교류를 통한 국가 경쟁력 증대 등으로 통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보기

ㄱ. 갑은 통일 이후에 국가가 국방비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본다.  
 ㄴ. 을은 통일 비용이 통일 편익의 증대를 위한 생산적 비용이라고 본다.  
 ㄷ. 을은 통일이 경제적 효용과 무관하게 당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 갑과 을은 통일 과정에서 통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 1. 국제 관계의 이해

##### (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 ① 현실주의

- 국가는 이기적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 관계는 각국을 통제할 상위 중앙 권위가 없는 무정부적 상태임
- 국가의 목표는 자국의 이익과 생존이며, 다른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임
- 평화는 힘의 논리에 의한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 또는 억지하는 것임

###### ② 이상주의

-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듯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임
- 분쟁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 잘못된 제도에서 유래함
-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강조함
- 평화는 국가 간 이성적 대화, 협력을 바탕으로 도덕·여론·법률·제도를 통해 만들어 갈 수 있음

###### ③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한계점

현실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력 균형의 평화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자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비 경쟁을 유발함</li> <li>• 전쟁과 무력행사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음</li> <li>•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 주체와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여 국제 관계의 협력을 잘 설명하지 못함</li> </ul>
이상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경쟁이나 갈등을 설명하기 어려움</li> <li>• 국제 관계를 통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없음</li> </ul>

#### 자료 플러스 현실주의의 특징

현실주의는 국가주의, 생존, 자조를 핵심으로 한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경계 밖에서는 무정부 상태의 조건이 존재한다고 본다. 국제 정치는 주권 국가들의 개별적인 집합 위에 그를 가로지르는 중심적인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다. 즉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정치의 기본 구조를 그 안에서 독립적인 개별 주권 국가들이 스스로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로 간주하고 그보다 상위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의 구조라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 생존을 확실히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첫 번째 주안점이라고 본다. 모든 국가의 중추적인 국가 이익은 생존이다. 국가들은 경제, 환경, 인도주의와 같은 다양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생존이 위태로워진다면 다른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진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타국이나 국제 연맹 혹은 국제 연합과 같은 국제 체도에 위임하는 것을 신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만약 약소국가의 생존이 패권 국가 혹은 강대국의 연합으로 위협을 받게 되면 그들은 힘을 합쳐 공식적 동맹을 형성하고 상대의 힘을 견제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세계 정치론" -

현실주의 입장에서 볼 때 무정부 상태라는 개념은 반드시 완전한 혼돈이나 무법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개념은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제 정치의 영역이 중심적인 권위의 부재로 특징 지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세력 균형의 기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 국가나 국가의 연합이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위치에 이르지 않는 힘의 균형 상태를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 ⊕ 세력 균형

국가들 사이의 세력이 비등하여 어떠한 국가도 무력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가장 일반적인 세력 균형은 국가 간 동맹을 통해 이루어짐

#### 개념 체크

- 1 ( )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계는 각국을 통제할 실효성 있는 권위가 부재한 무정부적 상태이다.
- 2 이상주의 관점에서는 평화는 국가 간의 이성적인 ( )와/과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 3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평화는 ( )에 의한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 또는 억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 정답

- 1 현실주의
- 2 대화
- 3 힘의 논리

개념 플러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비교

구분	현실주의	이상주의
인간관	인간은 이기적 존재	인간은 선한 존재 또는 이성적 존재
분쟁 원인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 추구	국가 간의 오펜나 제도의 불안전함
분쟁 해결	세력 균형(동맹)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 규범을 통한 제도의 개선
한계점	국제 관계의 협력을 잘 설명하지 못함	국가 간 경쟁이나 갈등을 설명하기 어려움

(2)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과 자원: 국가 간 영역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분쟁 발생</li> <li>• 종교적·문화적 차이: 종교적·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은 타협이나 중재가 어려워 쉽게 분쟁 발생</li> <li>• 인종·민족 차이: 인종이나 민족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차별적 대우로 분쟁 발생</li> </ul>
윤리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촌의 평화 위협: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의 개발</li> <li>•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의 훼손: 국제 분쟁으로 인간의 존엄성, 정의, 평화, 인권 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종 청소, 집단 살해와 같은 범죄가 자행되기도 함</li> </ul>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명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동질성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함</li> <li>• 약소국을 배려하는 국제적 차원의 제도 마련과 국제 원조 기구를 통한 기부의 활성화로 국제적 분배 정의를 실현함</li> </ul>

2. 평화의 가치와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1) 평화의 가치

- ① 평화는 인류가 갈등, 분열, 전쟁이 지속되는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추구해 온 윤리적 가치임
- ② 평화는 안전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임

(2)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 ① 갈등: 인간 존엄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평화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함

소극적 평화	범죄, 테러, 전쟁 등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
적극적 평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등의 간접적 폭력까지 제거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자료 플러스 갈등이 주장한 폭력의 종류

직접적 폭력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중략)… 간접적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난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잘 알려진 억압과 착취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이는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 갈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갈등은 평화를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간접적 폭력까지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폭력을 언어나 신체적 폭력과 같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구조적 폭력의 주요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나타나는 억압과 착취이며,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 갈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쓴 저자로, 노르웨이의 대표적 인 평화학자임

※ 구조적 폭력

부정적인 사회 제도나 구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폭력 ㉠ 억압, 착취 등

※ 문화적 폭력

문화적 영역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는 형태의 폭력

개념 체크

- 1 약소국을 배려하는 국제적 차원의 제도 마련과 국제 원조 기구를 통한 기부 활성화로 국제적 ( ) 을/를 실현할 수 있다.
- 2 갈등은 인간 존엄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 ) 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 3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 ) 와/과 착취이다.

정답

- 1 분배 정의
- 2 적극적 평화
- 3 억압

- ② 칸트: 전쟁의 폭력성과 적대성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함
  -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에 참여할 것을 주장함
  - 연맹에 참여한 국가의 국민들은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국가 지도자가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됨
  -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환대권을 강조함

**개념 플러스** 칸트가 주장한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자료 플러스** 국제법에 관한 칸트의 견해

국제법은 공법으로서 그 자체 개념 속에 각 국가에 그의 권리를 부여하는 일반 의지의 공개적 천명을 포함하며, 이러한 법적 상태는 어떤 계약에서부터 귀결되어야 한다. 그 계약은 반드시 강제법에 근거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전에 언급된 국제 연맹에서처럼 자유롭고 지속적인 연합의 계약일 수 있다. 서로 다른 (물리적 이거나 도덕적) 인격체를 적극적으로 한데 묶는 어떤 합법적인 조건이 없다면, 있는 것은 오직 사적인 법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나 있게 될 상황이다. - 칸트, "영구 평화론" -

칸트는 확정 조항을 통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인어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국제 연합: 억압과 차별, 민족 간 분쟁, 종교 간 갈등과 같은 집단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 유지, 군비 축소, 국제 협력 등의 활동을 전개함
- ④ 국제 비정부 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 유니세프 등은 평화를 위한 구호 활동을 전개함

📍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1. 세계화에 대한 관점

(1) 세계화(globalization)

- ① 의미: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가로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 체계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
- ② 세계화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p><b>긍정적 측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함</li> <li>•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의 선택 기회를 갖게 되고, 생산자는 더 넓은 시장에서 제품을 팔 수 있게 됨</li> <li>• 환경, 난민, 인권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이루어짐</li> <li>•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가 교류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짐</li> </ul>
----------------------	--

📌 칸트의 환대권  
어떤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

📌 칸트의 "영구 평화론"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통해 전쟁과 평화의 근원적 문제는 국가 간 신뢰가 정착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과 확정 조항 등에 대해 서술함

**개념 체크**

- 1 칸트는 모든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 )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 2 ( )은/는 영구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 ( )은/는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가로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 체계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답**

- 1 연맹
- 2 칸트
- 3 세계화

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경쟁에서 유리해져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됨</li> <li>• 다른 나라의 경제 위기로 국내 경제가 위협에 노출되는 등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됨</li> <li>• 세계적 문화 교류는 각 지역이나 나라의 고유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문화를 획일화함</li> <li>• 특정 국가의 권리와 보편 윤리로서 인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짐</li> <li>• 영역과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분쟁이 빈번해짐</li> </ul>
--------	---

③ 세계화는 양면성을 지니므로 세계화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지역화(localization)

- ① 의미: 지역의 전통이나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는 현상이나 전략
- ② 장점: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음
- ③ 문제점: 지역 공동체의 폐쇄성과 배타성으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글로컬리즘(glocalism)

- ① 의미: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세계화하는 것
- ② 장점: 세계화와 지역화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음
- ③ 실현 방안
  - 특정 문화의 기준이나 가치를 다른 문화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현지화하는 방법
  -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나 가치에 맞게 변형하여 세계로 확산하는 방법

※ 국제 형사 재판소

집단 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조사·처벌하는 국제 재판소

※ 국제 형사 경찰 기구

세계 각국의 경찰이 국제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 진압에 협력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

※ 공적 개발 원조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복지 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정부 개발 원조'라고도 함

개념 체크

- 1 ( )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세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세계화로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 ( )의 실현이 요구된다.
- 3 ( ) 정의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실현되는 정의를 의미한다.

정답

- 1 글로컬리즘
- 2 국제 정의
- 3 분배적

자료 플러스 글로컬리즘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되 국지적으로 실천하라”라는 구호처럼, 글로컬리즘(glocalism)은 지구화를 의미하는 글로벌리즘(globalism)과 지역화를 의미하는 로컬리즘(localism)이 융합된 것이다.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져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친숙성이 증가한 결과, 막연히 품어 왔던 편견이 완화되고 타 문화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수용한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국악과 팝이 만나고, 동서양의 입맛을 골고루 섞는 퓨전 음식이 유행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우리 고유의 것’ 대 ‘다른 나라의 것’이라는 배타적인 이분법적 관계보다는 융통성 있는 경계 넘나들기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생산적인 융합을 시도하려고 한 결과이다.

- 조윤경,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상상력” -

세계화 대 지역화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 글로컬리즘의 통합적인 사고를 갖추고,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을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2. 국제 정의와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국제 정의

- ① 필요성: 세계화로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 국제 정의의 실현이 요구됨
- ② 국제 정의의 종류: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나눌 수 있음
- ③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비교

구분	형사적 정의	분배적 정의
의미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통해 실현되는 정의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실현되는 정의
침해 사례	전쟁 집단 학살, 테러, 납치 등 무고한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특정 국가나 계층의 부의 편중으로 말미암은 빈곤과 기아
실현 방안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형사 재판소를 통해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함</li> <li>• 국제 형사 경찰 기구를 통해 국제 범죄 수사에 공조함</li> </ul>	공적 개발 원조 등을 통해 선진국이 빈곤 국가에 경제적 지원과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부의 격차를 줄임

(2)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입장

① 해외 원조에 관한 윤리적 근거

자선의 관점	노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 지상주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개인은 배타적 소유권을 지니며, 처분권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li> <li>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외 원조나 기부를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없음</li> <li>원조를 자율적 선택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빈곤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음</li> </ul>
	의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려운 처지의 국가를 돕는 행위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며,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임</li> <li>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은 보편적 윤리 기준에 어긋남</li> <li>선(善)의 실천은 곧 도덕적 의무임</li> </ul>
의무의 관점	싱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리주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임</li> <li>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함</li> <li>굶주림과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임</li> <li>세계 시민주의적 관점: 지구적 차원의 원조를 강조함</li> </ul>
	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조의 목적: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임 →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는 그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음</li> <li>원조의 목적을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두지 않음</li> <li>"정의론"의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분배 정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음</li> </ul>

② 약소국 지원의 윤리적 자세

- 개인적 차원: 지구촌 이웃이 겪는 고통에 관심을 갖고 후원과 기부를 실천해야 함
- 국가적·국제적 차원: 각 국가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해외 원조를 실천해야 함

자료 플러스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의 입장

의심할 여지없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돕는다. 물에 빠진 어린아이 바로 곁에 서서 바라보기만 할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아프리카의 기근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의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는 견해를 정당화해 줄 타당한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인종적 친화성을 고려해 보자. 유럽계의 사람들은 가난한 아프리카 인들을 돕기 전에 가난한 유럽인들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한 제안을 즉석에서 거부할 것이며, 우리가 이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서 제시되었다. 즉,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만약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인들보다 음식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유럽인들을 우선한다면, 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싱어, "실천 윤리학" -

싱어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논변을 정리하였다. 첫째, 만약 다른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 둘째, 절대 빈곤은 나쁘다. 셋째,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떤 절대 빈곤이 있다. 싱어는 이러한 논변을 전제로 해외 원조의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종이나 국적을 넘어 절대 빈곤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세계 시민주의

사람들이 민족이나 국가 같은 지역 공동체에 속한다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류를 하나의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인류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세계 시민으로 살 것을 주장함

❊ 고통받는 사회(burdened society)

대외적으로 공격적 팽창 정책을 펼치지 않으며 정치 문화적 전통,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그리고 질서 정연해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물질적·과학 기술적 자원이 결핍되어 있는 사회

❊ 질서 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

구성원들의 선(善)을 증진해 주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의 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

개념 체크

- 1 노직은 원조를 ( ) 선택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외 원조나 기부를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 2 싱어는 인류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세계 시민으로 살 것을 강조하는 ( ) 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원조를 인류의 의무라고 보았다.
- 3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고통받는 사회를 ( ) 이/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 1 자율적
- 2 세계 시민주의
- 3 질서 정연한 사회

[23015-0229]

01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제 분쟁은 세계 평화의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며, 주로 영역과 자원 선점, 종교와 문화의 차이, 인종과 민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국제 분쟁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타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의 지나친 자국 이익 추구나 문명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원조 기구를 통한 국제적 분배 정의의 실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① 문명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 ② 영토와 자원을 모든 국가에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
- ③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④ 약소국을 배려하는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⑤ 인류애를 바탕으로 타국민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

[23015-0230]

0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_\_\_\_\_ ㉠ \_\_\_\_\_

•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제이어야 한다.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 보기 】

- ㄱ. 전쟁 기간에는 항복 조약의 파기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 ㄴ. 독립 국가는 매매를 통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있다.
- ㄷ.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도 발형되어서는 안 된다.
- ㄹ.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5-0231]

03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한 국가의 대외 정책에 대해 도덕적으로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다.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국제 평화와 생존은 각 국가들이 국익을 위해 서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세력 균형을 통해 유지된다.
- (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은 국제 정치상의 구조와 제도의 문제이다. 잘못된 제도나 구조는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 등은 국제 평화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가):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은 전쟁 예방에 효과적이다.
- ② (가):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경쟁 상태이다.
- ③ (나): 국가 간의 대화는 국제 평화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④ (나): 국제적 제도의 개선으로 국가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⑤ (가)와 (나):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존재한다.

[23015-0232]

0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접적 폭력은 사람, 사회, 세계의 공간 속에서 정의된 것이며,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거나 내부 집단들에 의해 의도된 것이다. 구조적 폭력은 사람, 사회와 세계의 공간에 조성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비의도적이다. 문화적 폭력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폭력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구조적 폭력에 대응하지 않게 한다.

- 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항상 평화적이어야 하는가?
- ② 의도되지 않은 폭력을 정당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인가?
- ③ 직접적 폭력이 제거되면 필연적으로 구조적 폭력도 제거되는가?
- ④ 적극적 평화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인가?
- ⑤ 문화적 폭력은 의도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23015-0233]

**05**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세계화는 다양한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게 만들어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세계화는 환경, 난민, 인권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도모에 이바지한다.

을: 세계화는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이 경쟁에서 이기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세계화는 과도한 경쟁과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보편 윤리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높이고, 영역과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분쟁 발생을 빈번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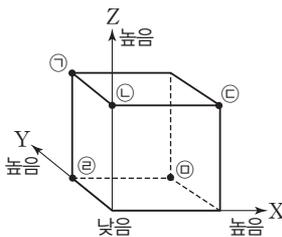
- ① 갑: 세계화는 보편적 가치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 ② 갑: 세계화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독려할 수 있다.
- ③ 을: 세계화는 선진국과 빈곤국 간의 빈부 격차를 약화시킬 수 있다.
- ④ 을: 세계화는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 ⑤ 갑과 을: 세계화는 국가 간 상호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23015-0234]

**06**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취득에서의 정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들을 강제하여,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 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을: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도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 X: 원조는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 Y: 원조의 근거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도
- Z: 원조는 인류 전체의 고통 감소를 위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5-0235]

**0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통받는 사회는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반면에,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과학 기술적 자원들을 결핍하고 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보기
- ㄱ. 원조의 목적을 대상국의 사회 제도 개선에 두어야 한다.
  - ㄴ. 빈곤하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는 의무적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 ㄷ. 원조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이다.
  - ㄹ. 원조를 통해 질서 정연한 사회와 고통받는 사회의 복지 수준을 평등하게 조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15-0236]

**08**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져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친숙성이 증가한 결과, 막연히 품어 왔던 편견이 완화되고 타 문화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수용한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국악과 팝이 만나고, 동서양의 입맛을 고루 섞은 퓨전 음식이 유행하는 등 융통성 있는 경계 넘나들기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생산적인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리즘(globalism)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

- ①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의 전통을 배제해야 한다.
- ② 세계화와 지역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 ③ 지역적인 것을 창조적으로 변형해 세계로 확산시켜야 한다.
- ④ 서구 문화의 기준이나 가치를 지역 문화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⑤ 자문화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가 세계 문화보다 우수함을 알려야 한다.

[23015-0237]

## 1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상호 협력이 가능한 선한 존재이다. 국가가 이기적이고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은 국제 정치상의 구조와 제도의 문제 때문이지,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구조와 제도는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을: 인간은 힘과 권력을 원하는 본능을 지닌 존재이다. 국가는 욕망에 가득 찬 인간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 또한 이러한 욕망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개별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엄한 국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최대의 국익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 ① 타국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은 자국의 생존 보장에 도움이 되는가?
- ② 국가 간의 분쟁은 상대 국가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 기인하는 것인가?
- ③ 국가 간의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 ④ 국제 사회는 국제 규범과 같은 합법적인 힘으로 완전히 제어될 수 있는가?
- ⑤ 국가 간 세력 균형으로 각 국가의 공격 충동을 제어하여 평화를 실현해야 하는가?

[23015-0238]

## 2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 칼럼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게임의 법칙은 가난한 나라에 유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빈곤국은 WTO 협정, IMF의 지원 조건 등 금융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들에 둘러싸여,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들만의 자율성을 빼앗기고 있다. 더구나 이들 국가는 선진국이 수 세대에 걸쳐 이룬 과제들을 지금 단번에 실행해야 한다. 빈곤국이 세계 시장에서 부딪히는 규제는 매우 불공평하다. 수입 장벽은 의류와 같이 빈곤국에 가장 중요한 제조품에서 제일 높고, 국제 지식 재산권 체제는 빈곤국의 필수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경향을 보인다. 빈곤국이 세계 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자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니다. 큰 성과를 거둔 국가들은 세계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면서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낸 국가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 ① 세계 시장에서는 선진국이 빈곤국보다 경쟁에서 유리하다.
- ② 빈곤국이 세계 시장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③ 세계 금융 시장은 빈곤국의 독립적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 ④ 빈곤국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경제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⑤ 빈곤국은 세계 금융 시장에 조건 없이 의존해야 경제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23015-0241]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p>갑: 사회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만 도움이 필요하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도덕적 신념과 문화가 그 기반이 되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과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p> <p>을: 절대 빈곤과 그에 따른 배고픔, 열악한 영양 상태, 주거의 부족, 문맹, 질병, 높은 유아 사망률, 낮은 평균 수명 등은 나쁜 것이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풍요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이 두 가지 가정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갖게 된다. 이는 연못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구할 의무보다 약한 것이 아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 ① A: 원조는 공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행되어야 하는가?
- ② A: 모든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 ③ B: 질서 정연한 만민 간의 부의 수준은 동일해야 하는가?
- ④ B: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인가?
- ⑤ C: 원조는 도덕적 의무는 아니지만 칭찬할 만한 자선적 행위인가?

[23015-0242]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폭력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삼각형에서 어떤 꼭짓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짓점으로도 쉽사리 전달된다. 또한 제도화된 폭력적 구조와 내면화된 폭력적 문화, 그리고 직접적 폭력은 장기간에 걸친 복수전처럼 제도화되고, 반복되며, 의식화되려는 경향이 있다.

┌ 보기 ─┘

- ㄱ. 문화적 차별은 사회 구조적으로 내재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
- ㄴ.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방해하는 억압은 적극적 평화 실현을 막는다.
- ㄷ.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한하여 폭력으로 인정된다.
- ㄹ.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그 자체로 제도화된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3015-0243]

##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은 인간으로 하여금 전쟁과 같은 불안정한 시도를 감행하게 하여 결국에는 수많은 황폐화와 몰락에 빠뜨린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힘을 고갈시킨 후에야 비로소 이성의 인도를 통해, 즉 야만의 무법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 간 연맹을 이루도록 이끈다. 이렇게 형성된 국가 연맹에서는 비록 가장 작은 국가일지라도, 모든 국가가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고유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국제 연맹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힘과 의지의 법칙에 따른 결정에 의해 그렇게 된다. 모든 국가는 평화적 연방으로서의 연맹의 구상 아래에서 영원한 평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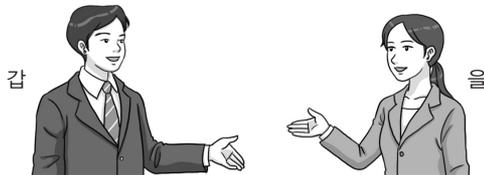
- ① 국제 연맹은 하나의 단일한 헌법 체계에 기초한 세계 정부이다.
- ② 영구 평화는 자유로운 국가들 사이의 연합에 의해서 실현 가능하다.
- ③ 국제 연맹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
- ④ 국가는 도덕적 인격이므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자유의 상태에 있다.
- ⑤ 완전한 시민적 정치 체계는 합법적 국제 관계 형성으로 확립될 수 있다.

[23015-0244]

##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lt;보기&gt;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개별 지역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위협에 맞서 지역의 개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별 지역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고유한 가치를 갖지만, 시대와 흐름에 따라 이를 개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문화를 수용하거나 혹은 외부에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등 세계화를 통해 쌍방향적으로 문화를 융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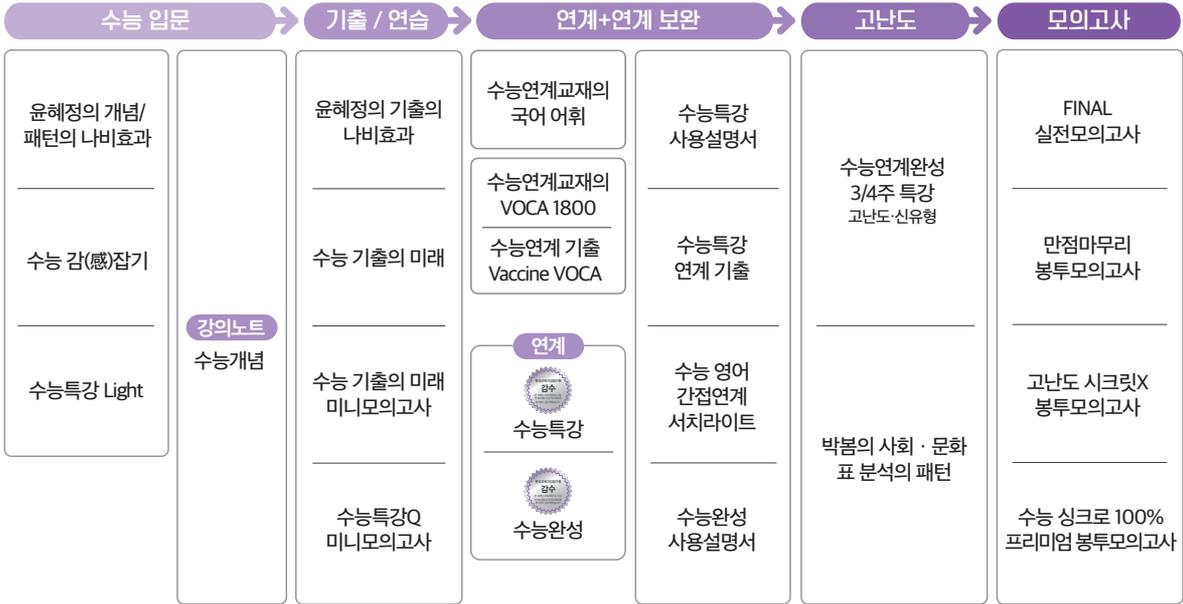


| 보기 |

- ㄱ. 갑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ㄴ. 을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문화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 ㄹ. 갑과 을은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문화를 지닌다고 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고2~N수 수능 집중 로드맵



구분	시리즈명	특징	수준	영역
수능 입문	윤희정의 개념/패턴의 나비효과	윤희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능 국어 개념/패턴 학습	●	국어
	수능 감(感)잡기	동일 소재·유형의 내신과 수능 문항 비교로 수능 입문	●	국/수/영
	수능특강 Light	수능 연계교재 학습 전 연계교재 입문서	●	국/영
기출/연습	수능개념	EBSI 대표 강사들과 함께하는 수능 개념 다지기	●	전 영역
	윤희정의 기출의 나비효과	윤희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까다로운 국어 기출 완전 정복	●	국어
	수능 기출의 미래	올해 수능에 딱 필요한 문제만 선별한 기출문제집	●	전 영역
	수능 기출의 미래 미니모의고사	부담없는 실전 훈련, 고품질 기출 미니모의고사	●	국/수/영
연계 + 연계 보완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매일 15분으로 연습하는 고품격 미니모의고사	●	전 영역
	수능특강	최신 수능 경향과 기출 유형을 분석한 종합 개념서	●	전 영역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의 지문·자료·문항 분석	●	국/영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 수록 작품·지문과 연결된 기출문제 학습	●	국/영
	수능완성	유형 분석과 실전모의고사로 단련하는 문항 연습	●	전 영역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의 국어·영어 지문 분석	●	국/영
	수능 영어 간접연계 서치라이트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만 모아 구성한 간접연계 대비 교재	●	영어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수능 지문과 문항 이해에 필요한 어휘 학습서	●	국어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필수 중요 어휘 1800개 수록	●	영어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수능-EBS 연계 및 평가원 최다 빈출 어휘 선별 수록	●	영어
고난도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수능 킬러 문항 대비서	●	국/수/영/과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박봄 선생님과 사회·문화 표 분석 문항의 패턴 연습	●	사회탐구
모의고사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능 동일 난도의 최다 분량, 최다 과목 모의고사	●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실제 시험지 형태와 OMR 카드로 실전 훈련 모의고사	●	전 영역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제대로 어려운 최고난도 모의고사	●	국/수/영
	수능 싱크로 100% 프리미엄 봉투모의고사	수능 직전에 만나는, 수능과 가장 가까운 고품격 프리미엄 모의고사	●	국/수/영